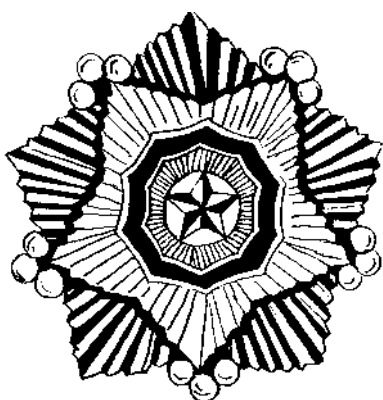


8

주체 102 (2013)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2(2013)년 제8호

(루계 제790호)

차 례

아, 8월 25일! 외 1편(시)	황 명 성(3)
백두령장의 선군보검찬가(시)	홍 성 두(5)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6)
해방에 대한 추억 (시)	리 영 철(6)
단편소설 출항	박 윤(7)
주체문학의 대강	(18)

◇ 평 론 ◇

수령의 위대성형상과 회상수법의 효과적이용	김 순 립(20)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충정의 세계를 진실하게 노래한 수령송가	최 언 경(30)
8월은 뜨겁다(수필)	리 정 웅(23)
좋다, 우리 핵무력	오 동 규(19)
선군길은 만복의 길(가사)	박 영 진(19)
오성산아 말하랴(시초)	백 하(27)
내 삶의 등대	함 영 주(4)
시 마식령병사는 추억하리	리 경 체(22)
하늘에 닿은 인민의 환희여(시초)	허 수 산(33)
창전저리의 나의 집	문 동 식(25)
마식령스키주로여!	주 경(25)
씨앗을 뿌려가네	전 옥 진(26)

《마식 청스키장전설에서 발휘되고있는 군인들의
불굴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온 나라에
대혁신, 대비약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자는것이
바로 우리 당의 의도이며 결심이다.》

김정은

단편 소설	푸른 계절	리 명(40)
	고향의 백양나무	리 순 호(60)
수 필	진주보석	배 경 휘(38)
	별	리 명 호(53)
	별은 가깝다!	리 경 명(55)

◇ 시 ◇

병사의 통일엽서(가사)	리 명 옥(36)
청춘의 위훈 조국은 자랑하리(가사)	리 동 일(36)
사랑을 말하고있다 외 1편	성 연 일(37)
미래사랑 꽃피는 기대	리 명 호(51)
행복에 대한 생각 외 1편	리 미 옥(51)
승리, 우리는 너와 함께 산다(시초)	정 예 향(57)
조국과 강철과 나	리 명 학(72)
손자자랑	최 은 철(78)
나는 그리리라	조 석 영(79)
내 고향의 사과맛	리 진 목(79)
시인의 사색속에 비낀 세월과 인생(평론)	최 주 원(73)
유래	(26),(39),(72) 상식 (24),(54),(78)

표지2면: 《복받은 인민의 노래》(노래)

표지3면: 《선군의 기치 높이 들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선전화)

아, 8월 25일! 외 1편

황 명 성

레사로운 날이 아니었다
빨찌산의 아들이신 우리 장군님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신
아, 8월 25일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
그이 너무나 소박하신 옷차림
그이 너무나 겸허하신 모습이어서
장병들 영접의 레식도 몰랐던가

하건만
다정히 땅크병들의 손도 잡으시며
한전호에서 운명을 함께 하는
총대동지 총대전우되자고
주시는 사랑 주시는 믿음

백두산을 닮은 천출위인의 모습이였다
이 땅의 천만병사들을 한품에 안아
끓을수 없는 혈연의 정을 이어놓고
붉은기 날리며 가야 할 혁명의 길우에
장군의 기상을 펼치시는 그이

빛발치는 령장의 비범한 예지로
군인회관채양의 불멸의 구호에서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의 사명감을 간직한
장병들의 신념을 소중히 안으시고
전군에 수령결사옹위의 넋이 나래치게 하시었나니

그날부터 그이 주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작전도우에 멸적의 붉은 화살이 쭉쭉 뻗어갔다
선군의 억센 의지로 울리는 구령이
대오를 하나같이 움직이였다

정적 깃든 고요를 흔들며
하늘땅을 진동하는 용맹의 퇴성인가
105땅크사단의 무한계도동음소리
침략의 무리들을 쓸어눌힐 멸적의 선언이였다

신심과 활력에 넘친 그날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동지
소문없이 105땅크사단에 오시여
아버이수령님의 뜻을 이어
선군령도의 첫걸음을 내짚으시었나니

세월이 흘러도 가지 않으리라
천만군민의 심장에 새겨져
장군님의 선군업적 길이 전해주는
혁명무력이 축복받은 영광의 날
이 땅에 영원한 승리가 약속된 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으로
무진막강한 백두산대국의 내 나라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세월과 세월을 이어 백승의 위용 펼치려니

천세만세 길이 빛나라
아, 1960년 8월 25일이여!

함선의 갑판우에

여기
푸른 바다 파도 출렁이는
함선의 갑판우엔
촬영대가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다정히 해병들을 불러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셨을 때
미리 준비한 촬영대가 없었다

누구는 기재를 딛고서서
누구는 포탑에 기대어

무릎을 꿇고앉아
무릅없이 허물도 없이
그이의 두리를 에워싼 해병들

그 모습 정에 겨워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시는 그이
바람세찬 철령에 오르시어
병사와 나란히 사진을 찍으시던
못 잊을 그날의 장군님이신듯

함선에 출렁이는 파도도
그리움의 억만구슬을 휘뿌리고
저 멀리 섬초소의 도래곶이 갈매기도
기쁨의 흰 나래 훨훨 날아오나니

찾하지 말자 해병들
댕기달린 해병모 산뜻한 옷도 있건만
땀이 뻘 훈련복 그대로
짙물에 젖은 구명조끼 그대로

영광의 사진기앞에 섰다고

령장의 품에 안기어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한껏 감격에 넘친 그 모습
단란한 함선의 한식술이 아니냐

최고사령관 그이의 심장에 숨결을 잇고
사랑과 정이 흐르고
한마음 뜻이 통하는
아, 혼연일체의 위대한 화폭이여

그 모습은
함선의 갑판우에만 펼쳐지지 않았구나
천만군민의 운명이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결사옹위의 성새가 되어
끝간데 없는 망망대해
내 조국의 신성한 령해에 솟았구나!

내 삶의 등대

함 영 주

봉—
입항의 배고동소리 높이 울리며
건설자재를 배전에 넘치게 싣고
파도를 헤치며 항구로 돌아올 때면
가슴 뻐근하게 안겨오는
《마식령속도》창조의 뜨거운 열풍

배길을 달리면서도
마식령스키주로를 달리는듯
그러면 험한 산밭을 헤치시며
스키장건설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음성 들려오는듯

아, 동해의 장쾌한 해돋이를 바라보며
삭도타고 오르는 관광객들의 모습
스키타고 날아내릴 인민들의 모습
기쁨속에 그려보실 때
우리 배도 사랑의 바다 그 품에 안겨있었거니

얼마나 큰 영광인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밝혀주신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로
파도를 주름잡아 달려가는 나의 항로여

그 길에 아무리 풍랑이 사나와도
일당백공격정신을 신념의 돛으로 올리고
《마식령속도》로 질풍처럼달리는
우리 앞길 막지 못하리니

군인건설자들이여
바다수송은 넘려말라
50년대 포탄을 실어나르던 그 배길에
오늘은 《마식령속도》의 기상 나래치거니

아, 이 바다 한끝 그 어디에 가도
마식령스키장건설전역이여
너는 《마식령속도》의 창조의 한길로
이 마음 이끌어가는
내 삶의 항로에 빛나는 등대여라
위훈의 표대여라

백두령장의 선군보검찬가

홍 성 두

뜻깊은 선군절 이 아침
내 숭엄한 마음안고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에 들어서니
환히 웃으시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장군님
오늘도 총대를 굳게 틀어쥐고계신다

눈부시여라
총대로 개척되고 총대로 전진해온
조선혁명 총대로 기어이 완성하리라
50여년전 그날에 다지신 그 결심
뜨겁게 어러있는 총대

아버이수령님 물려주신
유산중의 제일유산
그이 한생토록 간직해오신
마음의 기둥이며 만능의 보검

얼마나 엄혹한 시련의 모진 광풍을
그이는 총대로 헤쳐오셨던가
수천수만리 뻗어간 전선길이 말해주어라
그이 맞으신 세월의 눈비가 말해주어라

력사의 첫 자욱 새기신 그날로부터
장장 수십성상
우리 장군님 새기신 거룩한 자욱자욱은
불면불휴의 초강도강행군으로
빨찌산식야전생활로
애국헌신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고귀한 한생이 수놓아진 길

그 길은 영웅적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장군으로 키우신 길
적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과
무력침공야망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며
사회주의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신
절세위인의 총대승리의 력사!

자랑스러워라
그이 행성우에 자주의 축으로 세우신
선군총대여! 너는 진정
이 땅에 강성국가건설의 빛나는 시대를 펼친 보검
후손만대의 행복과 튕성번영의 보검
세계정치사에 높이 솟아 빛나는
백전백승의 만능의 보검!

위대한 령장의 그 총대보검이
내 나라를 5천년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위성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지구우에 우뚝 받들어올렸다
세계를 향해 더 높이 더 빨리 나래쳐오르는
최첨단돌파전의 격동을 안겨주었다

정녕 날에 날마다
이 강산에 장엄히 터져오르는
반미대결전 승리의 환호성 환호성은
선군령장께 드리는 칭송의 대합창

그렇다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최후승리를 향해 내닫는 힘찬 발걸음소리
언제를 쌓고 조국의 대지를 넓히며
세기적기적과 변혁을 창조하는
천만군민의 만세합성, 행복의 노래소리는
위대한 백두령장의 선군보검찬가!

오, 노래하노라
불세출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
그이의 거룩한 선군혁명령도사는
위대한 진리의 퇴성을 더 높이 올리고있다
총대는 생명! 선군은 승리!
또 한분의 선군령장 **김정은**원수님 높이 모시여
주체의 사회주의 내 나라 선군조선은
만대에 길이 강성번영하리라!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망국 40년만에 조국을 찾고 리항 20년만에 고향을 찾았다면 우리는 그 조국과 고향을 위해 너무도 많은 세월을 바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망국은 순간이요 복국은 천년이라는것이 항일혁명 20년의 로정을 걸으면서 내가 얻은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였습니다. 잃기는 험해도 찾기는 힘든것이 바로 조국이라는 뜻입니다. 순간에 잃은 조국을 찾느라고 수십년, 지어는 수백년의 고생을 해야 하는것이 이 세상의 준엄한 리치입니다.》

해방에 대한 추억

리영철

교삭은 초가
기울어진 삼작문가에
맥없이 쭈그리고앉아
그날도 나는
머슴살다 돌아간 아버지를 대신해
들일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고있었다

오곡이 무르익는 8월이건만
나의 손에 들려진 장난감 조가비엔
속이 빈 창자의 쪼르륵소리를 달래며
소년의 가냘픈 꿈이 지어놓는
흙모래밥만이 담겨지고 또 담겨지고...

정오의 이맘때이면
첫째야 배고프지 얼른 죽을 썰주마!
치마끈 허리에 바싹 동인 어머니
고혈을 빨리우는 지주놈의 발에서
피방울같은 수수 한줌 따들고
총총히 집으로 들어섰으련만...

내 목뼈들고 바라보는 동구길엔
풀썩풀썩 마른 먼지를 날리는
동리의 인파가 소리치며 내닫고있었다
해방이란 낱말을 외우며
어디론가 나도 달음쳐가던
그날은 1945년 8월 15일이였다

《**김일성**장군 만세!》
하늘땅도 목이 쉬던 환호성의 그 메아리
한낮의 태양은 한껏 불타고
대지의 이삭은 물결쳐 물결쳐 설레였다
첫째야! 첫째야! 사래긴 밭머리에서
날 불안고 울고웃던 어머니의 목소리도

봄종다리노래처럼 창공에 울리던 그날

다 알지 못했다 어린 내 맘엔
해방이 무엇이였는지
한패기 땅이 없어 마소처럼 폴리우던 사람들이
땡-땡 제 이름 크게 적힌 표말을
천석벌 황지주땅에 때려박는 날이 울줄은
새로 지은 기와집처마까지 쌀섬을 쌓아놓고
흰쌀밥에 부루짗을 터지게 말며
땅의 주인된 고마움에 목메이게 될줄은

해방은 그때 나에게 있어
이랑이랑 씨뿌리는 어머니를 쫓으며
가슴가득 안아보던 수령님 주신 땅
해마다 온 마을에 높아지던 웃음소리
처음으로 나를 배불리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켜준
나에게 제일 귀중한 세상이였다

내 심장에 뿌리내린 그 진리는
운명의 기둥으로 한생토록 흔들리지 않았다
밀보리 불타던 전화의 날에도
풀뿌리를 삼키던 고난의 날에도
땅의 아들답게 나를 세워준것은
죽어도 못 잊을 그 추억이였다

아, 해방에 대한 추억은
오늘도 내 마음속에
교삭은 초가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흙모래밥 짓군 하던 그 소년에게
복받은 새삶을 준 은혜로운 품의 노래
나의 자손들도 대를 이어 영원히 안고살
내 조국의 첫 노래이다



박 윤

1

함대사령부 주성규장령은 군항에 정박해있는 함선의 갑판에 나서자 어쩐지 흐렸던 마음이 확 트이는것을 느꼈다.

주성규는 배란간을 짚고 불빛이 깜박거리는 거창한 밤바다를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잔잔한 물결 위에는 정박장에 계류하고있는 함선들과 먼 하늘의 별무리가 비쳐 아름다운 은백색불무늬를 이루고있었다.

바다바람이 불어오자 비릿하고 째절한 해감내가 정답게 풍겨왔다. 저 멀리 검푸른 물결과 어두운 하늘이 잇닿은 아득한 공간에는 불그레한 화광이 신비스럽게 불타오르고있었다. 아마도 만선한 먼바다선단이 귀항하는 모양이다.

(결국) 하고 주성규는 생각하였다. (이번 해상종함훈련 예비관점에서 리운림편대장이 범한 실책은 우리 일군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함선의 모든 성원들은 항해때 자기가 수행해야 할 전투임무를 잘 알고있었고 무기, 전투기술기재도 정상이었다. 문제는 편대장인 리운림의 무분별한 자유주의에 있지 않았는가. ...)

주성규는 리운림소좌의 판골이 두드러지고 만만치 않은 상고머리에 약간 세모진 눈이 떠오르자 다시 기분이 언짢아졌다.

주성규는 군복아래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들었다. 성냥불이 일지 않았다. 저녁녁에 입항하는 함선의 계류바줄을 잡고 멈춤망우리짓기를 할 때 파도에 아랫도리를 적신 일이 생각났다.

주성규가 물었던 담배가치를 손에 옮겨주는 순간 선수갑판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사령관동지, 여기... 라이터가 있습니다.》

몹시 주저하는듯 한 목소리였다. 주성규는 바다를 등지고 돌아섰다.

라이터불빛이 병긋하자 키가 후리후리하고 얼굴이 약간 네모진 젊은 소좌의 구부정한 모습이 드러났다.

평소에는 해병의 성격답게 늘 팔팔하고 걸쭉던 리운림의 모습에서 주눅이 든 기색을 엿보자 주성규는 이마살을 찌프렸다.

(이 친구가 그만한 비판에 기가 죽다니... 사람두...)

주성규는 란간에 몸을 기대며 담배연기를 깊이 들이켰다. 어쩐지 오늘따라 담배맛이 쓰겁다.

임안이 텅텅하고 허골이 타든다. 주성규는 죽지 부러진 새처럼 기가 죽은 리운림을 마주하니 지난간 생활의 크지 않은 인상적인 세부들이 한순간에 돌이켜지면서 일종의 종잡을수 없는 미묘한 감정세계에 자기가 빠져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문득 리운림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그 폭우사나운 여름날이 생각났다.

그날 수영훈련에 들어간 전대는 폭우속에서 바다를 헤여건너 소평도에 상륙하였다. 해병들은 훈련계획에 따라 섬에 들어가 숙영할 준비를 서둘렀다. 패속정을 타고 해병들을 다그어몰아댄 주성규는 비물과 바다물에 후줄근히 젖은 군복을 대충 손으로 쥐어쥔 후 숙영지를 돌아보았다. 그는 가설건물로 지은 지휘부안에 들어섰다. 그가 지도를 펼치자 서까래가 보이는 천정에서 비물이 후둑후둑 떨어지며 물방울을 뿜기였다.

(헛참, 일하는 본새들을 보면...)

주성규는 속으로 역증을 내며 비웃을 걸치고 밖

으로 나왔다. 찬비가 단불을 때렸다. 주성규는 패기있게 몸을 날려 지붕으로 올라갔다. 이때 지휘부 쪽으로 풀단을 둘러멘 키가 후리후리한 해병이 침착하게 걸어왔다. 주성규는 서까래에 의지하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여 중사동무, 그 풀단을 이리 던지라구!》

《왜 그러니까? 전대장동지!》

젊은 해병은 우뚝 멈춰서서 주성규를 빠르게 올려다보았다.

《음, 비가 새서 그러우.》

축축한 풀단이 휘 날아올랐다. 주성규는 풀단을 옆구리에 끼고 지붕우를 오갔으나 어디가 새는지도 모지 알수 없었다. 주성규는 밑에 서있는 해병을 내려다보았다.

《중사동무,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가 새는지 좀 알려주우!》

《알았습니다.》

해병은 지휘부안으로 들어가서 《여깁니다, 이쪽입니다.》하고 련속 소리쳤다.

주성규는 소리나는대로 풀송구리를 덮었으나 도무지 막연하기만 했다. 역사질을 했으나 비물은 여전히 새고있었다.

(에이, 이거야 어디가 새는지 정확히 알수 있나?...)

밑에서 젊은 해병이 풀단들을 끼고 올라왔다.

《전대장동지, 어서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뭐라구?》

《어서 밑으로 내려가란 말입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구선 어디가 새는지 가늠할수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젊은 해병은 얼굴의 비물을 손으로 훔치며 침착하게 말했다. 과연 밑에 내려와 천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자기의 실책이 느껴졌다. 이윽고 지붕을 말끔히 수리한 후 주성규는 젊은 해병이 지휘부안에 피워놓은 모닥불앞에 앉아 군복을 말리며 얼핏 생각에 잠겼다.

(허, 우에서 보지 말고 밑으로 내려와보라. 그게 단순하고 평범한 말같지만 얼마나 큰 진실이 담겨있는가?...)

주성규는 해병의 말을 제나름으로 분석해보며 수염이 꺼칠꺼칠한 턱을 쓰다듬었다. 그러고보면 자기가 전대사업을 맡은 후 저 혼자 만사를 다 해결할듯이 독판을 치고 돌아갔고 아래실정에 눈이 어두웠다는것이 느껴졌고 후회되었다. 평범한 해병의 세사로운 말에서 뜻밖의 충격을 받은 주성규는 새삼스럽게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돌아보게

되었다. 그 해병이 리운림이었다. 침착하고 완강하고 실수를 몰랐던 젊은 지휘관, 하건만 생활은 그를 늘 영웅으로만 만들지 않았다.

《편대장동무, 함대사령부 책임일군들의 비판에 대해서 동문 길이 생각해봐야겠소. 난 물론 우리 함대가 동무네 편대의 실수때문에 이번 예비판정에서 말을 좀 들었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게 아니요. 함대와 전대의 앞장에서 나가던 동무가 이제 무슨 꼴이요?》

주성규는 보통해병시절의 그를 생각해보며 자기의 말에 그루를 박았다.

《동무는 함대의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허물어버렸소.》

주성규는 이 순간 속마음과는 달리 자기 목소리가 날카로와졌다는것을 느꼈다.

주성규는 진중하고 강의한 군인다운 성품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언제나 믿음과 사심없는 친근감을 주는 지휘관이였다. 했기에 군지휘성원들은 오랜 군사일군인 그의 말을 심중히 대하고있었다.

이번 리운림의 실책을 두고도 함대지휘부에서는 의견들이 구구하였지만 결국 주성규의 주장을 따르게 되었다. 일부 참모일군들은 그의 배짱을 지내 길러주다나니 끝내 일을 쳤다는것, 사업의욕은 좋으나 지휘에서 무분별하고 즉흥적이라는것을 비판하였다. 흥분도가 강한 일부 사람들은 다가올 해상협동훈련을 앞두고 리운림을 현직무에서 해임시키자는 처벌문제까지 은근히 들고나왔었다.

그들의 의견은 이번 예비판정에서 리운림이 범한 실수를 놓고볼 때 결코 무시할수 없는것이였다.

함대가 해상훈련예비판정에 들어간지 이틀후, 즉 판정의 마감날에 리운림이 속한 전대는 소평도부근에 있는 정체불명의 《적》수송분함대를 소멸할데 대한 긴급전투임무를 받고 출항하였다.

출항전 김열은 주성규가 해군사령부 강평원들과 함께 면밀하게 진행하였다. 주성규는 리운림편대장이 조성된 정황, 받은 전투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도, 항해구역의 수로, 해상 및 기상자료를 료해하고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실탄사격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도와주었다.

몇해전에 해군대학을 졸업한 젊은 리운림편대장은 주성규와 함께 최근자료에 근거하여 고쳐진 해도와 항해에 필요한 표들과 양식들, 수로도지를 비롯한 항해참고서들을 준비한 후 순식간에 예비해도작업을 끝내고 침표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전륜라침기를 비롯한 항해기재들의 정상성을 확인하였다.

이날따라 바다날씨는 몹시 사나웠다. 안개는 없었으나 물결이 거치른 바닷가에는 여름철고기잡이에 나선 선단들이 한벌 쭉 깔려있었다. 하지만 리운림은 배들사이로 기동을 능숙하게 하면서 지적된 시간보다 5분 앞당겨 유리한 전술적전개진지를 차지할수 있었다.

함대지휘소에서 강평원들과 함께 정황도를 들여다보며 손에 땀을 쥐고있던 주성규는 함선들이 전술적전개진지를 차지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함선들이 지적된 시간내에 해상목표물을 소멸하면 함대의 예비판정은 성과적으로 결속될것이었다. 훈련결과에는 곧 상급참모부를 거쳐 인민무력부에 보고될것이었다.

그런데 일은 마지막결속단계에 와서 뜻밖에 벌어졌다. 전대의 모든 함선들이 해상목표들을 성과적으로 소멸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후 모두가 특히 주성규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막 탄산수를 마시는 순간이었다.

리운림소좌의 함선이 5개의 해상목표들중 지정된 시간내에 2개를 소멸하지 못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함대지휘부는 발각 뒤집혔다. 결국 근 30분이나 늦어 주성규가 함대사령부 예비대의 특수함정을 출항시켜 겨우 임무를 마무리할수 있었다. 작전결속의 30분 지연, 그것은 심각성을 내포하고있었다.

입항후 강평원의 설명을 듣고서야 주성규는 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알수 있었다.

원래 해상훈련에서 편대장의 전투지휘능력은 편대를 능숙하게 이끌면서 사격위치가 정확하고 지적된 시간안에 실수없이 목표물을 소멸하고 인차 리탈하는데서 평가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자면 해상목표물의 기동요소, 즉 적함의 침로와 속도를 옳게 판정하고 아군함선은 정상속도를 유지하면서 사격하여야 한다. 하지만 리운림은 전술적전개진지를 차지하자 갑자기 함선속도를 높여 불의에 좌로 30도 변침하면서 포병장에게 목표물을 소멸할것을 명령하였다. 함선에서 다년간 근무해온 경험이 풍부한 포병장이었지만 함선속도가 불의에 빨라지므로 제시간에 사격제원을 구할수 없었고 더우기 가적의 위치가 달라지는 바람에 목표를 명중하지 못하였다.

주성규의 눈치를 보며 부교에 나가있던 성격이 급한 전대장은 성이 독같이 나 리운림의 함선이 입항하자 사령탑에 뛰어올라갔다. 그는 착잡한 기색으로 항해후 검열을 하고있는 리운림을 무섭게 닦

아세웠다.

《편대장동무, 동문 대체 무슨 사람이요? 무엇때문에 함선속도를 불의에 높였는가? 대체 대학에 가서 배워온게 그런 자유주의인가? 왜, 우리 전대 얼굴에 먹칠을 하자는거요, 뭐요?》

《...》

《말해보오! 내 이젠 동무의 그 고집불통에 두손바짝 들었소!》

전대장은 입술을 푸들푸들 떨었다.

《전대장동지, 전...〈적〉수송단이 우리를 발견하고 대응사격을 하면서... 그래서 가변침로를 따라 높은 속도로 기동한다는 정황을 가정했습니다...》

뜻밖의 강타를 당한 리운림은 입술을 악물며 띠엄띠엄 설명했다.

전대장의 뒤를 따라 말없이 사령탑에 올라선 주성규와 눈길이 마주치자 리운림은 항해일지를 해도탁우에 올려놓고 차렷자세를 취했다.

(뭐? 《적》수송선단에 발견되었다? 말은 잘하는군!...)

주성규는 얼굴을 찌프리고 전대장을 밀어제끼며 리운림앞으로 다가갔다.

《가정이라?... 그래 가정은 무슨 놈의 가정인가? 전투명령앞엔 가정이나 흥정이 있을수 없소. 오직 책임적으로 집행해야 하오. 이게 바로 군인이요!》

주성규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 순간 리운림에게 해병다운 군인정신이 부족하다는것을 강하게 느꼈다.

《사령관동지, 우리 해병들을 진짜싸움군으로 키워야 하지 않습니까?》

리운림은 꾀꾀이 서서 조금도 굴함이 없는 낮빛으로 주성규를 마주보았다.

주성규의 두눈썹이 가운데로 모아졌다.

《그래서?》

《포수들은 훈련때마다 사격제원이 비슷했기때문에 만성화됐습니다. 그래 우리가 실지 해전에서... 만약 적과 직접 조우했다면 이런 행운에 맞다들수 없지 않습니까?》

한순간 주성규는 리운림이 필요한 문제의 한 측면을 다뤘다는것을 느꼈으나 또한 그것이 훈련전반을 놓고볼 때 그리고 명령지휘체계선상에서 볼 때 일면적이고 주관적이라는것을 생각하였다.

《그래서 동무는 고의적으로 훈련계획을 파탄시켰다는건가?》

주성규의 목소리는 다소 거칠어졌다.

《그게 아니라 저는 해병들을 실전에서 예상되는 불의의 정황에 대처할수 있도록 준비시키려 했을뿐입니다.》

두사람의 눈길이 한점에서 부딪쳤다.

주성규는 이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성격이 어느 정도 사그라지는것을 느꼈다.

생각해보면 리운림의 의도는 주성규에게도 이해가 되는것이었고 젊은 지휘관으로서의 결기와 열정이 능히 날을수 있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도 타협할수 없고 용서할수 없는 진실이 배제되어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명령에 따라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장에 나서야 할 군인이었기때문이었다.

《좋소. 동무의 의견은 훈련준비때 들어볼수도 있었소. 하지만 동무는 그런 의견을 왜 훈련집행전에 제기 안했소?》

《?!...》

리운림은 별안간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러자 주성규는 성격이 다시 더 크게 살아남을 느꼈다.

《왜 그 의도가 강령원들에게도 이해가 될수 있게 목표물을 명중 못했는가?》

《사령관동지, 우린 사실...》

리운림은 머뭇거리며 갑자기 애원에 찬 눈길로 주성규를 올려다보았다. 주성규는 그 눈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됐소! 후회는 늘 때늦은 법이요. 전대장동무, 단단히 총화해야겠소!》

《알았습니다.》

전대장은 대답하였으나 어쩐지 무엇인가 맞갖지 않아하는 기색이었다.

조금도 속이 후련해지지 않은 주성규는 두 군관을 타매의 눈길로 쏘아본 후 획 돌아서서 갑판으로 훌쩍 뛰어내렸다.

흔들거리는 부교를 밟는 그의 마음은 무엇인가 배반당한 느낌이었다. 몇해전까지만도 리운림이 속한 함선의 전대를 지휘했던 주성규였다. 누구보다도 리운림을 잘 알고있었고 또 것처럼 믿고 사랑하던 그였기에 분노는 더 크고 진실한것이었다.

그날 저녁 함대사령부에서는 전대와 함대 책임일 군들의 해상훈련예비관정총화가 있었다. ... 회의의 료조는 것처럼 날카로왔던것이다. ...

지금 주성규는 어느때없이 풀이 죽은 리운림을 바라보며 더욱 생각이 깊어졌다.

(내가 그때 이 동무에게 너무 모진 말을 했는가? 아니, 아니다! 비판은 결코 지나친것이 아니었고

응당한것이였다. 언제나 리론과 실천간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는것이다!)

주성규는 배란간에서 몸을 일으키며 피우던 담배를 바다물에 던져버렸다.

《운림이, 이젠 들어가 쉬우. 인차 무력부적인 해상합동훈련이 예견되니 편대장인 동무가 준비를 잘해야겠소!》

《사령관동지, 이번엔 실점하지 않겠습니다.》

리운림은 중기에 눈매가 온화한 주성규의 강철빛 얼굴을 마주보았다.

《운림동무, 군대의 위력은 강한 규률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오. 다시는 무분별한 자의적행동이 있어서는 안되겠소.》

《우리 함선 해병들은 그사이 훈련을 알심있게 했습니다.》

리운림은 확신있게, 고집스럽게 대답했다.

주성규는 오래전부터 잘 알고있다고 생각했던 이 젊은 군관에게 류다른, 전혀 예상치 않았던 자기식의 신념이 있다는것을 이 순간 은근한 불안속에서 느끼게 되는것이 이상했다.

《좋소, 두고보지요. 병아리는 가을에 가서 세여보라고 했으니까!》

주성규는 리운림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고나서 천천히 부두로 나왔다. 그의 일이 마음에 걸려 자정이 넘은 후 함선에 나왔던것이 이럭저럭 퍼그나 시간이 흐른셈이다.

2

벌써 먼동이 떠오르고있었다.

바다와 잇닿은 강철빛하늘, 그 하늘이 점차 희끄무레하게 밝아왔다.

주성규가 군항의 방파제를 벗어나자 먼바다로부터 새벽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주성규는 멈춰서서 바다바람에 온몸을 맡긴채 길게 심호흡을 하였다.

문득 등뒤에서 고르로운 승용차발동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주성규는 주춤 놀라며 급히 돌아섰다.

새벽빛에 퇴색해진 전조등빛을 희미하게 얼비추며 여러대의 승용차들이 좁은 포장도로를 따라 꼬리를 물고있었다.

그런데 그냥 스칠듯이 지나가던 승용차가 그의 옆에 와서 멈춰섰다.

《사령관동무가 아니요?》

귀에 익은 청청하고 다정한 음성이였다.

순간 주성규는 못박힌듯 그 자리에 굳어지고말았

다. 차문을 여시고 환하게 웃으시는분은 뜻밖에도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였다.

주성규는 옷매무시를 바로하고 그이께 다가가 정중히 인사를 올렸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주성규의 손을 따뜻이 잡으시였다.

《동무를 이렇게 군항길에서 만나니 더 반갑구만.》

김정일동지께서는 수수한 잠바주머니에 한손을 찌르시고 친근한 눈길로 주성규를 바라보시였다.

주성규는 이 순간 이태전에 자기를 함대책임일군으로 파견하실 때 집무실밖 전나무숲속을 오래도록 거니시며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던 그이의 모습이 우렷이 떠올라 눈곱이 뜨거워났다.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던 그날의 전나무숲.

숫눈길을 거니시는 그이의 발밑에서는 그때 연이 빠득빠득 상쾌한 소리를 냈었다.

그이께서는 장령복을 입은 주성규를 대견하신틀 자주 돌아보며 해군무력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명철하고도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었다.

주성규는 그이의 믿음과 기대에 자기가 보답 못하고있는것이 마음에 걸려 머리를 들수 없었다.

《그사이 사업을 바로 못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내 해당 부서를 통해 이번 동무네 함대가 수행한 해상훈련 예비관정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태도 알아보는점 동무들이 보고싶어 내려왔습니다. 함께 좀 걸읍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군항의 방과제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주성규는 자기들이 일을 쓰게 못하여 그이께서 이렇게 또 먼길까지 오시게 하였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일종의 죄의식에 가슴이 옥죄여들었다.

《사령관동무.》

문득 그이께서 뒤를 돌아보시였다.

《이렇게 아침바다를 바라보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이래서 해병들이 바다를 더 사랑하는가 봅니다.》

주성규는 그이의 밝은 기분에 저도 모르게 말려들을 의식하였다.

《이제 곧 해돋이가 시작됩니다.》

주성규는 엷은 장미빛노을의 후광을 배경으로 거연히 서계시는 **김정일**동지를 우러르며 경건한 자세를 지었다.

그이께서는 활달하신 손세를 쓰시며 주위를 둘러

러보시였다.

《군항의 경치가 좋습니다. 정박장에 계류하고있는 함선들이 더 위용있어보입니다. 함선들이 출항준비를 하고있구만.》

《그렇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동안 군항의 아침풍경을 부감하시다가 조용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이번에 실수를 한 함선의 지휘관동무가 누구니까?》

《리운림소좌입니다. 우리 함대에서 근무하다가 몇해전에 해군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리운림이라구?...》

그이께서는 눈가에 반가운 빛을 담으시였다.

《아니, 그럼 해상특수훈련을 잘해서 수령님으로부터 바다의 수리개라는 치하를 받은 동무가 아니요?》

《바로 그 동무입니다.》

주성규는 죄스러운 눈길로 그이를 우러러보았다.

《음, 그 동무였구만. 그때 강직한 성격이었지만 아직 애송이해병이었는데 벌써 편대장으로 성장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 동무에 대해 깊은 인상을 가지고있습니다.》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한동안 회억에 잠기셨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인민무력부에서 보고한데 의하면 래일부터 협동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동무네 함대의 해상협동훈련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

주성규는 가슴을 조이며 기다리던 일이였지만 너무도 불의에 닥친 소식이어서 한순간 당황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왜, 겁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사령관동무는 유명한 싸움군이니까 다른 병종들에서 뒤받침해주면 성과를 거둘것입니다.》

《함대의 전투준비도 그렇고 해병들의 사기가 높습니다.》

주성규는 함대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렸다.

《좋습니다. 이번 해상협동훈련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사령관동무, 함대지휘성원들을 만나봅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헉헉하신 어조로 말씀하신 후 함대사령부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시였다.

거기, 그이께서 걸어가시는 군항의 정박장너머 금빛구슬이 천만으로 부서지는 아침바다에서는 태양이 바야흐로 솟아오르고있었다.

군항앞바다에는 안개가 자욱히 끼었다. 하늘과 바다가 온통 안개의 소용돌이에 휩싸여버렸다.

해군기지의 정박장에 현측계류하였던 함선들은 일제히 출항의 닻을 올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함선의 사령탑에 서시여 침로를 따라 전진하는 함선들을 주의깊게 살펴보시었다.

모든 함선들이 출항명령을 받은 다음부터 한초도 어김없이 은밀히 기동을 시작했것이 우선 만족스러우시었다. 이것은 평소애 함대가 훈련을 착실히 했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일반적으로 출항할 때 함선지휘관은 바다와 하늘, 정박장구역에 대한 빈틈없는 감시를 조직하며 함선주변의 모든 상태에 대하여 직접 감시하여야 한다. 특히 오늘과 같이 안개가 낀 나쁜 날씨에는 함선의 자체방어와 항해의 안전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하는것이다. 출항할 때 전파탐지기를 비롯한 기술감시수단은 정황이 허락하는 조건에서 짧은 시간동안에만 리용해야 한다.

그이께서 타신 기함은 선침으로 정박장을 빠져나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결에서 능숙하게 함선을 지휘하는 리운림을 눈여겨보시며 나직이 물으시었다.

《편대장동무, 속도를 더 높일수 있겠소?》

《지금 안전항해를 하고있습니다. 속도를 더 높이면... 위험합니다.》

리운림의 관꼴이 두드러진 강철빛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력연히 떠올랐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리운림의 그 류다른 얼굴빛이 마음에 걸리시었다.

문득 함선에 오를 때 주성규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전번 예비훈련때 실수한 후 리운림이 의기소침해졌다는것이였다.

(해병이 소심해져서는 안되지. 해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함장, 정장들의 싸움이다. 우리 해군지휘성원들은 거창한 바다의 성격을 지닌 성실하고 결단성있는 일당백싸움군들이 되여야 한다... 침착하고 강인한 성격이였던 리운림동무가 왜 전번 예비판정에서 실점하게 됐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주성규로부터 리운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생각이 깊어지셨던 그이이시였다. 좋은 기억속의 리운림을 알고계셨기에 더더욱 이 함선에 오르

고싶으셨고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싶은 강한 충동이 이시였던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리운림의 어깨를 짚으시고 격려의 미소를 지으시었다.

《일없소. 내 걱정은 마시오. 동무는 지금 전투 임무수행중이요.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지휘하시요. 전쟁에서는 시간, 시간이 모든것을 결정합니다. 작전해역이 우리를 기다리고있소. 나는 동무의 항해술을 믿습니다!》

《알았습니다.》

리운림은 한순간 눈을 빛내더니 기운차게 대답했다. 결코 오물썸물하는 성격이 아니였다. 그는 지휘모를 눌러쓰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요구대로 소리신호를 내며 함선속도를 점차 높였다.

그러자 한옆에 수원들과 함께 조심스레 서있던 주성규가 초조한 얼굴로 급히 다가왔다.

주성규는 정중한 자세로 그이앞에 나서더니 절절하게 말씀올렸다.

《침로선상에 선단들과 각종 부유물들이 떠있습니다. 속도를 늦추도록 지시해주십시오.》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성규를 지켜보시며 청청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시었다.

《일없소. 사령관동무는 내가 이 배에 오를 때부터 걱정이 많더니... 마음놓으시오. 나는 우리 해병들을 믿습니다. 해병들은 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만한 안개에 주저한다면 진짜싸움군을 키워낼수 없소.》

그이께서는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신 후 다시 주성규를 돌아보시었다.

《사령관동무, 지금 다른 함선들의 위치는 어떻게 소?》

주성규는 몸가짐을 바로했다. 눈썹이 질고 동그스름한 그의 얼굴은 오늘따라 별로 쭈어보인다.

그는 약간 갈린 음성으로 침착하게 보고드렸다.

《지금 모든 함선들은 자기 침로로부터 내부항로에서는 0.1해리, 외부항로에서는 0.5해리 떨어져 항해하고있습니다. 모든 함선들이 자기 위치를 정확히 차지하기 위해 힘쓰고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수원들을 돌아보시었다.

《우리 해병들이 팬찮습니다. 항해술이 높습니다. 평소에 훈련을 잘했다는것이 알립니다. 해전에서 기동을 신속정확히 보장하는 지휘능력을 높이는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군지휘관들은 어떤 불의적인 정황이 제기되여도 침착하게 함선들의 집중과 분산, 분산과 기동을 잘 배합하여 함대의 작전

을 신속히 지휘해야 합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해도를 보시며 여러 함선들에 몸소 각이한 정황을 제시하여주시었다.

침로선상에 압초와 부유기뢰, 어뢰함정이 나타난 경우, 비행대의 습격이 있는 경우… 그때마다 리운림은 그이의 명령에 따라 대답하고 기발하게 변침하면서 능숙하게 임무를 수행하곤 하였다. 전술적 두뇌가 있고 지휘관다운 결단성과 용의주도성이 느껴지는 일군이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시금 그의 실점을 두고 의혹이 생기는것을 어쩔수 없으시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포수들에게 있는가? 아니면 훈련계획자체에 있는가?)

북서풍이 불어왔다. 그러자 안개가 서서히 동남쪽으로 밀려가면서 하늘과 바다가 점차 푸른빛을 띠기 시작했다.

먼바다로부터 은백색파도가 섬없이 밀려와 배전을 칠 때마다 뽀얀 물바래가 뿜어올라 갑판위에 부서졌다. 갈매기들이 나래를 퍼덕이며 기함의 선미쪽을 따라섰다. 훈련복을 가끈히 입은 젊은 해병이 선미갑판에서 갈매기떼에 손을 휘젓고있었다.

해병이 손을 흔들 때마다 머리우 마스트의 해군기가 해풍에 정답게 나뭇긴다. 그 모습이 한쪽의 그림처럼 그이의 심중에 새겨지시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눈길을 돌리시고 쌍안경으로 탁 트인 전방을 살피고있는 리운림에게 말씀하시었다.

《편대장동무, 이제 마흔으로 달리시오!》

그이께서 함선생활에서 흔히 쓰는 통용어로 말씀하시는 바람에 리운림은 곁에 있는 주성규에게 경의에 찬 눈길을 보내더니 힘차게 대답올렸다.

《알았습니다.》

리운림은 기관장에게 제격 임무를 주었다.

함선들은 편대를 지어 일망무제한 바다를 헤가르며 쾌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협동훈련을 진행할 해역까지는 이제 절반길을 온셈이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리운림이 함선지휘를 부함장에게 인계하도록 하신 후 주성규와 함께 선미갑판으로 내려오시었다. 안개가 가셔버리자 파도가 세지었다. 흰 물바래가 거대한 물마루를 따라 부글부글 끓어올라서는 용을 쓰며 부서져내렸다. 심해에서 메아리쳐오는 웅장한 해조음과 함선의 발동소리가 조화롭게 어울려 바다위에 울려 퍼진다.

함선은 편대의 선두에 서서 산같은 파도를 넘어 살같이 달리고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갑판위에 서시여 광란하는 바다, 거창한 대자연의 전경을 부감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한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명상에 잠기시었다. 햇빛을 불빛으로 이으시며 집무실의 책상을 마주하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에 결론을 주시느라 한순간도 정신적긴장을 늦추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다 한복판에 나서니 마음이 이상하게 안정되시고 드넓어지는것 같으셨다.

그이께서는 자연의 웅장한 숨결이 느껴지는 이 바다가 늘 마음에 드시었다.

눈보라가 울부짖는 백두산밀영고향집의 창가에서 밀림의 바다를 바라보시며 마음을 얹으셨던 조국의 바다, 사랑하는 어머님과 함께 아득한 기슭의 고요한 등대를 가슴에 안으시며 귀중한 추억을 물어두셨던 정든 이 바다… 열렬한 그 마음과 숭고한 그 추억을 간직한채 설레이는 조국의 바다를 그이께서는 사랑하시었다.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 된 인간이 무변광대한 우주를 정복하는 길에 들어선 오늘 끊임없는 창조와 심원한 사색속에 계시는 그이께서는 고요한 정원길을 걸으시기보다 함선을 타시고 이런 거친 항해길을 달리는것이 마음에 드시었다.

그래서 투박하고 소탈한 바다의 성격을 지닌 해병들과 함께 계시기가 즐거우신지도 몰랐다.

그이께서는 오늘 특히 솔직하고 강직하고 고지식한 리운림에게 마음이 끌리는것을 느끼시었다.

그이께서는 명상에서 깨어나시여 선미갑판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다가 문득 멈춰서시었다.

선실에서 나온 신입병사인듯 한 광불이 불그레한 애어린 해병이 꽤 무거워보이는 물통을 어깨높이로 들고 파도가 굼실거리는 현측쪽으로 돌아섰다.

사령탑에서 금방 내려서던 리운림이 애젊은 해병의 등위로 다가갔다.

《철남이, 뭘하려고?》

《오물을 버리려고 그러니다.》

안간힘을 쓰던 해병은 물통을 내려놓고 몸자세를 바로했다.

《바다에 오물을 버려선 안돼.》

《그럼?》

애젊은 해병은 의아한듯 리운림을 올려다보았다.

리운림은 흰 이를 드러내보이며 빙그레 웃었다.

《허허, 저 식당에 있는 빈통에 버리라우. 철남

이두 집에서 아무데나 오물을 버리진 않겠지!》

《알았습니다, 소좌동지!》

젊은 해병은 눈길이 밝아져서 지휘관의 적동빛얼굴을 올려다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순간 가슴이 뭉클하시였다.

어딘가 모르게 리운림이라는 군관의 인간미가 절절히 느껴지시면서 생각이 깊어지시였다.

바다에 더없는 애착을 품고있는 편대장의 진실한 마음에 이끌리는것을 어쩔수 없으시였다.

저것이 우리 해병들의 정신이고 소박하고 억센 조국애의 기초가 아니겠는가.

그 사랑이 흘러서는 동지애가 되고 불타서는 위훈이 되고 모여서는 충실성이 될것이 아닌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문득 전번 예비관장의 실수에 무엇인가 범상치 않은 문제점이 숨어있다는것이 대뜸 포착되시였다.

왜냐하면 그이께서는 늘 인간을 먼저 보시고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진실과 진리를 찾으셨기때문이었다.

주성규와 리운림이 그이께서 서계시는 선미갑판으로 다가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배란간에 손을 짚으시고 정중한 자세로 다가오는 키가 웅장한 리운림에게 눈길을 주시였다.

《운림동무, 해병들이 군항을 출항할 때는 대체로 무슨 생각들을 합니까?》

그이의 갑작스러운 물으심에 리운림은 당황하여 눈길을 떨구었다.

그이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였다.

《내가 묻는건 룽지에 있다가 바다로 나올 때의 느낌 말입니다.》

그제야 리운림의 별에 탄 얼굴에 해병특유의 그 성실한 표정이 되살아났다.

리운림은 손진사를 하기 힘든듯 몹시 부자연스러운 차렷자세를 취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해병들의 말을 들으면 멀리 외지에 가는 기분이랍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복무년한이 길어지고 바다에 정드니 물이나 물이나 같습니다. 전엔 멀리 해상경제근무를 나올 때면 외롭고 고독한 기분이 나서 잠이 잘 안 왔는데 이제 꿈만 합니다. 우리의 령해, 조국땅이 아닙니까.》

리운림은 류다른 궁지에 넘쳐 허심하게 속을 터놓았다. 배가 갑자기 파도마루를 넘는 바람에 그는 몸중심을 잃고 한순간 비칠거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팔을 잡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친근하신 눈길로 리운림을 마주보시다가 주성규쪽으로 몸을 돌리시였다.

《오늘 진짜배기해병의 마음을 읽었소. 바로 그 감정이 해병의 애국주의이고 일당백담력과 용감성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령해를 조국땅의 한 부분으로 뜨겁게 감수하는 해병만이 진실한 조국애를 지닐수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빛나는 안광으로 젊은 편대장을 지켜보시다가 다정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운림동무, 난 오늘 동무를 깊이 알게 된것이 기쁩니다. 솔직성이 마음에 듭니다. 일반적으로 볼때 해병들은 솔직하고 또 용감합니다. 왜 그런가? 해병들은 전쟁에서 전호나 은폐호를 모르는 병사들입니다. 동지애가 아주 강한 군인들입니다. 전투행정에서 해병들의 용감성과 동지애는 더 꽃피날것이요. 그렇기때문에 동무들은 평범한 나날의 훈련도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창조적으로 해야 하는거요!》

파도소리는 이 순간 어쩐지 먼곳에서 울려오는 장중한 메아리처럼 들린다. 마스트에서 세차게 나뭇기는 해군기의 펄럭임소리가 오히려 가깝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자연의 웅심깊은 교향곡에 귀를 기울이시다가 문득 리운림을 유심히 살펴 뜯어보시였다.

《참 운림동무, 동무는 이제 군사복무년한도 오랜 지휘관이 아니요. 어떻게 되어 전번 훈련에서 그런 실점을 당했소?》

한순간 리운림의 강철빛얼굴은 별경게 달아올랐다. 그는 잠시 망설이며 지휘관들쪽을 일별하고나서 떠듬떠듬 입을 열었다.

《전번 실수는 전적으로 편대장인 저의 잘못으로 빚어진것입니다. 전 오늘 영광의 이 자리에서 솔직히 소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무척 힘들게 말꼭지를 떼는 리운림이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격려하시듯 머리를 끄떡이시였다.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였다.

《좋소, 어디 한번 솔직히 말해보시오.》

《저는 벌써 그... 사격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해상목표를 명중소멸하여 세번이나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함선에 온지 한해밖에 안되어 세번 명중하였지만 우리 포병장동무와 포수들은 여러해째 해상훈련때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속으로 같은 거리에서 같은 기동요소를 가진 가적을 소멸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흥미있소, 흥미있소! 윤림동무가 요진통을 찢었거던. 그래서?...》

김정일동지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열적어하는 리운림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실지 전쟁에서였다면 결코 적수송함대는 같은 기동요소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을것입니다. 또 함선이 화력진지를 차지할 때 적에게 드러날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상해서 실전이라면 여러가지 경우를 예견해야 한다고 생각했던것입니다.》

리운림은 다소 흥분한 어조로 말씀올렸다. 그의 상기된 기쁜 얼굴에는 진땀이 내배여 해빛에 번들거렸다.

《그래서 발사직전에 함선속도를 높여봤단 말이...》

김정일동지께서는 의미심장한 눈길로 주성규를 돌아보시었다.

《사령관동무, 이거 편대장동무가 동무들의 낯은 훈련방식에 대고 함포를 갇긴셈이요. 해병들은 동무들이 작전대앞에서 고안해낸 해상목표물을 그저 사격목표판으로만 보지 않았단 말이요.》

그이의 말씀에 주성규는 머리를 숙였다.

무엇인가 계발되는것이 있는 모양이다. 사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함대의 실태를 모르지 않으셨다. 어로선단들과 암호관계로 그리고 기타문제때문에 훈련지도일군들은 수로를 비롯한 모든 조건들이 원만한 해역에 고정적으로 해상사격장을 만들고 몇해째 써먹고있는것이다. 바로 여기로부터 훈련의 천편일률식, 형식주의가 파생되고있다는것을 누구도 느끼지 못하고있는데 실태의 엄중성이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은빛파도가 뿔어올라 배전을 처절씩 갈겼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파도에 옷자락을 적시며 천천히 란간에서 일어서시여 갑판우를 거니시었다.

그이께서는 테가 큰 보호안경을 손에 드시고 훈련구역으로 뿔을 맞추어 돌진하는 함선들의 장쾌한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시었다.

그이께서는 한순간 깊은 사색의 세계에 잠기시었다.

리운림의 말을 들으니 어쩐지 생각이 무거우시었다.

(우리 일군들은 바다의 잔물에서 단련된 편대장동무와 같은 진짜배기싸움군들의 정신세계에 따라서지 못하고있다. 해마다 고정격식화된 훈련규범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훈련계획을 사고없이 집행하면 장황한 보고서를 제출하고있다. 여기에는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일군들만이 아니라

전투훈련담당부서에도 문제가 있다. 그들도 목표물의 명중률에서 만족을 느끼고있다.

작전은 하나의 예술이며 창조이다. 훈련에서 창발성이 결여된 지휘관은 실지전투에서 승리할수 없다! 창조적사색은 작전타에서가 아니라 현실속에서 산생되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전번에 해군사령부에서 올려온 훈련총화보고를 보시면서 가지셨던 일종의 불만이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지시었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께서 깊이 관심하시는 싸움준비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열정과 창조적의욕이 이 순간 심중에 더 강하게 이시었다.

당직군관이 달려와 해상훈련구역이 가까와왔음을 알렸다.

리운림이 그이께 보고드리고 사령탑쪽으로 뛰어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참만에 중갑판쪽으로 걸어오시었다. 그이께서는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있는 주성규의 얼굴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사령관동무, 난 오늘 우리 당이 키워낸 새 세대 젊은 해병의 속마음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소. 몇해전 우리 해병들이 일단 유사시에는 어뢰정에 폭약을 장전하고 적함으로 육박하겠다는 결의를 들었을 때보다 더 큰 충동을 받았소. 우리 해병들은 불타는 충직성과 과학적인 주체전법으로 무장해가고있소. 수령님께서 가르치신것처럼 대중이 선생입니다. 군인대중의 저 마음을 읽을줄 알고 발견할 줄 알고 키울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일군들이 전사들속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성규는 자책어린 눈길을 들고 괴롭게 짧은 숨을 내쉬며 그이를 우러렸다.

젊은 편대장의 마음속 깊은 지향을 허물없이 들으시고 귀중한 짝을 찾아내시는 그이의 예지와 뜨거운 사랑을 대할 때 자기라는 인간의 일면성과 조폭성이 더 현실적으로 빠져리게 느껴지었다.

나는 그때 실책을 추궁하는 마당에서, 속을 터보이는 리운림에게서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을 력설했던가. 한 지휘관의 창조적인 지향을 하나의 리론으로, 객기로 여기면서 오직 함대의 명예 아니, 자기 자신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던가.

그때 내가 왜 분격했던가? 리운림편대장의 실점으로 하여 얻어지는 책임추궁과 훈련의 성과가 흐려졌다는 불만이 결국은 한데 합쳐져 타매의 몽둥이를 들게 한것이다.

생각해보면 자기는 군사과업집행에서 지금까지 실무적인 문제에 빠져있었지 군인대중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인적이 없지 않은가.

주성규는 머리를 들수 없었다.

《제가 우리 해병들의 뜨거운 마음을 볼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전사들속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그것은 일군들이 함정에 올라 해병들에게 담배나 권하고 바줄을 함께 켜다는것만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전사들속으로 들어간다는것은 그들의 심장속으로 들어간다는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피로움과 아픔, 그들의 꿈과 리상, 그들의 지향과 혁명성을 깊이 리해하고 공감하고 키워주는것이 우리 지휘관들의 자세입니다.》

《!...》

김정일동지께서는 벗어드셨던 안경을 도로 끼시켰다.

《사령관동무, 물론 편대장동무가 상급참모부의 승인없이 행동한것은 소홀히 할수 없는 문제였소.

하지만 동무는 그가 왜 자기의 정당한 요구를 제때에 제기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윤림동무는 이미 출항전에 그런 결심을 했을거요. 그러면 무엇때문에 그가 주저했겠는가? 무시당할가봐? 자신이 없어서? 믿음이 없었기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속을 터놓는 법입니다.》

《제가... 눈앞의 성과만 보다니니 훈련의 참뜻을 잊었겠습니다. 훈련을 위한 훈련을 하다니니 결국은 형식주의에 빠졌다는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성규는 명백한 진리를 갑자기 깨달은 사람이 흔히 그러하듯 다소 흥분한듯 한 얼굴에 진중하고 확신성있는 표정을 지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식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송두리채 드러낼줄 아는 주성규의 군인다운 인간면이 마음에 드시었다. 이런 일군들과는 일해볼만 하며 웅당하게도 그 열매가 인차 눈에 띄이는 법이다.

작전해역이 가까와오고있었다.

5

해상에서 움직이는 《적》상륙분함대를 타격소멸하면서 전투함선들은 일제히 공격으로 넘어갔다.

편대는 회피기동하는 《적》분함대를 추격하면서 드센 타격을 가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령탑에 높이 서시여 쌍안경을 드시고 전방에서 예선들이 끄는 해상목표물들을 유심히 살피시었다.

수평선아근에서 아물거리는 해상목표물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횡대를 이루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옆에 다가온 주성규에게 이르시었다.

《사령관동무, 사격장지휘관동무에게 전달하여 해상목표물들을 세개의 집단으로 분산시키시오. 그리고 대담하게 사격장수역을 벗어나 가변침로를 따라 움직이게 하시오.》

《알았습니다.》

주성규가 정중히 대답올리자 그이께서는 쌍안경을 내리시었다.

《협동훈련의 총적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주성규는 작전지도를 펼쳐들었다. 그는 작전지도를 짚으며 침착하게 보고드렸다.

《함선집단은 이 작전구역에서 상륙분함대를 소멸하면서 〈적〉의 상륙지점인 익측해안으로 전진하여 비행대와 함께 놈들의 해상륙전대를 타격하게 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작전지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었다.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곁에 다가온 리운림을 돌아보시었다.

《편대장동무, 〈적〉분함대는 동무네 편대의 타격을 받아 원래 상륙지점을 포기하고 이렇게 세개 집단으로 분산되어 예비상륙지점인 익측해안과 남서방향으로 기동하고있소. 편대장동무의 결심은 어떻소? 전대장의 립장에서 결심해보시오.》

리운림은 그이께서 작전지도우에 그으시는 푸른 화살표를 이속토록 지켜보다가 확신성있게 결심을 보고드렸다.

《함선집단을 세조로 나누어 추격기동을 진행하면서 일제히 화력타격을 들이대겠습니다.》

《일제사격을 들이댄다?...》

《편대장동무의 결심은 함대작전회의에서 합의된 전술방안입니다.》

주성규가 지휘관다운 자신심을 가지고 침착하게 말씀올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작전지도우에서 허리를 펴시었다. 그이께서는 수원들을 둘러보시며 청청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작전은 예술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럴진대 작전은 또한 사색의 귀결이며 창조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보병공격때의 군사훈련을 보아준적이 있는데 1참호앞에서 병사들이 일제히 수류탄투척준비를 하고 또 일제히 던지는것이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교범을 교조적으로 답습하지 말고 전투정황에 맞

게 각이하게 투척할수 있다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랜 보병전투경험에서 굳어진것이였지만 대담하게 깨버렸습니다.》

주성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무엇인가 비상히 격동된 자감상태에 자기가 끌려들음을 의식했다.

한순간 섬광같은것이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붉은색연필을 드시고 작전지도 위에 큼직큼직한 선을 죽죽 그으시였다.

《편대장동무, 보시오. 물론 지금까지 동무네가 수행한 해상전투훈련경험대로 하면 아군도 분산된 〈적〉을 동시에 격파해야 한다고 볼수 있소. 하지만 내 생각엔 편대의 주력이 먼저 예비상륙지점인 남서방향으로 회피기동하는 〈적〉분함대를 타격하는것이 좋을것 같소.》

그러자 리운림은 무엇인가 이해하지 못한듯 머뭇거렸다.

《그렇게 되면 익측해안으로 상륙하려는 〈적〉들이…》

김정일동지께서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시였다.

《현대전은 립체전쟁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해안 익측에 붙은 적들은 독안에 든 쥐이므로 함대훈련 지휘부에 제기해서 비행대가 타격하게 해야 합니다. 비행대의 선제타격이 해안에서 벌어지는만큼 뒤따르는 해상륙전대의 행동에도 불리할것입니다.》

문득 주성규와 리운림은 자기들이 한순간에 거인으로 자란 기분을 느꼈다. 결국 집중공격과 비행대의 선제타격에 의해 두가지 작전문제가 해결되는것이 아닌가. 일거양득의 독창적인 전법이였다.

실로 천리해안의 비상한 군사적안목으로 협동훈련의 공간을 예리하게 포착하시고 즉석에서 독특하고 합리적인 작전전술적방안을 내놓으시는 그이시였다.

리운림은 작전지도를 움켜쥐고 병사처럼 차렷자세를 취했다.

《알았습니다. 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리운림은 남서방향공격을 앞두고 함선의 전투부분의 기재정상성을 다시 확인해보았다. 항해, 포부분, 수리, 통신, 기관, 탐지기 등 모든것이 정상이였다. 어쩐지 지금 리운림은 자기의 반생에서 전혀 체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심리상태, 일종의 정신적중압감과 양양된 창조적희열의 자감상태에 빠져있었다. 자기의 운명과 신념, 승리에 대한 확신… 그것은 강철의 령장결에서 한순간에 깨달은 진리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다지였다. 전번훈련때와 같은 실수가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해병

들은 예비관정후 진지한 훈련을 통해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리운림은 온몸에 열정과 신심이 생기는것을 느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리운림의 전투준비보고를 받으시고 미소를 지으시였다.

《편대장동무, 그래 이번엔 자신이 있다는거겠소? 주체전법으로 무장한 일당백해병의 솜씨를 보이시오.》

《우리 함선 해병들은 어떤 불의의 정황에도 준비되어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시계를 들여다보시였다.

《좋소, 시간을 맞추시다. 대담하게 공격하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윽고 함포들은 남서방향으로 회피기동하는 《적》상륙분함대에 일제사격을 퍼부었다.

선수에서 중구경함포가 한번 발사할 때마다 총격파가 세차게 밀려와 해병들의 항해복을 흔들었다.

그리고 달아오른 시누런 탄피가 갑판위에 철렁 떨어져서는 파도물에 씻기어 포탄상자들쪽으로 굴러가곤 했다. 머리를 들면 방사포탄들이 대양의 상공에 거대한 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장쾌한 모습이 눈에 안겨온다.

검푸른 강철빛하늘에는 우리 공군편대들이 하얗게 덮였다. 바다우에서 보는 매들의 흰 동체는 더욱 눈부시게 은빛으로 빛났다.

항공타격과 동시에 해안의 아군지상무력들이 《적》해상륙전대를 실은 수송정들에 몰사격을 퍼부었다.

하늘과 땅, 바다에서 거창한 철의 흐름이 마치 거인의 손에서 움직이는 대하처럼 장엄한 화폭으로 펼쳐져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각 병종, 군종들의 립체적인 협동훈련에서 함선들과 비행기, 지상무력들이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는것을 보시고 만족해하시였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훈련하는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전법, 주체의 군사예술입니다. 함대동무들이 수고했소. 우리 해병들에게 당중앙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리운림은 해병들과 함께 사령탑에 높이 서신 그이를 우리르며 뜨겁게 웨쳤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복무함!》

주성규는 분명 이 순간부터 자기 함대 아니, 전군이 전투훈련에서 구획이 명백한 하나의 전환점에 들어섰다는것을 볼보듯 명백히 깨달았다. 자기가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에서 진실성을 살리자면 형상에 생활의 본질을 반영하여야 한다. 작품에 그려진 형상이 생활과 현상적으로는 같아도 생활의 본질에 어긋날 때에는 진실성을 가질수 없다. 오직 형상이 생활의 본질과 일치되고 본질적인 세부로 차넘쳐야 작품이 진실하게 된다.》

《작가라면 응당 진실한 인간의 본보기, 가식과 번심을 모르는 순결한 량심의 대변자로서 현실을 바로 보고 그려야 한다.》

《문학작품에서 철학성은 작가에 의하여 새롭게 발견되고 형상적으로 심화된 생활진리의 깊이이다.》

《문학작품의 철학성은 형상의 진실성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문학작품에서는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면 그릴수록 철학성이 더욱 깊어지며 화폭속에 의의있고 심오한 사상이 구현되면 될수록 진실성이 더욱 철저히 보장된다.》

리운림의 돌발적인 행동에서 느꼈던 반신반의에서, 리운림이 무엇인가 불만을 느끼며 막연하게 지향했던 그 연약한 싹에서 그이께서는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군사훈련에서 자주성을 지닌 군인대중의 창발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는 군사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발견하시고 전군에 일반화할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신것이 아닌가. 이제 분명 우리 인민군대는 혁명무력건설에서 다시한번 눈에 뜨이는 큰결실을 내짚게 될것이다.

귀항의 길, 입항하는 배길에는 아름다운 바다노을이 붉게 비껴있었다.

해상협동훈련에서 성과를 거둔 함대는 저녁노을이 비낀 해안을 마주보며 군항으로 돌아오고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허리에 손을 짚으시고 중갑판에 서시어 고요한 해안풍경을 이윽도록 부감하시였다. 하얀 비말을 뿜어올리며 넘실대는 은빛바다에 발을 잠근 기암괴석의 웅장한 절벽이 마치 승리한 열병대오인양 해안에 높이 솟아 저녁해의 후광에 빛나고있었다.

그이께서는 갑판에 나온 해병들을 둘러보시며 청청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보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아름다운 기슭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셨기에 저렇게 천하명승으로 빛을 뿌리고있는것입니다. 마치 조국의 명해를 철벽으로 지켜가는 우리 해병들에게 인사를 보내는것 같습니다!》

그이의 절절하신 말씀에 해병들은 깊은 생각에 잠겨 해빛 눈부신 해안을 바라보았다.

주성규가 그이앞에 다가가 걱정예 넘친 어조로 말씀올렸다.

《저희들은 오늘 일군들이 머리를 쓰지 않고 훈련을 고정격식화된 틀에 맞추어 집행해나간다면 해병들을 일당백싸움군으로 단련시킬수 없다는 교훈을 깊이 찾았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자애로운 눈길로 해군장병들을 둘러보시였다.

《웁습니다. 작전훈련에서 높은 창발성을 발휘한다는것은 언제나 혁신적인 안목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방식을 찾아내고 그것을 활용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하여 작전과 훈련을 주체전법의 요구와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보다 높은 수준에서 창조적으로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하는것입니다.

훈련에서 창발성을 발휘해야 실지 싸움에서 승리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땀과 래일의 피를 바꾸어야 합니다. 사령관동무, 작전도 훈련도 하나의 창조라는것을 기억하오! 이 진리를 명심할 때 우리 해군은 조국의 제해권을 틀어쥐고 우리의 명해를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소! 당은 귀중한 우리 조국의 명해를 동무들, 일당백해병동무들에게 맡깁니다!》

리운림과 주성규의 불타는 눈길이 한점에서 부딪혔다.

함선은 정든 군항을 가까이하고있었다. 어느 함선의 갑판에선지 정다운 손풍금소리가 울려왔다.

멀리 군항의 등대불이 반짝였다.

주체76(1987).

좋다, 우리 핵무력

오 동 규

타격에서 무자비하다
침략의 무리들 도사린 어데나
우리의 핵미싸일은 날아가리
경애하는 원수님 최종검토비준하신
우리의 화력타격계획은 핵타격계획

죽어도 알고 죽으라 미제야
어떤 죽음이 네놈들에게 차례지는가를
수령님뜻으로 장군님 마련해주신
무자비한 정의의 핵무력
원수님 어떻게 세계에 펼쳐가시는가를

침략의 무리들 덤벼든다면
씨도 없이 소멸하리라
50년대에 못다푼
쌓이고쌓인 원한을 풀리라
마지막 한놈까지 박멸하리라

그렇다 한순간에
미제는 행성에서 없어지리
한다면 하는 백두의 담력 지닌
우리의 정의의 혁명무력앞에
제국주의는 멸망의 나락에 떨어지리

우리 얼마나 바랐던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없는 세상을

세기와 세기를 이어
평화가 깃들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 얼마나 절감했더냐

왔다 그 원한을 풀 때가 왔다
천만대적이 덤벼든대도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다
조국이며 행복의 열매 마음껏 익히라
거리여 뻗으라 집이어 솟구치라
우리에겐 선군의 만능보검
정의의 핵무기가 있다

이 시각도 전쟁연습에 발광하는
세계의 원수들을 향해 포신을 들었다
원수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숨어있을 곳 없다
땅속에 숨은 놈 그곳은 네놈의 무덤
하늘에 숨은 놈 그곳은 네놈의 황천길
좋다 우리의 핵무력

아, 원수님 가리키신 화살표따라
미제와 추종자들과의 최후결전은 시작되리니
핵탄으로 민족의 숙원을 이루고
핵탄으로 인류의 평화를 지켜갈
우리는 백전백승 조선인민군
미제야 함부로 날뛰지 말라!

가 사

선군길은 만복의 길

박 영 진

걸어온 길 뒤돌아보면 선군으로 빛나고
걸어갈 길 바라보면 선군으로 승리떨칠
우리 장군님 헤치신 준엄한 선군길
그 길 생각하면 눈물겹네
아 선군 선군은 조선의 운명
아 선군 선군은 만대번영의 길

백두에서 추켜든 선군의 이 기치
사회주의성세우에 영원히 나뭇기네
우리 장군님 지켜주신 운명의 선군길

그 길우에 천만복 꽃피나네
아 선군 선군은 조선의 운명
아 선군 선군은 만대번영의 길

선군길은 조선의 운명의 행군길
그 길은 강성부흥 그날로 이어진 길
우리 장군님 열어주신 영광의 그 길로
원수님 따라서 우리 가리
아 선군 선군은 조선의 운명
아 선군 선군은 만대번영의 길

수령의 위대성형상과 회상수법의 효과적리용

김 순 립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작품에서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중요한 창작적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하나의 문제를 놓고도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행동하는 수령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 펼쳐보여주지 않고서는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생동하게 드러내기 어렵다.》

수령의 형상에서 어떤 결과만 강조하고 그 결과를 이룩할 때까지의 체험세계와 심리적굴곡과정을 진지하게 파고들지 않거나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즉석에서 결론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나가는 수령의 외적모습만 그려나가려 하여서는 안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어느 누구보다도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어오신분이시다.

인민을 위한 한평생에서 어버이수령님처럼 파란만장의 시련을 헤쳐오시며 마음쓰신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의 문학작품에서는 수령님의 그 깊은 심리세계를 생동하게 펼쳐보여야 형상이 기정사실화되거나 격식화되지 않게 된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남다른 인간적품모를 지니고계신다.

작가는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깊이 연구하고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인간적품모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창작실천상문제가 제기되지만 수령형상작품에서 회상수법의 옳은 활용은 우리 수령님의 남다른 인간적품모를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최근 우리 작가들은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회상수법을 작품의 생리에 맞게 적절하게 구사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부각하는데서 좋은 경험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붉은 눈보라》(리희남 작 《조선문학》 주체101년 12호), 《이 하늘 이 땅은...》(박종철 작 《조선문학》 주체100년 7호)등은 회상수법의 옳은 구사로 어버이수령님의 내부적체험세계를 생동하게 그리는데서 좋은 시사를 주고있다.

우의 작품들은 회상수법을 활용했다는데서 공통적인 우점을 가지고있지만 그 구사에서는 일련의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회상세계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는것이다.

최근 우리의 수령형상작품들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함께 모신 회상세계가 이채롭게 펼쳐져 독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단편소설 《붉은 눈보라》는 혁명가유자녀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창립해주시고 어버이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회상속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동지들에 대한 숭고한 혁명적리리와 깊은 도덕리리심을 감동깊게 부각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시련의 해였던 1996년을 보내고 1997년을 맞는 새해 0시에 금수산기념궁전(당시)에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찾아뵙고 새해에 만경대혁명학원부터 찾아볼 결심이라고 마음속으로 말씀올리시였다.

야전차가 만경대를 향해 달리고있을 때 장군님께서서는 언제인가 수령님을 모시고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아가시던 때가 생각나시였다.

단편소설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을 회상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추억의 세계를 뜨겁게 펼쳐보이면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감동깊은 화폭속에 형상하고있다.

작품의 구성이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체험세계를 펼쳐보이는것으로 되어있으므로 회상의 계기도 이 로정속에서 추억의 계기가 조건지어지고 거기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적품모가 뜨겁게 흘러나오게 되어있다.

해마다 설날이 오면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자신을 기다린다고 하시면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지 않으면 그 애들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되새겨보시며 깊은 추억속에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머무르신 위대한 장군님의 회억속에는 설날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이 펼쳐보였던 노래이야기가 되살려진다.

그 노래이야기속에서 아버지수령님을 친아버지로 모시고 생활하는 원아들의 모습을 가슴뿌듯이 느끼시며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숭고한 혁명적 의리와 혁명투쟁의 길에서 먼저 떠나간 동지들의 자녀를 한품에 안으시어 혁명의 계승자로 키워주시는 수령님의 높은 혁명적도덕의리의 세계를 절감하신다.

작품은 계속하여 진달래꽃 한창 피던 어느해 봄날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만경대를 찾으셨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노래이야기의 주역을 맡았던 영철이를 비롯한 원아들과의 특별히 류달랐던 상봉을 회억하시고 수령님의 동상앞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해방된 내 조국땅에 제일선참으로 학원에 수령님동상을 모시도록 해주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회상하시는 장면들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특히 아버지수령님께서 만경봉에 오르시어 만경대의 사연깊은 경치를 부감하시면서 지원의 심원한 뜻에 대하여 말씀하시던 모습과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고하시던 내용들을 펼쳐 보여줌으로써 만경대일가의 혈통을 계승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상을 격조높이 떠올리고있다. 이리하여 독자들에게 아버지수령님께서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의 20성상 새겨안으신 지원의 사상은 그 어떤 세속적인 인생교훈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행복과 보람을 찾는 혁명적인생관이며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기어이 조국해방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라는것을 위대한 장군님의 회상속에 가슴 뜨겁게 새겨안게 하는것이다.

하기에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의 성전에서 승리를 이룩하시고 백두산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것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만경대혁명학원부터 세우셨던것이다.

작품은 여기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회억속에 만경대혁명학원 개원식날에 있었던 감동적인 사연과 일화들을 펼쳐보여주면서 아버지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혁명적도덕의리의 세계를 뜨겁게 펼치고 조선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장군님의 어린시절의 모습도 감성적인 화폭속에서 부각하고있다.

수령의 내면세계를 펼쳐보여주기 위한 회상수법의 효과적인 리용에서 이 작품은 새로운 창작적시사를 주고있다. 위인들의 사색속에서 편상되는 역사적인 혁명사적이 안겨주는 회고와 추억의 세계를 진한 서정적화폭으로 채색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아버지수령님께서 지니신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의 세계, 만경대의 혈통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의 세계를 심장으로 느끼며 백두산위인들이시야말로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라는것을 절감

하게 하고 깊은 여운을 주는것이다.

수령형상작품에서 수령의 내면세계의 개방을 통하여 위인적품모를 깊이있게 보여주는데서 회상수법은 단편소설 《이 하늘 이 땅은...》에서 다른 양상을 가지고 구사되고있다.

단편소설은 력사연구소 소장 리학무의 시점을 통하여 우리 력사학자들에게 민족적자존심과 주체사관을 바로세워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위인적품모를 한껏 부각하고있다.

물론 이 작품에서도 아버지수령님의 시야에 비껴드는 제1차 5개년계획수행의 거창한 동음을 통하여 야기되는 단편적인 회상의 세계, 어느 한 건설장과 재령나무리벌을 지나시며 떠올리는 추억의 일단 등 위인의 심중에서 뜨겁게 분출하는 내부적체험세계의 추구를 통하여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비범하고 탁월한 위인적품모를 뚜렷이 부각하고있다. 하면서도 이 작품에서 특징적인것은 회상수법을 한개의 절로 설정하고 절세위인의 숭고한 리념과 비범성을 더욱 높이 떠올리고있는것이다.

4개의 절로 되어있는 작품의 두번째 절은 상대인물인 리학무의 회상으로 구성되어있다. 수령형상작품의 생리에 맞게 상대인물인 리학무가 력사학계의 대표자로 전형화되어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집단을 통솔하고 인도해나가는 최고뇌수로서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원만히 보여줄수 있는 형상적담보가 마련되어있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형상적전제를 주고 작품은 하나의 세부적인 문제를 놓고 사색하고 또 사색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비범하고 천재적인 위인상을 여러 각도에서 부각하고있으며 여기에 회상수법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력사학자들이 안악제3호고분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학술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그것을 놓고 세계고고학계가 법석 끓고있으며 유독 일본의 일부 고고학자들이 무덤안에 썩어있는 《동수》라는 사람의 무덤이라고 한다는것을 료해하시고 이를 두고 깊이 사색하시는것이다.

우리의 일부 학자들이 이에 대한 리론적타격을 주지 못하고있는것은 주체의 민족사관이 바로서있지 못한데 있다는것을 간파하신 수령님께서서는 비범하고 천재적인 예지로 명확히 천명하여주신다.

물론 우에서 언급한 이 작품에 있어서 회상수법이 두번째 절에만 통채로 구사되고있는것은 아니다. 하면서도 회상으로 주어지는 화폭이 한개 절로 구체적으로 펼쳐보여줌으로써 수령의 내면세계의 심원한 형상적의미를 여운있게 보여주고있다는데 특별히 주목이 돌려지게 되는것이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우리가 안악제3호고분을 처음 발굴할 때의 일이 생각나는가고 물으시면서 학무에게 그때의 일을 되살리도록 계발시켜주시는것

마식령병사는 추억하리

리 경 체

불이 번쩍 작업과제 수행하고
스키장정점을 타고앉아
멀리 동해의 갈마반도 바라보며
땀을 씻는 마식령병사 나는 추억하리

어제는 갓 입대한 신입병사
10년세월 한해로 앞당긴
《마식령속도》창조의 열풍속에
10년세월 앞당겨 복무한
오늘은 어엿한 구대원

먼 후날 전우들이 여기에서 만나자
강원도 고향인 내 먼저 그대를 마중하리
갑산내기 김동무는 직승기 타고오고
서해벌방내기 박동무는 뺄스 타고오며
온 가족들과 함께
장쾌한 해돋이를 마중하자

그때에 말해주리라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어
불달린 화약처럼 살던 오늘을
그리고 저 삭도는 김동무가 조립한것...
그리고 저 호텔은 박동무가 미장한것...

그날에 전우들이 유쾌히 이야기하자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받들고
천고밀림속에 문명국의 상징
스키장을 펼치던 보람찬 나날을
그리고 안해와 자식들에게 보여주자
고향집뜰안을 꾸리듯 심은 저 나무가
우리 분대동무들 심은 나무라고

오, 그날의 아름다운 추억의 단맛은
단숨에 정신으로 《마식령속도》로 달려
오늘로 달려온
아름다운 추억의 상상봉
세계일류급의 마식령스키장에 오른
마식령병사 우리만이 할수 있는 추억이 아니라

이다.

그것은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기 몇달전에 있는 일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안악고분을 발굴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또 다른 고분들이 있을수 있다는것을 예감하시고 발굴대를 조직하여주시었다.

수령님께서 예견하신대로 1호, 2호안악고분에 이어 그야말로 궁전같이 웅장화려한 3호고분을 발굴했던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고분에 대한 고증사업을 잘할데 대한 파업을 주시었다. 그런데 얼마 안있어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서 고증사업은 뜻대로 잘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작품의 2절에서 회상으로 펼쳐진 화폭이다.

작품은 이러한 회상의 화폭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식견, 해박한 지식에 대하여 열렬히 찬미하면서 수령님이시야말로 천재적이지, 비범한 안목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이시라는것을 뜨겁게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이러한 주제사상적주장을 다음절에서 형상적으로 확인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문제의 《동수》라는 이름이 무덤에 묵서로 새겨진데 대하여 그것은 그 인물이 타국에서 망명하여 오래동안 왕밀에서 복무한 사

람이라는것, 그는 스물두해동안이나 왕밀에서 시종 무관을 했는데 그것은 겨우 군수에 지나지 않는 벼슬자리로서 그러한 사람이 호화찬란한 무덤을 썼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3호무덤에 있는 벽화들을 보시고 비범한 예지로 《동수》의 무덤이 아니라 고구려 왕의 무덤이라는것을 론증하여주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연구사업이 심화된 결과 그후 안악제3호고분은 고구려의 고국원왕의 무덤이라는것이 확증되었다.

이리하여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를 그토록 외곡무시하려던 일본사람들도 더 할말이 없게 되었다.

단편소설 《이 하늘 이 땅은...》은 회상수법을 폭넓고 심도있게 구사하여 우리 력사학자들에게 민족적자존심과 주체의 력사관을 세워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상을 립체적으로,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수령의 위인상을 형상하는데서 회상수법이 모든 작품들에서 필수적인것으로 된다고는 말할수 없지만 수령의 내면세계를 개방하는데서는 효과적인 형상수법이다.

우리는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생활반영의 특성에 맞게 회상수법을 잘 살려써으로써 수령의 내적체현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며 수령이 지닌 천출위인상을 더욱 감명깊게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8월은 뜨겁다

리 정 웅

《여보, 벌써 8월이군요.》

안해가 월력을 번지며 속삭이듯 하는 말이다.

새삼스러운 마음으로 달력앞에 다가서니 8월 25일이라는 날자아래 선군절이라고 새긴 빨간 글자가 류다르게 안겨왔다.

선군절은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이 비상한 의미를 이 땅에 사는 누구든 다 가슴에 새기고있겠지만 영예로운 땅크사단에서 군사복무하는 딸의 아버지로서 나의 감정은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나는 책장에서 보풀이 인 《조선문학》잡지를 꺼내들었다.

유치원에 가는 우리 딸 해연의 손에
사탕과자대신에 썩떡을 쥐여주고...

...

잊을수 없는 나의 소박한 서정시의 한구절이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태어난 딸의 이름을 나는 그렇게 지었다. 사나운 파도를 박차고 창공으로 치솟으며 힘차게 날으는 갈매기! 딸이 폭풍속의 해연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허나 역시 딸은 딸이었다. 호들갑스럽게 아버지를 칭칭 감고돌아가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히 밟혀온다. 마치 영화의 화면처럼.

그런데 언제였던가, 그 시절과 아무런 미련도 없이 작별하고 나와 마주않은것은!

아버이장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이한 그해 설날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신 소식이 전해진 그날이었다.

주체101(2012)년 새해를 맞으며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서 105땅크사단에 가보라고 말씀하시는것만 같아 그달음으로 이렇게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그이의 숭고한 그 영상!

딸은 또박또박 씹어말했다.

《아버지, 나 군대에 나갈래요.》

나는 눈곱이 달아오름을 어쩔수 없었다.

더 말하지 않은들 어이 모르랴!

아버지라면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성장한 딸자식을 대할 때의 대견한 감정이란 정말이지 열아들 부

럽지 않은것이였다.

몇달후 딸은 수많은 신입병사들과 함께 해주청년역에서 사람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초소로 떠나갔다.

그날부터 나는 병사의 아버지였다. 아니, 나 자신이 빨간 령장을 단 인민군전사- 딸과 함께 병사로 살았다. 이른아침에 잠을 깨면서도 딸의 병실에 울리는 기상구령소리를 마음속으로 함께 들었고 출근길에 나설 때도 강행군길을 걷는 딸의 발자국과 함께 짝으며 다그쳐갔다.

그러면서도 저도 몰래 《유치원에 가는 우리 딸 해연의 손에...》라는 시구절을 생각하곤 하였다.

그때마다 지금으로부터 63년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난 다음날 군복을 입고 김사랑과 함께 전선으로 선참 떠났던 종군작가 김조규의 유명한 시 《이 사람들속에서》가 엇갈려 귀전에 들려움을 어찌할수 없었다.

이 사람들속에서

내 어찌 비겁할수 있으랴?

이 싸움에서

우리 어찌 승리하지 않으랴?

나는 나의 딸이 김조규의 시에 나오는 리상태동무와 김이룡정찰조원들처럼 용감한 병사로 살며 싸우기를 바랐고 또 실지로 그러리라고 믿었다.

나 또한 딸과 한전호에 선 병사의 마음으로 교단에 나섰고 현직작가의 사명감을 새기며 총대를 휘듯 붓대를 더 역세게 틀어잡았다.

오, 우리는

아버이장군님 사랑담아 믿음담아 불러주신

최고사령부의 종군작가

그 부름 심장에 새기며

최고사령관기를 더 높이 추켜들자

지금 우리의 최고사령부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우리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의 종군작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1돐을 맞으며 지난해 《조선문학》잡지 12호에 이 작품이 발표되자 우리 강

좌와 대학에서는 나를 《중군작가선생》이라는 값 높은 이름으로 불러주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흠칫했다. 온몸에 전류가 짜릿하게 흐르는듯싶었다. 내가 중군작가라니... 그것도 다름아닌 최고사령부의 중군작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중군작가! 지나친 표현인가?! 아니, 나는 분명 진심을 토로했을뿐이다. 사실상 내 지금 서있는 교단도 최고사령부작전도의 화살표로 그어진 한개 전선의 한 초소가 아니겠는가! 살리라. 내 그렇게 살리라. 최고사령부의 중군작가로 땀땀이 살리라!

이렇게 누구나 쉽게 받아안을수 없는 이 부름을 조국과 인민이 우리 작가들에게 주는 성스러운 임무로 심장에 새겨넣으며 맞이한 주체102(2013)년이었다.

공화국창건 65돐과 전승 60돐을 맞는 이해에 얼마나 참여하고도 준엄하며 결정적인 시각들이 연이어 닥쳐왔던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을 겹고드는 미제와 괴뢰역적패당, 그 추종세력들의 발광적인 핵전쟁소동에 대처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실체적인 군사행동으로 과시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 화력타격임무와 관련한 작전회의를 소집하시고 아군전략로케트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을 타격할수 있게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갈것을 지시하시면서 전략로케트들의 기술준비공정계획서에 최종수표를 하신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전략!

이제는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우리는 미제가 이 땅에서 순간도 살아숨쉬지 못하게 할테다. 더이상 기다릴수 없다.

온 나라가 들끓고 전체 인민이 조선인민군에 입대, 복대를 탄원해나섰다.

우리 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나도 탄원서에 엄숙히 서명하였다. 병사의 아버지, 중군작가의 이름으로!

그렇다! 이제는 나도 마음속의 군복을 입은 중군작가가 아니라 포연내 그슬린 전투복을 입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그어주신 작전도의 화살표를 따라 총포성이 울부짖는 최전방의 작열하는 격전장으로 달려나가야 할 중군작가가 될것이다.

이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우리의 전략로케트군부대들과 장거리포병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인민군 대련합부대들이 원쑤의 아성을 삼시에 불바다로 만들고야말것이다.

가슴후련하도록 통쾌한 그날 김사랑, 김조규, 김람인, 조기천, 황진, 윤세중을 비롯한 우리 전세대의 중군작가들이 걸은 화선천리길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중군작가들이 인민군부대들과 함께 만세의 함성 높이 부르며 진격의 맨 앞장에서 내달릴것이다.

바로 그날에 나도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서 복무하는 딸과 함께 땅크의 포신을 높이 들고 승리의 장쾌한 포성으로 조국통일의 대서사시를 저 넓은 하늘에 새기며 목청껏 웨치리라!

세제여, 보라.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 어떻게 최후의 승리를 이룩하였는가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이 행성에 어떻게 인류의 진정한 평화를 안아오셨는가를!

크나큰 걱정과 환희에 넘치는 승리의 그날이 금시라도 눈앞에 펼쳐지는것만 같다...

어느새 안해도 곁에 다가왔다.

할짝 열어제끼 창밖에는 뜨거운 폭양이 쏟아져내리고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뜨거운것은 우리 당의 선군령도를 더욱 역세게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신념이였고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을 단숨에 쓸어버리고야말리라는 증오의 불길이었다.

《그렇소. 뜨거운 8월이요...》

상 식

교통안전신호등

첫 교통안전신호등은 1868년 12월 10일 런던의 어느 한 도로교차점에 설치되었다.

높이가 7m정도 되는 강철기둥우에 두개의 가스등불(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파란색등)이 올라앉아있었는데 교통정리원이 이 등불을 관리하였다.

빨간 불은 정지신호이고 파란 불은 주의신호이다.

1914년 8월 5일 서방의 어느 한 도시에 처음으로 전기신호등이 설치되었는데 신호등의 색깔이 바뀔 때마다 종이 울렸다.

3색신호등은 1918년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다.

창전거리의 나의 집

문 동 식

만수대언덕
어버이수령님 가장 가까이
우리 장군님 세워주신 황홀한 창전거리
여기에 솟아있는 궁궐같은 나의 집

창가에 다가서면
내 눈앞에 숭엄하게 안겨온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태양으로 빛나시는 거룩하신 영상이

이런 때면 귀전에 금시 들려오는듯
천년이 가고 만년이 흘러가도
수령님 가리키시는 주체의 한길로만
곧바로 역세계 나아가라시는...

그 길에서 천만가지 모든 일
수령님식대로 풀어나가라고
오직 그 한길에서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로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라시는...

천출위인의 간곡한 이 유훈

내 나라 강산에 해빛으로 뜨거워
산에 들에 무르익는 오곡백과향기도
창조와 비약의 장엄한 동음도
끝없이 흘러드는 나의 집

나는 오늘도 이 집에서
어버이수령님과 **김정일**장군님을
백두산대국의 영상으로 높이 모시고
충정의 심장만을 불태워가거니

탁월한 스승의 가르치심 받으며
내가 날에 날마다
심장처럼 귀중한 삶의 진리
수령님 가리키시는 자주외 한길로만
필승의 신념 안고 첫걸음 떼는 집

장군님의 당부 온몸에 되새기며
태양의 전사로 삶을 빛내가는
오, 나의 이 집은 나의 후손들도 대를 이어
수령결사옹위의 별무리로 태어날
영원한 충정의 고향집이여라

마식령스키주로여!

주 경

오르며 쳐다보니
마치도 하늘 한끝으로 뻗은 길인듯
정점에 올라 내려다보니
이 땅 끝까지 잇닿은 길인듯
시원하게 뻗어내린 마식령스키주로여

장쾌하구나
여기서 동해의 해돋이를 맞으며
갈마반도가 보이는 푸른 바다로
눈무지개 타고 훨훨 날아내릴듯

여름이면 폭우가 그칠새 없고
겨울이면 폭설에 묻혀버리는
마식령 험한 산발에 건설되는
세계일류급의 스키장

가슴뜨겁구나 마식령이여

너는 내 고향과 멀리에 있지 않아도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은 병사들
여기서 포성없는 건설의 격전을 벌리는줄
내 미처 몰랐구나

천년암반을 깎아내리고
한치한치 열어간 그 길은
10년세월 한해로 앞당긴
결사관철의 투사들이 열어놓은
단숨에 격전의 돌격로!

하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단숨에의 정신으로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일당백공격속도로
《마식령속도》창조예로

온 나라 천만군민을 부르시였거니

내 여기서 보노라
일당백정신이 창조한 《마식령속도》
김정일애국주의의 숭고한 정신력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를 치는
완강한 그 정신 그 기백

오, 마식령스키주로여
너는 한다면 하고야마는
선군조선의 기상을 안고
미래에로 폭풍쳐날을
찬란한 래일의 대통령로여라

씨앗을 뿌려가네

전 옥 진

고향집 마당가
꽃밭에 뿌려가네
꽃씨앗이면 이보다 더 귀하랴
금싸래기보다 더 귀한 씨앗

언땅을 까내고
천년바위 들어낸 땅
내 고향 포전이 여기에 옮겨진 듯
장기관같은 아득한 벌에
한알두알 정성을 다해 뿌려가는 풀씨앗

얼핏 보면
눈에도 들지 않는 작은 씨앗
손에 쥐니 천만근무게로 생각도 깊어져
선뜻 뿌리지도 못하겠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씨앗아

내 것처럼 귀중한 씨앗 너를
드넓은 벌에 뿌려가네
이랑을 적셔가는 내 눈물 방울방울에
비껴오는 못 잇을 어제날이여!
어려오는 희망찬 래일이여!

눈보라 세찬 세포등판

눈보라에 천막이 날려가던 추운 겨울
비가 많이 내리던 세포등판
젖은 옷 입은채로 마르고젖던
그 나날이 어려있는 씨앗

나만이 아니구나
잡관목뿌리 한손으로 뽑아내던
돌격대중대장도
온통 웃음인 랑만가 소대장도
눈물과 함께 뿌려가는 씨앗

스민듯 씨앗은 땅에 묻혀
보이지 않아도
들려오네 초원에 뿌리내리는 소리
들려오네 초원에 설레이는 풀판
보여오네 초원에 흐르는 양떼 염소떼 젖소떼...

아, 나의 사랑 씨앗아
세포등판에 천년을 뿌리내려
만년을 설레며 노래하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원대한 뜻 받들어
세포등판에 애국의 씨앗을 뿌려가던
그 마음 그 나날 그 꿈을!

유 래

랑 패

랑패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고사에서 유래되었다.

랑패라는 짐승이 있었는데 랑은 수컷, 패는 암컷이었다. 그런데 패는 앞다리가 짧아서 혼자서는 걷지 못하고 반드시 랑의 등허리에 앞발을 얹고서야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로부터

랑만 놓치면 오도가도 못하고 꼼짝없이 잡히게 되어있었다.

《랑패》는 《랑을 잃은 패》라는 뜻으로 꼼짝 못하게 된 처지나 여지없이 망가진 일을 뜻하는 말로 널리 쓰이고있다.

시 초

오성산아 말하라

백 하

결사의 산악

좁은 길아래엔
아찔한 천길벼랑
한줄기 바람만 스쳐도
금시 무너져내릴듯

천만위험이 드리운
오성산 칼벼랑끝으로
야전차가 불어오른다

자욱자욱 위험이 도사린
허공중천 사선길로
경애하는 원수님 오르신다

백두령장 **김정일**장군님
야전차도 더 오르지 못해
벼랑가에 벗어선 차를
한치한치 어깨로 미시며
하늘끝에 오르신 오성산
오성산 152굽이를
경애하는 원수님 오르신다

수행원들의 가슴엔
까맣게 재가 앉았다
푸릿한 하늘도 사색이 되고
거창한 산악도 온 몸체를 뒸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
마치도 고요한 정원길을 내다보시듯
천길 벼랑밧을 조용히 굽어보시고
만시름 잊으신듯 눈가엔

따뜻한 미소가 어리었다

서남전선의 최남단
포탄이 나는 최대열점수역을
작은 목선을 타시고 맞받아나가시던
천하무적의 그 담력 그 기상으로
오르신다 오성산 아득한 정점으로

전률하라!
핵전쟁의 버섯구름을 몰아오는
미제침략자들과
강철의 령장 **김정은**원수
네놈들의 작전타격을 거연히 디디시고
오르시었다 결전의 산악
오성산마루에

오성산 오성산
김정일장군님 결연히 오르시여
사회주의를 없애려고
악랄하게 조여드는
제국주의포위환을 산산 동강내신
선군의 산악 오성산

오, 오늘은
선군령장 **김정은**원수님
만리대공우에 오르시여
워싱턴을 눈아래 굽어
미칠듯 몰아오는 놈들의 핵전쟁 버섯구름을
아득히 지구밖으로
산산이 내치시였어라

산정의 감시소에서

흐르는 한초한초에
조국의 운명이 실린 산정의 감시소
적들과 시퍼런 총창끝을 마주대고있는
오성산정점의 감시초소

불과 불이 부딪는
결전의 감시소에 성큼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고
감시병은 마치도 꿈을 꾸는듯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감동되어

환희에 넘쳐 보고를 드리였어라
온몸의 힘을 모아 쟁쟁한 목소리로
총성없는 싸움의 순간순간을
결사의 의지로 억척같이 지켜가는
감시근무의 힘찬 보고를

마디마디 피가 뛰는 보고를
믿음어린 눈길로 다 들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다정히 등을 두드려주시여라
용타고 자기 임무에 정통했다고

감시병의 두눈엔 차랑차랑
뜨거운 눈물이 솟는데
경애하는 원수님 다정히 물어주시여라
나서자란 고향과 부모님들의 안부
그리고 병사의 희망...

적진 향해 엄엄히 솟은
산정의 감시소에서 끝없이 안겨주시는
너무도 크나큰 아버지사랑에
감시병은 총을 굳게 틀어쥐며 아뢰였어라
결전의 산악 오성산에

한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 다정히
감시병을 곁에 세우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크나큰 사랑을 담아 말씀하시였어라
—최고사령관과 함께 찍은 이 사진을
내가 동무의 고향집에 보내주겠소

세상에 이런 사랑도 있는가
해빛이 비쳐드는 아담한 집마다
문을 열면 밝은 벽에 모신 기념사진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부대에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
우리 아들이 최전연에서 보내왔다고
어머니들 마디마디 목메이건만

아, 경애하는 원수님
전사의 고향집에
친히 사랑의 기념사진을 보내주시나니
한없이 자애로운 최고사령관동지
한량없는 아버지 그 사랑을
친히 전사의 고향집에 이어주시여라

뜨거운 눈물로 이어진 정

중대의 병실에도 들리시여
구석구석 따뜻이 보살피시였어라
식당도 찾으시여 다정히 웃으시며
병사들에게 쿡은 얼마나 먹이였는가
부식물은 끼니마다 푸짐히 차려주었는가
그 얼마나 다심하게 돌보시였으랴

최전연병사들에겐 아까울것이 없다고
지휘관들은 발이 닳도록 뛰어야 한다고
온갖 사랑 다 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사랑의 쌍안경과 자동보총도
은빛 뿌리는 기관총도 안겨주시였어라

온 중대를 한품에 안아
다정히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나서야
걸음을 옮기시며 병사들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시여라
말없이 병사들을 바라보신채

무엇이 그이의 발걸음을 붙잡았는가
그 무엇이 떠나시는 그이를 놓지 않는가
아, 병사들마다 두볼을 타고 내리는 눈물
하염없이 내리는 뜨거운 눈물
경애하는 원수님을 붙들고 놓지 않네

얼마나 그리고 그리던 원수님을 뵈웠으면
불같이 뜨거운 눈물
경애하는 원수님의 걸음을 막아섰으랴
그이께서도 후더운 눈물을 담으시고
뜨거이 뜨거이 터놓으시는 심중
아버이자군님께서 오성산의 군인들을
늘 가슴에 안고사시였다고
장군님의 그 마음을 안고 내가 왔다고

그러시며 경애하는 원수님
기념사진을 다시 찍자고 하시며
한사람한사람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하나하나 다시 얼굴을 보아주시고 쓰다듬어보시고
사진을 찍어주시여라

온 중대원들을 한사람씩

어버이장군님 사랑하시던 병사
한사람한사람이 그리도 귀중해
경애하는 원수님 품을 놓고
온 나절 사진을 찍어주시여라
한사람씩 자신의 곁에 세우시고

오, 오성산아 말하라
령도자와 병사가
뜨거운 눈물로 이어진 정
천년 가도 만년 가도 식지 않는
영원한 동지애로 이어진 정
그 어디서도 찾을수 없는
일심단결의 이 정
온 세상에 소리쳐 전하라

까칠봉초소

칼벼랑 152굽이도 다 오르시고
적진의 총구들과 마주선
오성산정점에도 다 가보시고
가슴저린 사선길을 다 밟으시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
아직도 주신 사랑 모자라신듯 말씀하시여라
까칠봉초소로 나가시겠다고
적진 화구가 눈앞에 놓인
아슬아슬한 350미터
절벽절벽 적들의 장탄소리도 다 들리는
위험천만한 곳

지휘관들 너무도 놀라 막아나섰다
하지만 그이의 진정에 넘친 음성
—내가 오성산에 올라왔다가
그곳 병사들을 만나지 않고 가면
그들이 얼마나 섭섭해하겠소

지휘관은 다시 정중히 말씀드리었다
최전연 천리를 다 밟으신대도
그곳만은 절대로 못 가신다고
하지만 원수님 절절하신 말씀
—그곳 병사들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내가 발길이 떨어질것 같지 않소

그러자 장령들 서둘러 그이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었어라
하늘땅이 다 뒤집힌대도
부디 이 길만은 삼가해달라고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막지 못할
천만군민의 간곡한 소원이라고

자애깊은 눈길로 그 모습 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밝게 웃으시여라
—그들이 가장 위험한 곳에 나가있기에
내가 나가야 하오

최고사령관이 함께 있으면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소

그 무엇이 그이의 걸음을
막아나설수 있으랴
천겹만겹 드리운 위험의 장막을 헤치고
야전차가 시동을 올렸다
너무도 믿기 어려운
원수님의 야전차앞에
오열을 터친 까칠봉 병사들
원수님을 몸으로 막고
소리를 삼키며 발을 동동 굴렀다

한줄기 찬바람이 불어도 몸으로 막아
안녕을 지켜드려야 할 경애하는 원수님
어디에 오셨는가
그 어떤 천만위험을 딛고 오셨는가
소리도 못 내어 걱정을 삼키며
병사들 겹겹이 그이를 몸으로 성벽을 쌓고
눈물만 눈물만 쏟았다

경애하는 원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울지 말라고 어서 울음을 그치라고
그들을 한품에 굳게 안고 말씀하셨다
—내가 동무들과 함께 있으려고
최고사령관이 까칠봉에 왔소

아, 초병들의 온몸엔 불끈불끈
무진막강한 힘이 솟구치며
하늘같은 그 믿음이 세차게
세차게 흥벽을 치고 또 쳤다
순간 위험의 350미터가
가뭇없이 사라지고
병사들의 가슴가슴엔
결사옹위의 천만리가 들어앉았다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총킹의 세계를 진실하게 노래한 수령송가

—가요 《운명도 미래도 말긴분》을 두고—

최언경

《로동신문》 주체102(2013)년 3월 11일부에는 가요 《운명도 미래도 말긴분》이 실리었다.

한편의 혁명적인 가요는 시대를 진감하며 력사의 전진운동을 추동하고 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기여한다.

그것은 바로 혁명적인 노래가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하며 천만심장에 불을 달아 핵탄도 무색케 하기때문이다.

그 위력한 노래중의 노래가 위대한 태양의 노래, 수령송가이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조선은 천하제일의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위대한 태양의 노래 《운명도 미래도 말긴분》을 만민대합창으로 소리높이 부르며 철천지원썩 미제를 지구우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자가 될 것이다.

수령이 위대하여 수령송가가 있다면 그 수령송가의 명작적가치와 의의는 수령의 위대성에 근원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정치실력과 쌓으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세상에서 제일 출중비범하신 령도자로 세계의 선망의 눈길을 한몸에 모으시였으며 인민이 심장을 바쳐 사랑하고 따르며 일편단심 우러러 받드는 위대한 인민의 령도자, 가장 친근한 인민의 아버지로 되시였다.

하다면 이처럼 커다란 시대적의미를 안고 탄생한 가요 《운명도 미래도 말긴분》(리명근 작사, 김운룡 작곡)의 송가적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가사의 구절구절을 음미해보며 그 뜻을 새겨본다.

1. 안겨준 그 사랑 봄빛이라면
베푸는 그 은정 해빛이런가
다심한 그 정에 마음이 끌려
목매여 우러르는분
(후렴)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말긴 **김정은**동지
일편단심 충정을 다해

영원히 따르렵니다

2. 생사를 같이할 제일동지로
전우라 부르며 믿음주시네
혁명의 먼길을 함께 가자고
손잡아이크시는분
(후렴)
3. 그 이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따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에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후렴)

보는바와 같이 가사는 너무도 평범하다고 하리만큼 지극히 소박하며 우리가 매일, 매 시각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생활그대로라고 하리만큼 더없이 진실하다.

여기에는 진정 그 어떤 가식도 꾸밈도 격식도 없다.

위대한 태양의 빛과 열에만 비길수 있는 수령의 절대적 위대성, 순결한 우리 인민의 한없는 충정, 매혹적인 시의 세계, 들을수록 더 듣고 싶은 명곡...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 중요한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감명깊게 그려내는것이다. 수령의 형상에서는 령도자의 지위에 맞는 위대한 품모가 격이 있게 그려져야 한다.》

수령이 위대하여 수령송가가 있다면 그 노래는 또한 수령을 일편단심으로 따르고 받드는 충정의 인민이 있고 인민의 그 뜨거운 충정을 맨 앞장에서 대변하는 참된 혁명적시인이 있어 가장 훌륭한 수령송가로 된다.

가요 《운명도 미래도 말긴분》이 시대의 훌륭한 송가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끝없이 따르고 흠모하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충정의 사상감정을 송가문학의 시문학적특성에 맞게, 송가적인 품격이 있게 훌륭히 형상하였기때문이다.

송가문학도 어디까지나 시문학인것만큼 그 품격과 사상에술적가치도 웅당 시문학의 기본특성이며 생명인 서정성을 기본으로 하여 어떤 서정을 어떻게 노래하였는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가요 《운명도 미래도 말긴분》은 총체적으로 밝고 량만적이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에 대한 우리 인민의 한없이 숭엄하고 경건한 흠모의 정, 원수님과 떨어져 살수 없는 친어버이로 끝없이 따르고 그리워하는 절절한 그리움의 정, 이로 부터 스스로 터져나오는 우리 인민의 열렬한 칭송과 충정의 마음이 하나로 조화롭게 통일되어 폭이 있으면서도 더없이 감동적인 생활의 세계로 충만되어있다.

바로 여기에 수령송가로서의 높은 품격이 있다. 가사는 우선 가장 숭엄하고 경건한 감정으로 천출위인으로서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한없는 위대성을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정서적으로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수령의 위대성은 우리 문학의 최고정화를 이룬다. 그것은 주체의 문예관의 견지에서 볼 때 아름다운것, 미적인것이 자주적인 인간의 생활과 투쟁에 있다면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는것이 바로 위대한 수령이기때문이다.

참으로 위인중의 위인이시고 인간중의 인간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은 그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시중의 시이며 노래중의 노래로서 노래불러 터치지 않을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세계, 시의 세계로 충만되어있다.

이 절대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험한 인민대중의 사상감정은 스스로 가장 숭엄하고 경건한것으로 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가요에서 특히 위대한 사랑을 봄빛에 비겨, 숭고한 그 은정을 해빛에 비겨 노래한데서 특별히 선명하게 표현되고있다.

대를 이어 누리는 우리 인민의 수령복속에, 마시는 공기처럼 평범한것으로 여겨지는 봄빛과 해빛속에 우리 인민의 운명과 미래에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것이 다 깃들어있다.

엄혹한 추위와 사나운 눈보라를 몰아내고 웃으며 반기며 찾아오는 따스한 봄빛, 그것은 진정 만물을 소생시키는 생명선과도 같은것이며 부풀어오르는 희망과 행복의 상징이다.

태양의 속성은 만물을 품어안아주는 그 뜨거운 열과 함께 앞길을 찬란히 밝히는 눈부신 빛발이다.

하다면 그 따스한 봄빛, 그 찬란한 해빛보다 더 위대한 사랑과 은정을 이 세상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가요는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없이 그리고 그리는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그리움의 정의 분출이며 흘러 끝없는 대화와도 같이 우리 시대를 줄기차게 주도하는 전인민적인 그리움의 서정의 용융한 흐름이다.

그리움의 서정, 그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인간과 인간의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정에서만 스스로 우러나올수 있는 가장 숭고한 감정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에서 근본바탕을 이루는 그이와 인민과의 혈연의 관계를 그리움의 정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써도 것처럼 절절하게, 것처럼 뜨겁게, 것처럼 운명적으로 노래할수는 없는 것이다.

어느 순간에 적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서남전선의 최남단최대열점지역 방어대에 다시는 오시지 마시라 눈물속에 간절히 안녕을 축원하면서도 헤어지기 아쉬워 찬물속에 뛰어들어 오래오래 바래우고 따라서는 우리 군대와 군인가족들이다.

가요는 우리 인민의 이 뜨거운 그리움의 정을 생활그대로 《다심한 그 정에 마음이 끌려 목메여 우러르는분》이라고 눈물겹도록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그리는 우리 인민의 그 절절한 정을 노래하는데서 한발자욱 더 깊숙이 생활속으로 들어간 가사의 혁신이 있다.

가요 《운명도 미래도 말긴분》을 일관하고있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흠모와 충정의 정은 특히 가요의 후렴구에서 절정을 이루고있다.

위대한 수령에 대한 송찬의 열정이 충정의 열정으로 승화되는것은 서정발전의 필연성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 인민이 생활로 체험하고 신념으로 체득한 생활의 진실이며 력사의 합법칙성이기도 하다.

우리 인민은 혁명의 원리를 알기 전에 수령의 위대성에 매혹되어 스스로 혁명의 길에 나선 인민이며 수령을 따르는 혁명의 이 한길에서 대를 이어 변심을 모르는 일편단심의 인민이다.

참으로 가요 《운명도 미래도 말긴분》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가장 숭고한 감정과 다함없는 그리움의 정으로 격조높이 노래하고 그 전편을 뜨거운 전인민적충정의 정으로 일관시킴으로써 혁명송가의 품격을 훌륭히 갖춘 송가이다.

가사문학을 훌륭히 안받침하고있는 가요 《운명도 미래도 말긴분》의 선물은 대중가요와도 같이 매우 유순하고 순탄하며 꾸밈이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있는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선물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생명처럼 간직되어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충정의 정을 내재적으로 잘 표현하고있으며 정서의 통일성을 음악적으로 담보하고있다.

그리고 매개 절의 전렴 두소절의 첫시작과 전렴

의 마지막소절과 후렴의 마지막소절에서의 선물의 반복은 가요에 일관하고있는 이 감정을 더욱 강조해주고있다.

가요에서는 이러한 선물이 3개의 절에서 반복되면서 통속성과 인민성을 보장하고있을뿐아니라 수령송가로서의 품격을 훌륭히 담보하고있다.

가요 《운명도 미래도 말긴분》은 매개 절의 서정구조가 전형성과 완결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가요에서는 어디까지나 절이 형상의 기본단위로 되고있으며 매개 절은 같은 서정구조를 가지고있다.

가요 《운명도 미래도 말긴분》은 3개의 절에서 똑같이 반복되면서 정형적특성을 가지고있다. 다시 말하여 가사 1절의 시문장형식이 2절과 3절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가요의 절구성에서 전형적인 서정구조라고 할수 있다.

가요 《운명도 미래도 말긴분》은 분절의 구성방식에서도 절가화의 요구를 잘 구현하고있다.

가요는 절가의 전통적인 분절구성방식에서 가장 전형적형식인 3분절의 립체적구성에 매 절마다 같은 후렴이 있는 구성방식을 취함으로써 최소한의 분절수로 최대한의 형상폭과 깊이를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3절로 된 가요의 분절구성에서 1절과 2절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노래하는 형상마당으로 되고있다면 3절은 립체적인 분절구성을 결속지으면서 원수님에 대한 시인과 인민대중의 충정의 열정을 가장 뜨겁게 폭발시키고있다.

그 이름 부르면 신심넘치고
그 자욱 따르면 승리떨치네
백두의 혈통을 만대에 이어
조선을 빛내시는분

보는바와 같이 가요의 3절은 송가의 송축의 감정을 최절정으로 승화시키면서 인민들을 충정의 한길로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리고 매개 절의 마지막에 반복되고있는 후렴구는 절의 서정적형상을 최종적으로 결속지으면서 시인의 사상감정과 인민대중의 충정의 감정을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격조높이 구가하는 서정발전의 절정을 이루고있다.

가요 《운명도 미래도 말긴분》이 시대의 훌륭한 송가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평범하면서도 인민적이고 개성적인 시어구사이다.

우선 간결명료한 시어속에 깊은 뜻을 함축하고있는데서 잘 표현되고있다.

명문장, 명표현의 기본표징은 뜻이 깊은데 있다.

이미 강조한바와 같이 가요 1절의 전렴 두번째 소절에서 《다심한 그 정에 마음이 끌려 목메여 우러르는분》이라는 언어표현에는 2개의 시행속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성이 함축집약되어 있다.

수령의 위대성에는 정녕 그 한계가 없다.

하나 그 만가지 위대성중에 우리 인민이 가장 사랑하고 흠모해마지 않는 원수님의 위대성은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절대시하시며 모든것을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인민에 의거하여 실현해나가는 숭고한 인덕의 위대성이라 해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진정 우리 인민을 정을 다해, 사랑을 다해 아끼고 보살펴주시며 그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시는 인간사랑, 인민사랑, 인덕의 최고화신이시다.

하어 우리 인민은 그 사랑, 그 믿음, 그 은정에 스스로 마음이 끌려 목메여 그리며 우러러 따르는것이다.

그러한것은 우리 인민을 생사를 같이할 제일 동지로, 전우로 부르고 믿어주시며 혁명의 먼길을 함께 가자고 손잡아 이끄시는분이라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노래한 가요의 2절에서도 잘 형상되고있다.

가요의 언어구사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송축적인 정서적색갈이 매우 풍부하고 선명한것이다.

그러한것은 가요전반을 두고도 말할수 있지만 특히는 가요의 제명이 명시했듯이 그 후렴에서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 다 말긴 **김정은**동지》라고 격정을 터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에게는 공기를 마시고 해빛을 받아안듯 너무도 익숙되어있지만 사실상 인민이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다 맡길수 있는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뿐이다.

우리 인민처럼 자기의 운명도 미래도 수령께 다 맡기고 영원한 미래와 최후승리를 확신에 넘쳐 믿고사는 행복한 인민, 긍지높은 인민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는것인가!

가요의 언어구사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알기 쉽고 부르기 쉽게 쓴것이다.

대중가요와도 같이 통속적이라고 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요에는 우리 인민이 일상생활에서 습관되지 않은 언어표현이란 사실상 단 한마디도 없다.

가요는 우리 인민에게 친숙한 고유조선훈말을 구색에 맞게 잘 살려씀으로써 우리 인민의 시대적인 사상감정과 민족적정서에 맞고 부르기 쉽게 시어를 통속적으로 쓰고있다.

참으로 가요 《운명도 미래도 말긴분》은 그 사상적내용의 심오성과 높은 형상성으로 하여 불세출의 천하제일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또 한편의 훌륭한 송가로 된다.

우리 인민은 이 위대한 태양의 노래를 소리높이 부르며 조국통일대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될것이다.

하늘에 닿은 인민의 환희여

허 수 산

우리의 기쁨

새로운 주체100년대 첫해 마감달이었다
날씨도 유난한 12월 12일
산천은 그전날 내린 눈이불 덮고
밝은 해빛에 더욱 눈부신데

정오의 산천에 울려 퍼진 소식이며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우주궤도에 진입 완전성공!

너무도 뜻밖의 놀라운 소식에
흰눈 무겁게 이고있던 나무들도
축하의 꽃보라인양 눈송이 뿌려주고
거리를 오가던 사람들 걸음 멈추고 만세를 부르며
서로 얼싸안고 춤바다 펼치었다

얼마나 바라고 고대하던 소식이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
《광명성-2》호 발사때에도
우리의 기쁨은 컸건만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소식은
너무나 가슴벅찬 소식이었다

하많은 사연안고
우리 인민에게 준 소식이였기에
어찌 오늘의 기쁨

하늘땅에 차넘치지 않으랴

우리 다 몰랐다
인민의 마음 먼저 헤아리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인민에게 어서 큰 기쁨 안겨주자고
걸고걸으신 멀고먼 그 길을

기어이 성공의 날 가져오시려고
우리 장군님 바치신 천만로고
우리 원수님 인공지구발사장을 찾으시여
인공지구위성운반로켓동체를 살펴보시며
그처럼 간곡한 소원을 다 담으신줄

지혜롭고 용감한 우리 과학자들에게
기어이 천백배의 힘 안겨주시여
오늘의 대경사를 안아오신 거룩한 령도의 손길
오늘의 승리에 있음을
아, 눈물겹게 심장에 새기는 격동의 순간이여!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의 마음담아 드리는 충정의 보고!
그러기에 오늘의 기쁨 이렇듯 큰것이고
이렇듯 값지고 눈부신게 아니냐!

그것 없인 못살아

온 강산은 더 밝아진듯
온 나라는 날마다 명절
서로 마주서면 웃음이 절로 나고
만나면 인공지구위성이야기로
출근길도 퇴근길도 즐거웠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자지 않아도 좋았다

아, 감동어린 이 모습에서
우리 인민이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간절히 기대하는가를
내 너무도 똑똑히 알았나니

우리에게는 아직 넉넉치 못한것이 있다
전기도 쌀도
허나 인민은 하나 타하지 않고
오로지 나라일만 잘되기를 바랐고

잘되는 나라일에
자신의 행복도 영예도 있기에

자그마한 사심도 없이
조국앞에 무한한 헌신만을 바치나니

좀 어렵더라도
나라의 국력
민족의 존엄
만방에 떨침을
자신의 생활과 행복의 전부로 안고사는 인민
아, 목숨보다 재부보다 귀중한

조국의 영예 민족의 존엄
이것 없이는 못살아
이것 없이는 배불러도 못살아
이렇듯 기쁨은 큰것이다

5천년민족사의 경사로운 날이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
그들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온 세계에 똑똑히 보여준 날이여!

그대들은 누구더냐

텔레비죤화면에서
그대들의 첫 모습 볼 때나
온 수도의 환영속에
즐거운 견학의 나날 보내는 모습 볼 때나
얼핏 지나가는 버스차창에 비친
그대들의 모습 볼 때나

가슴속 갈마드는 생각이 있었다
파연 그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원수님 영웅중의 영웅이라
온 세상에 내세워준 그대들을
더 잘 알고 다 만나보고싶었다

때로는 아이들같은 엉뚱한 생각
그 장한 모습들은
리수복영웅의 모습일가
혹은 두툼한 안경을 낀
원사들일가 로박사들일가

기이하고 신비롭게 생각되던 그대들
직접 만나 꽃다발을 주고보니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
모습도 옷차림도 말씨도
그대들은 우주로 정복하였지만
환영과 초청엔 초행길인듯

너무도 겸손한 그 태도
그저 고맙습니다 말밖에 모르며

어쩔줄 몰라하는 순진함

다 내 스승같고
다 내 아들 제자들 같아
단번에 정이 통하고
어데선가 본것만 같은
오랜 친지들같구나

허나 내 그 모습들에서 받은 충동
거의 모두가 머리가 새까만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이라는것
번쩍이는 그 눈빛
그 눈빛에서 뿜어나오는 예지와 강의함
그것이 그대들을 위훈자로 만든듯싶구나

아, 5천년민족사에 대경사를 안아온
재사중의 재사들
영웅중의 영웅들
어제날 로동자 농민의 자식들이고
주체의 교정에서 지혜를 닦은 사람들

애국의 세계란 무엇이며
슬기는 어떻게 빛내야 하는가를
애국의 별 존엄의 별 슬기의 별
《광명성》위성으로 온 세상에 보여준
우주과학자 그대들은 이 나라의 애국자
평범한 보통공민들이었구나

홍겨운 명절의 나날이었다

영웅중 영웅 그대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초청받고
평양에 와 지낸 나날은
평양시민 우리들도
날마다 홍겨운 경사의 나날들이었다

아름다운 처녀들은
더 곱게 단장하고
그대들앞에 나서고싶어했다
서로 초면이면서도
서로 구면이 되고

서로 형제가 되고싶었다
같이 이야기하고싶어하고
손이라도 잡아보고싶었다
노래도 함께 부르고
저저마다 자기 집으로
귀한 손님으로 초청하고싶었다

참으로 그대들은
나라앞에 큰일을 한 사람들
나라의 보배중의 보배는
과학자 기술자 그대들임을
모두 가슴에 똑똑히 새겼나니

그렇게도 큰 공을 세우고도
그리도 겸손한 사람들
그 가슴들에 금별을 달아준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은혜에

수도 평양이 더 환해지었다
평양시민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이 목메이였다

참으로 평양시민들은
그대들과 한집안식구 되었다
한집안식구 되어 함께 웃으며
우리는 한마음한뜻이 되었다
그대들처럼 영광속에 살고싶어
자신을 그대들곁에 세워보는 나날이었다

아, 가지 말아다오 평양초청의 날이어
날마다 흥성이는 명절로 보낸
뜻깊은 나날을 전하여다오
애국자 승리자들이 쇠는 명절이
어떤것인가를 보여다오
우리는 늘 이렇게 살고싶구나

인민야외빙상장 얼음판우에서

이제는 스케트를 타본지
퍼그나 오랜 일
그러나 그대들은 어린시절 그날처럼
와— 소리치며
얼음판에 뛰어들었다

어찌 뜻대로 달릴수 있으랴
그러나 그대들은 넘어지면서도
일어나 달리고달리었다

허나 얼음판에 넘어져도
그대로 누워 환히 웃는 모습도 있다
어린시절처럼
만시름 잊고 환히 웃는 모습들!

탓하지 않는다
그대들 오늘은 만시름 놓고
어린시절 그때처럼 웃고웃으랴
고향의 푸른 하늘 쳐다보며
큰 꿈 꾸던 그 어린시절처럼

그날처럼 해빛 한가득 안고
푸른 하늘 쳐다보랴
한생 하늘에 리상의 나래 펼치고
우주를 정복하는 격전을
힘차게 벌려온 그대들 아니냐

저 푸른 하늘이다
어린시절 그대들의 꿈을 키워주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고 지혜를 준것이
조국의 저 푸른 하늘이다

오늘은
푸른 하늘이 그대들의것이 되었다
우주를 정복한 사람들
오늘은 평양의 하늘을
한껏 가슴에 안고 눈동자에 새기랴

오늘은 평양의 하늘도
그대들을 우주정복자들과라고 축복해주는가
얼음판은 눈부시고 해빛은 찬란하다
오늘은 나라의 영웅으로
더 큰 꿈을 꾸어라
《광명성》은하를 우주가득 펼칠...

스케트를 타는 사람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더 즐겁다
온 평양이 더 젊어지고
더 큰 기쁨을 앞에 두고
크게 웃고 떠들던 인민야외빙상장의 하루여!

환 송

그대들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국의 대표단 아니어도
당과 정부의 책임일군들
그리고 평양시민들 아니 온 나라가
그대들을 바래우러 연도에 나섰다

잘 가시라 또 만납시다
겨울의 창공에 가득찬 목소리
같이 있는 기간은
얼마 안되었어도
혈육처럼 가까워진 기간
헤어짐이 아쉬워 두볼엔 눈물이 흐르누나

그대들을 한번 더 보자고
꽃다발 흔들며
빠스를 따라달리는
저 아이들과 어른들!

무엇이 초면이던 그대들과
이렇듯 한집안식구보다
더 가까워지게 하였느냐
아,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우주에 꽃피우시려 경애하는 원수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우주에 올려
대원수님들께 기쁘드린
그 마음 뜨거워서가 아니냐
그 마음 고마워서가 아니냐

그렇다! 승리 위대한 승리가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해 마련된 승리가
너무도 소중한고 빛나
온 나라 인민들을
한식술로 만들었구나

아, 이제 그대들과 언제 다시 만날가
그대들이 더 큰 승리를 마련할 때
평양의 기쁨 얼마나 클가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온 나라 온 평양사람들은
그대들을 기다린다
그 기쁨 함께 나눌 그날을 기다린다
하늘에 닿은 인민의 환희 더 위대한 승리 불러
오리!

가 사

병사의 통일엽서

리 명 옥

별많은 전호가의 밤 고향을 그리릴 때면
어머니의 그 당부 애국의 피를 꿰이네
기다리시라 어머니시여 병사의 소식을
다도해기슭에서 이 아들은 통일엽서 보내리
아 병사는 조국통일로 애국을 말하리

분렬된 조국의 지도 아프게 그리던
어린시절 그날의 상처는 아물지 않네
기다리시라 선생님이시여 병사의 소식을
다도해기슭에서 이 제자는 통일엽서 보내리
아 병사는 조국통일로 애국을 말하리

통일된 조국강산에 《애국가》 울릴 때
이 병사의 두볼에 눈물은 뜨거우리
기다리시라 나의 조국이며 병사의 소식을
다도해기슭에서 최후승리 전승보고 올리리
아 병사는 조국통일로 애국을 말하리

가 사

청춘의 위훈 조국은 자랑하리

리 동 일

푸른 꿈을 안고온 개척지에서
보람넘친 청춘의 땀 바쳐간다네
원수님부름따라 넓은 풀판 펼쳐가는
청춘의 그 위훈 조국은 자랑하리

불길처럼 타오르는 우리 열정에
비바람도 눈바람도 봄바람되리
원수님부름따라 새 기적을 펼쳐가는
청춘의 그 위훈 조국은 자랑하리

우리들이 새겨가는 그 자욱우에
이름없던 새 등판에 락원솟우리
원수님부름따라 밝은 미래 앞당기는
청춘의 그 위훈 조국은 자랑하리

사랑을 말하고있다 외 1편

성 연 일

《마식령속도》의 열풍속에
이삭이 솟구는 8월의 논벌에서
저들은 다만 돌피만을 잡는것이 아니다
포전머리에 더미더미 쌓여지는 풀단들
그 또한 풀더미만을 쌓는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드넓은 농장벌에서
시인의 높뛰는 심장으로
저들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를 듣고있다
해종일 뜨거운 해벌속에서
농칠세라 돌피를 뽑아가는 그 정성으로
팡팡 풀더미를 밟으며 쌓아가는 그 땀으로
저들은 그렇게
이 땅에 바치는 사랑을 말하고있다

원썬들의 《제재》 《봉쇄》 책동에 맞서
온 나라가 불사신되어 일떠선 지금
쌀때문에 마음속 고생도 있고
쌀때문에 남모르는 아픔도 있건만
오늘에 허리띠를 조일지라도
나라의 쌀독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어제런듯 들려온다
불어치는 눈보라도 웃음으로 태우며
거름더미 쌓아가던 그 겨울의 발걸음소리가
낮에도 밤에도 모판을 뜯새없이
푸른 싹을 가꿔가던 봄날의 노래소리가

그리고 또 보여온다
모내기를 제철에 끝내자고
농장벌의 어둠을 태워가던 그밤의 해불이
폭우에 눈물이 불어날 때
한밤중에도 별로 달려가던 그 모습이

아, 자나깨나 경애하는 원수님께
쌀로써 기쁨드릴 열망으로 불타는 마음
그 마음들이 하나같이 오늘의 농장벌을
사회주의수호의 결전장으로 정했기에
쌀을 위한 저들의 애국헌신의 사랑은
저렇듯 샘처럼 솟구치는것 아니던가

그렇다 오늘날
쌀은 곧 사랑이다
조국을 받드는 그지없는 사랑이다
이 땅에 나래치는 《마식령속도》로
이 땅을 안아올리는 힘
이 땅을 빛내가는 마음은
농장벌의 주인 그 사랑을 말하고있다

사랑이라도 피로써 조국을 지켜싸운
전화의 날 용사들의 그 사랑으로
사랑이라도 위성발사와 지하핵시험성공으로
내 조국을 떨친 과학자들의 그 사랑으로
이 땅을 가꿔가는 그 미더운 모습앞에
나의 노래여 너는 너무도 무색하구나!

딸의 모습을 보며

내 딸이 거울앞에서
옷맵시를 보고있네
화려한 치마저고리를 차려입고서
앞모습 뒤모습 거울에 비추어보네

청년절을 경축하는 무도회장엔
춤을 추러 간다고 서두르는 내 딸
흐뭇이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눈에
그 모습 활짝 피어난 꽃송이만 같네

곱구나 내 딸아
어서 동무들과 무도장에 가거라
직기사이를 누벼가는 준마치녀되어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낸 자랑을 안고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을 떨치며
핵폭탄과도 같은 그 기상을 떨치며
위훈을 수놓아온 너희들이 있기에
조국은 더욱 강대해지는거란다

어서 가거라 무도회장으로
장군님품속에서 자란 행복한 청춘
경애하는 원수님 높이 모셔 꽃피는 청춘
그 자랑 한껏 경축무도장에 펼치거라

아버지의 이 마음 아는지 모르는지
딸은 여전히 옷맵시를 살피고있네
이렇듯 조국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나서고 싶어

진주보석

배경휘

생활속에는 보석알갱이들이 무수하지만 그것들을 모으고모아서 진주보석의 세공품으로 빚는 일은 쉽지 않다. 그 진주보석이란것이 쉽게 눈에 띄이지 않으며 가공기술 또한 더욱 어렵기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실체험지에서 바로 그러한 보석알갱이들을 찾으려 애쓰며 미숙한 재간인지라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버럭인지 보석인지 모르고 쓸어모으기만 한다.

이 공장에선 기술혁신도 많이 하고 최고생산년도 수준을 편속 돌파하여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그러한 성과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지? 분명 여기에는 보석이 있는데 어느 것이 보석인지...

언젠가 큰물피해복구사업이 제기되어 기관, 기업소들에서 군에 나가 도와주게 되였다.

신의주마이싱공장에서 일정한 구간을 맡고 나가게 되였다.

동원나가는 인원들이 떠나기 전날 저녁이였다.

내가 마이싱직장사무실에 들어가니 직장에서 동원나가는 사람들을 책임진 눈이 부리부리한 노동자에게 녀성직장장이 지시를 주고있었다.

회계원이 그리 크지 않은 종이꾸레미 두개를 책상우에 내놓자 직장장은 그것을 가리키며 미안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조미료들이요. 많지는 못하지만 가지고가서 보태여 쓰세요.》

그리고는 일어서서 그 노동자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다음달에 용운이의 생일이 있어요. 9일, 잊지 말아요.》하고 직장장은 웃으며 작업복주머니에서 조그마한 봉투 두개를 꺼내여 내밀었다.

《그날 집에서처럼은 차려주지 못해도 생일을 함께 즐기도록 하세요. 변동무가 어련하겠지만...》하고 직장장은 다시 나직이 소리내여 웃었다.

《그리고 성일이가 속이 나쁜데 잘 봐주세요. 만약의 경우 이것으로 약을 구해 쓰도록 하세요. ... 그리고 변동무는 상한 허리를 주의하세요.》하고 근심스러운 눈길로 변동무를 쳐다보다가 다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어려운 일이 제기될 때마다 변동무를 보내게 되어 안됐지만 어쩔수 없군요.》

그때 직장장의 모습은 꼭 먼길 떠나는 자식을 배웅하는 어머니를 연상케 하였다. 가슴이 혼흔히 달아오는 속에 노동자들이 하던 말이 되살아왔다.

우리 직장장이 일을 내밀 때엔 무섭지만 인정이 뜨거워서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고 따르지 않을수 없다고 하던 말이.

자그마한 체구의 이 녀인에게 놀라운 조직력과 판단력, 창조적두뇌와 투지가 있다는것은 온 공장이 아는바이다. 무슨 문제나 예리하게 포착하고 끝까지 파고드는 그 기질은 일군으로서 필수불가결이고 절실한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중한것은 뜨겁고 폭넓은 인정의 세계가 아닐가싶다.

하긴 그 인정은 그에게만 고유한것이 아니였으니 이 공장의 일군들에게서 공통적인것이 바로 노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그 무엇이건 애써 풀어주는 것이며 일군들과 노동자들사이에 직무상관계를 뛰어넘은 인간적정이 흐르고있는것이다.

한 기술자가 하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언젠가 공장지배인이 기술자들과 함께 평양에 갔었다. 성에 회의가면서 동행한것이였다. 회의에 참가했다가 저녁에 러판으로 돌아올 때마다 지배인은 기술자들을 생각하여 꼭꼭 빵을 한구럭씩 들고 들어오곤 하였다.

그러다가 기술자들이 먼저 돌아오게 되었는데 떠나오기 전날 저녁 지배인은 그들에게 래일 떠날 때 자기가 만나지 못할수 있으니 잘 가라고 작별인사를 하고 그곳에 나와있던 공장 공급소일군에게 차표와 기타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보장해주라고 지시하였다.

다음날 기술자들이 아침에 깨여보니 지배인은 이미 러판을 떠나고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역에 나가보니 지배인이 홈에서 기다리고있는것이 아닌가? 손에는 도중식사꾸레미를 한가득 들고... 이미 작별인사를 한 뒤였고 그들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다 세워주었건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나온 지배인앞에서 기술자들은 뜨거워오는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

기술자들은 그 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하였다. 지배인의 그 마음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심정을 연상케 하는것이어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여기에선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을수 있다.
나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초급당비서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하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들어보면
파연 훌륭한 일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장사람들이 자기네 일군에 대해 깊은 애착과
궁지를 가지고 말하는것을 들으며 나는 생각이 깊
어졌다. 이 공장에서 4년째 계속 최고생산년도수
준을 돌파하며 일이 잘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
지 않을까?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하나로 융합된 마음! 이것
이 이 공장이 안고있는 가장 큰 보석이 아닐까?

이 공장이라고 다른데보다 원료와 자재, 설비 등
조건이 잘 보장되어서 그렇듯 놀라운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다. 사실 오늘의 실정에서 애로되는것이
적지 않았다.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봉쇄와 고
립압살책동,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우리 인민이 겪
는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인가?

그렇지만 이 공장의 노동계급은 그 모든 난관앞
에 굴하지 않고 뚫고나아갔다. 거기에서 힘으로 된
것은 정으로 엮힌 의리였다. 일군들은 노동자들을
혈육처럼 여기었고 노동자들은 그 정에 보답하고자
쓰러지면서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마이싱직장의 한 노동자는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
을 받고도 이제 석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을 집에
서 보내면 뭘 하겠는가. 그동안 직장에 나와 일하
겠다고 하며 아픔을 무릅쓰고 현장에 나와 일하다
가 마지막숨을 거두었다.

바로 이런 마음들이 무엇보다 귀중한것이 아닐

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귀중히 간직하고 대를 이
어 넘겨주어야 할 **김정일**애국주의의 자그마한 싹
들이 아닐가?

제국주의자들이 그토록 우리를 고립압살하려고
발악하였지만 우리가 핵보유국이 되고 당당한 우주
강국의 대렬에 들어선것은 바로 이런 마음들이 합
쳐져 폭발된 위력이 아니겠는가.

정과 정으로 엮혀진 마음들. 분명 이것이 세인
을 경탄시키고있는 이 나라의 진귀한 보석들이라
고 생각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것도 바로 온 사
회에 넘치는 천만군민의 이러한 정과 정의 결합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 힘보다 더 위력한것이 이 세상에 없
기에, 바로 이 힘으로 비록 령토와 인구는 작아
도 우리가 당당히 세계의 강국위치에 올라설수 있
기에.

오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바로 이 천만군민
의 대단결의 힘으로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
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고 뜨겁게 호소하신다.

작가인 나는 나의 사명감을 더욱 무겁게 느낀다.
그리고 현실속에서 찾아낸 그 보석알갱이들을 어떻
게 빛고 어떻게 다듬어야 누구나 눈을 떼지 못할
세공품이 될는지 그 방도를 찾고저 모색하고있다.
아직은 명백치 않으나 꼭 그 방도를 찾으려다. 그
보석들을 더 아름답게 빛내어주고 만사람이 그 빛
을 보게 해주는것이 나의 의무이기에.

유 레

영 용 호 결

지식과 재능, 무술에 뛰어나고 용맹한 사람
을 《영웅호결》이라고 하여왔다. 옛말에 이르
기를 호결은 되기 쉬워도 영웅이 되기는 어렵
다고 하였다.

100명을 당하는 사람을 호라고 하였고 10명을
당해내는 사람을 결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지략
으로 1만명을 당해내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였
다. 역사를 보면 대장부도 많고 호결도 많지만
영웅은 드물었다.

원래 《영웅》이라는 말은 그리스신화, 전설
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리스의 신화와 전설들가운데는 전지전능한
신들만이 나오는것이 있는가 하면 신과 사람이
함께 나오는것도 있다.

또한 사람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한 반인
반신의 주인공들이 나오는 신화, 전설들도
있다.

이런 반인반신의 주인공들가운데는 사람들에
게 유익한 일을 하는 주인공들이 있었는데 사람
들은 그들을 영웅이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영웅이란 보통사람은 될수
없고 비범하고 특출한 기질을 가진 사람만이 영
웅으로 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함께 영웅이라는 개념
은 달라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
민을 위한 길에서 자신의 한몸 다 바쳐 싸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영웅으로 되고있다.



푸른 계절

리 명
그림 김광석

태양은 서쪽으로 퍼그나 기울었으나 역구내너머 버들잎새들은 무더위에 짓눌려 휘주근히 처져있었다. 그쪽에서 겨금내기로 울어대는 매미의 야무진 소리가 귀청을 따갑게 꿰지르며 살속까지 파고든다.

급행렬차의 차창결에 자리잡은 나는 얼굴과 가슴 노리를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손수건으로 훔치며 발차신호가 내리기만을 기다리었다. 이런 날 여행은 실로 마땅치 않다. 내가 나서자란 고향도시의 어느 한 고등중학교에서 보내온 편지가 아니라면 아마 이 여행을 마다했을지도 모르겠다. 그 학교에서는 다가오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을 맞으며 전쟁참가자이며 영예군인인 나와 의 상봉모임을 희망한다는 기별을 보내어왔다. 나는 이틀간의 말미를 받아 떠난 걸음이었는데 이다지도 숨막히는 더위에 부대길줄은 몰랐다.

렬차승강대로 다양한 꽃문양의 달린옷을 입은 네댓명의 처녀들이 떠들썩하며 올랐다. 그들은 해수욕장에서 곧바로 오는 모양인지 머리카락들이 한결같이 젖어있어 자못 생기발랄하고 싱싱해보였다.

처녀들이 자리를 잡자 마침내 렬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나는 차창으로 흘러드는 미적지근한 바람에 땀을 들이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버들숲너머로는 탑식고층건물의 옷설미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그우로 부엌게 색이 바랜 하늘이 희끗거리어었다.

《이거 무슨 놀음에나 정신을 팔아야지... 견디기가 가쁘구만요.》

내 앞의자에 앉아 부들부채로 더위를 쫓던 길손이 골살을 찌프리며 말을 건넸다. 그는 손집대우

에 올려놓은 가방안에서 휴대용록음기를 꺼내어 창탁우에 올려놓았다. 도지방산업총국에서 수출입담당부원(나는 그의 이름은 알지 못하고있다.)을 한다는 이 길손으로 말하면 우리 영예군인공장과 잇닿아있는 바다가휴양소에서 휴양을 마치고 귀가하는 차손님이였다. 40대의 중년치고는 주름살 하나없이 윤기도는 매끈매끈한 얼굴에 보기 좋은 군력이 저있었다. 그는 하르르한 연록색의 와이샤쓰우에 연한 과일향기가 흐르는 백설같이 하얀 제끼깃양복을 걸치였는데 더위에 도전이라도 하듯이 실한 목에 조여맨 물결무늬넥타이가 단정히 드리워있었다. 게다가 수정안경을 끼고있어 어딘가 준수하고 문화적인 인품을 질게 하였다. 그는 록음기를 틀어놓았다. 차안에는 서느러운 해풍을 몰아오듯 《바다의 노래》선율이 흥겹게 물결치기 시작하였다. 나는 흰 갈매기가 날으는 푸른 물결에 몸을 떠실으려고 귀를 기울이였다. 그런데 불현듯 렬차원의 성난 소리가 뒤흔들어놓았다.

《손님, 정신있어요. 어찌자고 달리는 렬차에 달리나 말이에요!》

손님칸으로 들어서던 웬 젊은이가 단발머리렬차원한테 걸리어 멈춰섰다.

《안됐소. 이 렬찰 놓치면 안되겠기에...》

《좋아요. 손님은 다음역에서 내려야겠어요.》

《다음역이라니? 난 좀 더 가야 하오.》

젊은이는 규정을 어긴 사람답지 않게 통명스레 말하고는 땀발이 퍼지며 구리빛으로 번들거리는 버그러진 앞가슴을 회색모자로 활활 부치며 씨물씨물 웃었다.

《나한테는 지금 바쁜 일이 생겨 그러오. 시간이 없거던. 참 시간이란 제일 흔하면서도 인정사정이 없다니깐. 허...》

젊은이의 거동을 묵묵히 지켜보던 부원이 록음을 끄며 무게있게 입을 열었다.

《동무, 어린 렬차원앞에서 부끄럽지 않소?》

단발머리렬차원을 상대로 너스레를 떨려던 젊은이는 돌덩이처럼 날아든 이 타격으로 하여 한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약간 우로 쳐들린 눈꼬리가 부르르 떨며 찌르는듯 한 눈총이 이쪽으로 날아왔다. 허지만 그것은 다만 한순간이었을뿐 그는 말없이 어깨를 으쓱하며 입언저리에 비웃음을 그었다. 공기가 약간 팽팽히 죄어들었다.

《손님, 차표를 확인합시다.》

젊은이는 렬차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잠시 얼머름해있다가 차표를 보일념을 앓고 시무룩이 웃으며 여전히 얼굴의 땀만 흘치였다.

《동무, 렬차원이 지금 동무한테 차표를 요구하지 않소?》

부원이 하얀 손가락끝으로 안경을 추슬러올리며 점잖게 젊은이를 궁지에 몰아갔다. 젊은이는 그제야 필쩍 놀라며 뇌이었다.

《아, 차표요?... 차표를 끊을 시간이 없었소. 급히 전보를 받고 오르다나니... 값을 치르면 안되겠소?》

《려객전무한테 가지사요.》

단발머리렬차원이 갈끔한 자세를 조금도 흐트리지 않자 젊은이는 대번에 풀이 죽었다. 그는 공손히 렬차원을 따라 나들문밖으로 사라졌다. 부원은 입이 쓰거운지 더 말하지 않았다. 나 역시 젊은이한테 동정이 가지 않았다. 간혹 불민하고 무례한 젊은이들과 맞다들 때면 눈이 시리고 가슴속에서 불덩이같은 의분이 북받쳐 그들의 장래를 두고 걱정할 때가 없지 않다.

우리의 젊은 시절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저 젊은이보다도 어린 나이에 공민이 지켜야 할 의무를 삶과 죽음이 오락가락하던 준엄한 전쟁의 환경속에서 익히고 때로는 피로써 지켰었다. 가슴에 끓는 젊음, 그 발랄한 기분과 정력을 시대와 일치시켰고 그 길에서 생의 참뜻을 느꼈었다. 나는 웬일인지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해져 무거운 상념에 잠겨들었다.

(젊은이, 우리는 동무보다 어린 나이에 총포탄이 쏟아져내리는 격전장에서 피를 흘리며 조국을 안고 몸부림쳤댔어... 그래, 그보다 어린 나이가구말

구... 숨막히던 포연, 포탄이 뿔적마다 땅이 떨리고 초목이랑 바위랑 마시는 공기마저도 다 타버리는것 같았지. 흙비가 쏟아져 입안에서는 뜨거운 불모래가 버적버적 씹히기도 하고... 참 많은 청춘들이 이 땅에다 피를 뿌리며 떠나갔지...)

나의 눈앞에는 세월의 이끼에 덮이여 이름마저도 희미해진 전우들의 얼굴이 얼핏얼핏 지나갔다. 그런데 유독 한 얼굴만이 뚜렷한 모습으로 떠오른다. 불타는 나무와 바위츠령을 깃부서뜨리며 달려드는 무한궤도를 맞받아 피흐르는 입에 반땅크수류탄을 물고 비칠비칠 다가가던 젊은이, 그는 나의 옛 분대장이였다.

나는 바로 그 분대장의 영웅적위훈을 학생들에게 말하고싶어 렬차에 몸을 실었었다. 상봉모임을 바라는 그들의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 나는 전쟁기간 별로 세운 공로도 없어 어지간히 당황했으나 나의 옛 분대장의 위훈이 떠올라 자신심이 생겼던것이다. 그런데 나를 번거롭게 하는것은 학생들에게 그가 단순히 희생으로써 조국의 고지를 사수하던 이야기만을 전하면 무엇이 남을가 하는 의문이였다. 그저 일곱차례의 전투, 땅크를 동반한 반격, 부상당한 몸, 입에 문 수류탄...

나는 상념을 더 이어갈수 없었다. 불시에 왼쪽발등이 밟히우는 감각과 함께 의족으로 련결된 절개한 부위에서 생살이 비틀리어 찢기는듯 한 날카로운 아픔을 느꼈다. 나는 외마디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성한 다리를 번디디여 몸을 반쯤 일으켜 세웠다. 렬차원한테 단속되였던 젊은이가 분주살스레 다가오다 나의 온전치 못한 다리를 건드려놓았던것이다.

《동문 끝내 재구를 치는구만. 영예군인도 못 알아보다니...》

부원은 나의 가슴에 달린 영예군인휘장을 넘겨다보며 나에 대한 필요이상의 레의로 젊은이를 질책하였다.

《실례했습니다. 참...미안하게 됐습니다.》

젊은이는 회색모자를 주물럭거리며 연신 사죄하듯 고개를 숙였다. 나는 전신에 퍼지는 뼈근한 아픔으로 미간을 찌프리며 젊은이를 마뜩지 않게 보았다. 지혜롭게 반짝이는 눈빛과 진한 눈섭만 없다면 코허리가 약간 살아오르고 흠채기가 편편한 인중,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둥스한 볼편들로 선들이 명백치 못한 인상을 주었다.

나는 눈을 지그시 감고 아픔과 함께 일어번지는

노여움을 삭이였다. 그런데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젊은이는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은 몸가짐으로 더운 날 일단 살에 붙으면 더욱 끈적끈적 달라붙는 송진처럼 우리 의자쪽으로 한발 더 다가섰다.

《주폐 없습니까. 날도 무더운데 한판 쳐보지 않겠습니까?》

《?!...》

나와 부원은 똑같이 아연해지고말았다. 그러나 젊은이의 눈빛에서 악도 고민거리도 없는 천품이 엿보여 내심 허허 웃고말았다. 부원도 어처구니없는지 허거픈 미소를 입귀에 굶다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대우에 놓인 가방에 손을 넣었다. 그도 더위를 잊고싶던지라 젊은이의 요구를 들어줄 모양이였다. 그런데 주폐를 꺼내던 그의 가방이 기울어지면서 굳고 뚝뚝한 물건짝들이 나와 젊은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마구 쏟아져내렸다. 뜻밖에 우리 고장 바다가휴양소의 명물인 갯가지 조가비들과 참새깍질들이였다.

《아, 조가비들이군요!》

젊은이가 눈빛이 밝아져 탄성을 올렸다. 부원의 시허연 낮빛은 대뜸 불그레 상기되어 자못 미안쩍어하였다.

(허, 이 사람 욕심스레 잔뜩 꽂겨넣었는걸.)

나는 내심 감복하며 그를 도와 바닥에 흩어진 조가비들을 가방안에 주어넣었다. 젊은이도 거들었다. 하긴 운치로운 동해북변의 외진 바다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우리 고장 휴양소에 와 이런 희귀한 천연기념물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추억하겠는가. 우리 고장 휴양소가 전국에 유명차하게 인기를 끌게 된것도 실은 이 다양하고 풍만한 해산물때문이었다.

싱그러운 해풍에 몸을 맡긴채 은구슬로 부서지는 물속에 장판지를 잠그고 너럭바위나 금모래불에 앉아 섭이며 조가비살을 따내고 거기다 노란 성게알을 터뜨려 끓인 어죽을 길죽한 섹잡대기숟가락으로 떠서 훌훌 불며 넘기는 맛이야말로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별미였다. 한번 맛들인 섹죽에 혀가 녹아버린 고객들과 휴양객들은 두고두고 잊지 못하여 이 명물깍대기들을 기념으로 견어안고 돌아가곤 하였다.

《부원동문 갯가지를 다 챙겨넣었구만요. 하긴 이런 깍질로 공예품 같은것을 만들어놓으면 집의 애들과 아주머니랑 희한해할거우다.》

나는 흡족한 기분에 잡혀 우리 고장 휴양소를 부

디 잊지 말라는 은근한 속심을 비치였다. 그러나 부원의 윤기흐르는 얼굴에는 마가울의 옅고 쓸쓸한 별같은 어설픈 미소가 스치였다. 그는 주폐목을 창탁우에 놓고 발가우리한 랑손바닥에 조가비와 섹잡대기를 쳐들었다.

《물론 기념으로 될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한테 이런 깍질보다도 속살이 필요해서 그렇니다.... 국제시장에 내가면 이런 조개살이나 성게알들에 대한 수요가 이만저만 아니지요. 공해가 없는 우리 바다 물산에 대한 인기는 대단하니까요. 그래서 무더운 날씨에 갖고다니기 불편하여 이렇게 여러 종류의 깍질만 가져다 의논해보려구...》

나는 잠시 할말을 잊고 그를 뵈히 쳐다보기만 하였다. 그때 잠자코 듣고있던 젊은이가 주먹으로 제 허벅다리를 철썩 치며 수궁해나섰다.

《참 멋있는 구상이군요. 조개나 성게양식을 대대적으로 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원은 부드러운 미소를 젊은이한테 보냈다. 그러나 그 조용히 피어나는 미소속에는 까닭모를 당황한 기색이 비껴있었다.

《양식도 차차 해야지, 당장은 곤란하지만. 하긴 거야... 우리 지방산업총국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니까.》

부원이 심상한 어조로 뇌이자 젊은이는 이내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굳어진 표정은 의혹과 실망, 비웃음으로 뒤번져지며 조소로 이지러지였다.

《바다가 결판이 나겠는걸.》

젊은이의 힐난은 무엇인가 분명치 못한것이 꿈을 거리는 나의 마음속 그늘을 한층 짙게 하였으나 부원은 못 들은척 하며 나를 상대하여 계속하였다.

《지금 우리 지방산업총국에서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자고 하니 이런파위들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우린 이렇게 돈을 깔고앉아있으면서도 돈을 모르고 살지요. 우리 일꾼들이 국가적립장에서 머리를 쓰면 이런 하찮은것도 나라에 얼마나 큰 보탬을 주겠습니까.》

해빛이 부원의 수정안경알에서 부서지며 희멸속한 그의 미모를 한순간 눈부시게 하였다. 나는 야릇한 무력감을 느끼였다. 그의 말처럼 너남없이 진정으로 나라일부터 먼저 걱정하고 머리를 쓴다면 무슨 일이나 당에서 의도하는대로 풀려나갈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젊은이의 주장처럼 양식을 하지 않고 팔아버리기만 한다면 바다는 생명을 잃게 되지 않는가. 그러면 휴양객들은 또 얼마나 서운해

할것인가.

《참, 그 이름난 휴양소인기도 이제 다 굴렀군요.》

또 젊은이가 꺼들자 부원은 그한테로 돌아섰다. 그는 사려깊게 충분히 이해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였다.

《아쉬운 일이지. 하지만 어찌겠나. 항용 큰것을 위해서는 작은 희생이 있기마련인걸, 전체의 리익을 위해서 말이지.》

부원은 《전체》라는 의미를 강조하듯 억양을 높였다. 그는 자기 표현에 만족을 느껴서인지 어조와 몸가짐은 상냥하면서도 확신에 넘쳐있었다. 젊은이의 입귀가 다시 실그러졌다.

《그렇지만 양식전망도 없이 일판을 벌리면 나라의 자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즐거운 휴식은 또...》

《그만하오. 동무가 뭘 안다고 참견이요?》

《야단이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뭐요?》

부원은 그답지 않게 신경질적으로 젊은이의 말허리를 꺾어버렸다. 젊은이의 눈빛도 감때스러워지고 눈썹이 곤두섰다.

만약 이때 건너편의자쪽에 앉아있던 처녀들이 젊은이를 불러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더라면 부원과 젊은이의 사이에는 상서롭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것이다.

《홍덕동무, 게서 뭘해요. 이리 오세요.》

몹살하게 생긴 처녀가 날씬한 허리를 반쯤 일으켜세우고 젊은이를 찾았다. 그때에야 처녀들을 알아본 젊은이는 다투던 기색이 없이 그들을 향해 쾌활하고 서글서글한 목소리를 날리였다.

《아, 우리 처녀들이 어떻게?》

《해수욕 갔다오는 길이에요.》

젊은이가 처녀들한테로 가버리어 이미 주패의 흥심을 잃은 나와 부원은 어성버성해지고말았다. 나는 어딘가 데설곳은 젊은이의 주장이 조리는 없었지만 공감되는데가 있었다. 국가적립장을 코에 걸고 눈앞만 보며 한곳을 허물어 리를 본다는것은 상서로운 일인것 같지 않다.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덤벼치는 저들이 과연 나라사정을 알기나 한지, 원...》

부원은 불쾌감을 가라앉히지 못한채 열띤 눈빛을 안경알에 반사시키며 웅얼거렸다. 나는 그의 불만을 흘려들으며 젊은이를 새삼스러운 눈길로 여

겨보았다.

《그 처녀가 고와요?》

건너편의자너머에서 처녀들이 소곤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뭘라고 할가? 헤림이보다 고와.》

젊은이의 대답소리가 청높이 울리였다.

《어마나, 난 그럼 물러서야겠네.》

처녀들의 웃음소리가 가르르 터졌다.

《그 처녀와 평양에서 련애했다는게 사실이에요?》

《련애가 다 뭐야. 퇴박맞았는걸... 참, 난 왜 처녀복이 없을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말야.》

《평양에서 있는 이야기나 하세요.》

처녀들이 호기심어린 눈을 반짝이며 젊은이를 졸랐다. 젊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유쾌한 빛이 흘러나오는 눈길로 처녀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지난해 우리 화학공업부에서 조직한 창의고안자들 경험토론회때 말이야. 그 녀자가 두번째 날 첫 토론을 하더군. 공교롭게도 휘발유정류탑에 공기랭각기를 도입하여 나라의 여러 분야에서 요구하는 연유제품을 훨씬 더 많이 뽑게 된 사실을 가지고 말야.》

《아니, 그럼 홍덕동무의 창안과 비슷하잖아요?》

《난 아연해지더군. 발등을 밟힌것처럼 분하기도 하더란 말야. 순식간에 흥분한 난 온몸이 귀가 되어 그의 창안과정을 들었지. 그 동문 설계원이였어. 처녀의 몸으로 그런 엉뚱한 착안을 실현하자니 고생이 여간 아니였더군. 들을수록 동정이 가더란 말야. 제노라 하는 일부 기사들이 탑에 세력이 강한 랭각기를 설치하면 탑내온도차이가 심해지면서 탑이 폭발할수 있다거니, 나중에는 혼기철을 놓치지 말고 시집을 가라거니 별의별 험구들을 다 했던가봐. 그래도 그 녀잔 기어이 성사시켰던거야. 현대 창안과정은 그렇다치고 창안 그자체는 아무리 들어봐야 우리가 한것보다 별로 신통치 않더란 말야. 난 어쩐지 그 녀잘 만나보고싶더군. 그날 저녁 그 녀자의 호실을 찾아갔댔지. 마침 그 녀잘 복도에서 만나지 않았잖어. 토론회연단에 나섰을 땐 미처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 몸가짐이 단아하고 무척 살뜰해뵈더군. 키는 작으나 눈에 영채가 도는 매력있는 처녀였어. 난 직방 〈동무의 착안은 아직 미흡한데가 많소.〉 하며 허물을 하나하나 들추어낼 차비였는데 왕청같이 내 입에서는 불쑥 〈동무의 공기식랭각방법을 우리 공장에 도입하자고 그러니

자세히 알고싶어 왔소.) 하지 않았겠어.》

《호호…》

처녀들의 웃음소리가 가볍게 일었다.

《그 녀잔 자기 도면을 펼쳐놓고 차근차근 설명 하겠지. 그렇지만 내 귀와 머리에 그 녀자의 말이 들어올리 있나? 난 그 녀자의 정기도는 까만 눈을 렴치없이 바라보기도 하고 따뜻하고 달짝지근한 입김이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입술을 훑쳐보기도 했지. 하여튼 전탕 들리고 보이는건 그 녀자의 다정한 목소리와 숨소리, 귀바퀴밑으로 보이는 하얀 살결과 싱싱한 머리카락냄새뿐이야. 그 녀잔 아무리 설명해줘도 내가 통 뭉뚱하고있으니 한숨까지 나직이 짓더군. 날 깡통머리라고 비웃는것 같았어. 난 그때에야 정신이 들어 그 녀자의 도면을 활 밀어제끼고 내가 가지고갔던 우리 도면을 책 펼쳐놓았지. 실은 우리가 한 열교환쟁각기도면이었어. 그 녀잔 한참이나 우리 도면을 훑어보더군. 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근거렸어. 아닐세라 도면에서 머리를 쳐든 그 녀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더군. 파르르 떠는 속눈썹밑에서는 푸르스름한 차거운 빛이 흘러나왔지. 난 어깨가 졸아들고 낮가죽이 뜨끈뜨끈해났어. 그런데 이런 변이 있나. 그 녀잔 인츰 얼굴을 싸쥐고 섬약한 어깨를 흐드득 떨더란 말야. 그 녀잔 피로움을 조용히 눅눅히더니 물기에 젖은 눈길로 나를 원망스레 쳐다보며 〈동문 어쩔 이럴수 있어요. 날 우정 끌려주고 모욕하고싶어 왔군요. 동무가 절 찾아온 동기가 그래서라면 동무같이 고약한 사람은 처음 봤군요. 사람이 지식이나 발명으로만 훌륭해질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참 어리석고 슬픈 일이지요.〉 하고 말했소. 젠장,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담. 그를 울렸다니까.…》

《허, 훌륭한 처녀를 끌려주다니…》

창밖에 무료한 시선을 던지고있던 부원이 혼자소리로 뇌이다가 미간아래로 흘러내린 안경을 바로잡으며 나한테로 돌아섰다.

《사실 저 시절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때입니까. 사랑으로 끓는 가슴에는 미덕만이 가득차있구요. 또 열정과 애정이 주는 희열로 삶이 가장 선량하고 풍만해질 때라고 볼수 있겠지요. 사람들은 저 시절에 사심을 모르고 남을 위해 자기 심장을 바치기도 하고 또 리상의 탑을 한층한층 쌓기도 하거던요. 그런데 대개가 멀리 앞을 보지 않고 일시적인 충격과 반사로 흥분과 열정을 란발하지요. 목표란 일시일시, 뜻없이 설레인다고 할가. 누구나 그 시

절을 거쳤으니 말이지 어떤이들은 그 시기에 생활의 다반사에 쫓기다보니 후날 돌이켜보고는 그 무엇인가 성취할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서글픈 추억만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부원의 그 모든 말마디들은 어느 책에서 본듯 한 구절을 외우는것 같아 어째선지 나한테는 시들하게 들리었다. 오히려 나의 신경은 젊은이의 그 피이한련애담에 줄곧 쏠리고있었다. 그러나 흥덕의 이야기는 더 이어지지 않았고 그대신 처녀들이 떠들어대고있었다.

《그래서 퇴박맞았다는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오 전날 그 동무한테서 편지가 오지 않았어요.》

《수백리나 떨어진 곳에서 서로 똑같은 창안으로 만났다? 그야말로 랑만적인데요.》

《그 동무가 지금 혁명사적지답사차로 우리 이웃군에 와있어요?》

《음, 이거 내가 좀전에 받은 전보야.》

《…상봉을바람. 답사일정을 마치고 25일 오후 5시 빠스로 출발. 유정》

《오늘 5시 빠스로 떠나요? 그럼 어찌니… 이 급행열차가 그곳 읍에 정시로 도착하여도 겨우 한시간밖에 없겠네. 어찌다 만나겠는데…》

《저 멀리 파도는 춤추며 반기며 기슭으로 달려오고 백사장 솔푸른 잔디엔 그대들을 기다려 이슬이 반짝이고… 아쉬워라 아쉬워라 짧은 상봉이여!》

허리품이 날씬한 처녀가 흥에 겨워 읊조리며 젊은이를 끌려주자 처녀들은 손뼉을 치며 맞장구를 쳤다. 흥덕은 처녀들의 놀림에 빠져 허우적이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제 미인을 만나러 가면서 달리는 열차에 매달려서는 시간이 어찌구저찌구 희뽀게 놀았구만. 참 기가 막히군요. 저렇게 설익어가 지구서야 그 무슨 전체의 리익이나 집단을 위한 희생 같은것을 리해할수 있겠습니까.》

부원은 무엇에 속히운듯 쓰겁게 입을 다시였다. 그의 눈빛은 꼭 쓸쓸한 무인지경을 바라보는것 같았다. 남보다 지체높기때문에 젊은이의 행동리면에서 뭔가 포착한것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나는 굳이 젊은이를 경망스러운 청년으로는 보고싶지 않았다. 나는 젊은이의 가슴속에 다들여지지 않은채로 끓는 의협심에 감복하였으며 그 무슨 창안으로 무르익어가는듯싶은 남다른 사랑의 열정이 미쁘게 안겨왔다. 만약 부원의 눈에 젊은이의 언행이 거슬렸다면 그가 처녀와의 행복한 상봉에 취하여 들떠있기때문일것이다. 하긴 얼마나 좋은 시절인가.

좋은 세월을 만나 맘놓고 제 사랑을 찾아갈수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젊은 시절 언제 저런 길을 걸어왔겠는가. 누구인들 사랑의 열정으로 불타는 시절이 없었으랴만 우리는 그 시절 수천리 먼곳에 안해와 사랑하는 처녀를 두고 전선에서 조국의 한치의 땅을 지켜 피를 흘리었다.

나의 분대장한테도 고향에 애인이 있었다. 유정한 달빛이 흐르는 밤이면 참호바닥에 쌓아놓은 빈 탄약상자위에 앉아 고향의 애인을 그리며 은은한 피리가락을 넘기던 나의 분대장... 그가 그렇게 애끓게 기다리던 처녀와의 상봉은 어찌되었던가...

그것은 아마 재진격때의 겨울에 있던 일로 기억된다. 전선중부의 크지 않은 도시교외에 머무르고 있던 우리는 어느날 휴식명령을 받은적이 있었다. 그날 나는 분대장과 함께 읍거리로 외출하게 되었다. 노상 산발만 타고 행군하면서 전투를 치러야 했던 나한테는 평화로운 주민들이 사는 거리가 남달리 그리웠다면 분대장인 경우에는 이 고장 특유의 담배를 구입할 목적에서인것 같았다. 그는 매달 공급량으로는 어림도 없어 짬만 있으면 담배《공작》을 벌리곤 하였다. 오죽했으면 적후에 습격나갔다가 놈들의 작전장교서랍에서까지 담배를 들고와 부대에 물의를 일으켰겠는가.

자그마한 읍거리는 갖가지 간판들을 내건 잡화가게들과 점포,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있었다. 우리는 우선 거리 첫 어귀에 자리잡은 잡화가게에 들어섰다. 일이 될 때라 매대우에는 노란 일초와 형형색색의 문양을 돌친 담배갑들이 눈에 띄었다. 나는 얼른 돈을 꺼내 분대장앞에 내놓으며 웃어보였다. 어서 내 뭇까지 사서 맛스레 피워보라는 뜻에서였다. 그런데 분대장의 눈길은 담배가 아니라 바줄에 주련이 걸려있는 땀기뭍음에 멎어있었다. 나는 의아해졌다.

《집에 누이가 있습니까?》

《누이? 허허.》

어색스레 웃어넘기는 분대장의 얼굴은 불그레한 빛갈로 물들었다.

《이 자주색갑사땀기가 어드래?》

《내가 그걸 알게 뭇니까.》

《허, 부분대장은 아직 처녀들의 치레물계엔 통감감이군. 총각구실을 하긴 글렀어... 실은 말이야, 인민군창건절을 맞이하여 후방에서 전선위문단을 조직했다는데 공교롭게도 그 처녀가 우리 부대

에 오게 된다는 기별이 왔거든. 두해만에 만나게 될텐데... 나도 뭇 좀 마련해보고싶어 그래.》

분대장은 여전히 얼굴이 벌개서 변명비슷한 말을 길게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 자주빛땀기가 어찌되었던가. 그의 마음처럼 진땀땀 땀기... 그것이 나의 눈과 가슴속에 그리도 아픈 추억을 남겨놓을줄이야... 흰눈이 반짝이는 산마루우에 류달리 빨간 딸기빛노을이 저물어가던 이튿날, 불붙는 놈들의 땅크밀에서 내 손으로 그를 꼬집어냈을 때는 그의 팔다리가 여지없이 짓이겨졌었다. 나는 그의 얼굴우에 몸을 굽히고 이상하리만치 애끓고 고요한 그를 부여안았다. 그의 심장은 기적적으로 뛰고있었다. 나는 가슴저미는 상실감에 울음을 터치며 피타게 부르짖었다.

《분대장동무, 왜 뒤를 돌아보지 않았소. 뒤에는 우리가 있지 않았소. 분대장동무가 다 까부시지 못하면 그 몇걸음뒤에서 내가 이 수류탄으로 마저 요정을 널수 있었던 말ियो. 왜 단신으로 까부실 생각만 했소! 뒤를 돌아보았더라면... 뒤를 돌아보았더라면...》

나는 애절한 울음을 터치며 피가 퍼진 그의 앞가슴을 지혈봉대로 감아주려고 군복앞설했을 조심스레 헤치었다. 그런데 심장과 맞대인 그의 왼편 속주머니안에서는 손수건으로 차곡차곡 싼 그 낫익은 땀기가 나졌다. 나는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제 손으로 처녀의 머리태에 달아주겠노라고 싱글거리던 그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은 칼끝에 허비우는 것처럼 아팠다. 그때 마지막의식이 들었던 분대장은 흐릿한 눈길로 전우들을 둘러보았다. 무엇인가 더듬던 그의 눈길에 내가 쳐들고있는 빨간 땀기에 미치자 한순간 눈에 생기가 돌았다. 그는 이내 서글픈 미소를 입가에 그으며 가는 목소리를 힘들게 짜냈다.

《...그한테 ...주지...말라... 구.》

나는 분대장의 유언을 지켜 그의 시신을 묻을 때 땀기도 함께 넣어보냈다.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그 빨간 땀기가 이따금 떠오를 때면 나는 오늘날 청년들이 그처럼 희생으로써 자기 조국과 인간을 사랑할수 있겠는지 누구든 붙잡고 묻고싶을 때가 있다. 과연 저렇게 마음놓고 애인을 찾아 즐거운 여행을 하는 젊은이들이 조국의 한치의 땅을 지켜 자기 애인에게 줄수 있었던 그 작은 소원마저 이루지 못하고 간 청춘들의 고귀한 넋들이 이 땅과 이 하늘에 떠

들고있는줄을 알거나 할가?...

홍덕이들쪽에서는 폭발적인 웃음소리가 차안을 들었다놓았다. 햇빛이 덜 비치는 자리로 옮겨앉은 그들은 서로서로 손을 맞잡고 손뼉을 자락자락 두드렸다가는 그 무슨 말마디들을 련결시키는 식의 오락을 펼쳐놓았는데 아마 누가 걸린 모양이었다.

푸른색와이샤쓰바람으로 오락을 주관하고있는 홍덕은 나들문쪽에서 먼빛으로 구경하고있던 단발머리털차원한테로 다가갔다. 단발머리털차원이 기겁을 떨며 피하려들자 홍덕은 그의 손목을 끌어 기어 이 한복판에 내다세웠다. 처녀는 수집은 눈길로 홍덕을 할짓 흘기고는 활짝 붉어진 얼굴로 노래를 불러 손님들의 배를 그러쥐게 하였다. 뒤이어 처녀들은 홍덕이 몰래 저희들끼리 눈짓을 하여 다시 놀음을 펼치었다. 홍덕은 번열로 번들거리는 동식한 얼굴에 병글서한 미소를 담고 자기 순번이 돌아오면 바위처럼 끄떡없고 곧잘 받아넘기었다. 놀음은 새로운 운을 달고 시작되었다.

...시골총각 싱글벙글 흠뻑만 보고... 도시총각 처녀손목 잡고싶어라... 숫저운 그 처녀 웃어만 주니... 질풍처럼 불달린 사랑... 이글이글 타버리면 무엇 남을가... 이번에는 홍덕이차례였다. 홍덕은 말문이 막혀 줌자르다 박자가 끝날목에야 《이내 심장 영원히 불타...아...》 하며 넘기려 했으나 처녀들이 웃음을 터치며 일시에 들고일어났다.

《안돼요. 늦었어요, 늦었어! 일어나요.》

홍덕이는 한참이나 버티었다. 그러나 처녀들의 지긋은 성화에 못 견디어 응하고야말았다.

《좋아, 부르지. 뭘 부르다?》

《그 있잖아요. 동무가 제일 사랑하는 노래!》

젊은이는 그제야 생각이 떠올랐는지 싱긋 웃어보인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눈을 가늘게 쪼프렸다. 무엇이랴 이름하기 어려운 사색의 그늘이 입가와 눈언저리에 슬쩍 지나갔다. 질은 서정에 잠기려는 그의 진지한 태도가 벌써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모았다. 이윽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폭이 우렁우렁한 거센 소리가 유유히 감도는 호심파도 같은 노래의 선율을 진동시키며 울려 퍼지었다.

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리라

...

탁한 음색은 그런대로 서정에 겨워 생의 철리를 물으며 깊은 사색에로 몰아갔다. 차손님들은 그의 거센 목청보다도 웅심깊은 시정을 담고 흐르는 가사에 귀를 기울이며 저마끔 지나오고 흘러가는 생의 나날들을 더듬어 숨을 죽이고있었다. 나도 그의 노래에 인차 젖어들었다.

무릇 가요는 그자체의 요구가 있으면서도 부르는 사람의 감정의 분출이기도 하고 자기자신과의 독백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람들은 항용 자기의 감정이나 취미, 지향에 맞는 노래를 선택하여 즐겨 부른다. 때문에 그가 선택한 노래에는 어디까지나 그자신이 있기마련이다. 나는 젊은이가 우선 그 유쾌한 성미에 어울리지 않는 인생의 심오한 진리를 주제로 한 곡을 선정한데 놀랐다.

뿐만아니라 목소리는 그닥 신통치 않아도 노래선율을 꾸며서 가미하려는 헛된 시도는 조금도 없이 자기 감정을 솔직하고 의젓하게 표현하여 듣는 사람들의 믿음과 사색을 한층더 질게 하는데 또한 놀랐다. 차칸안에는 승엄하고 신성한 분위기가 흘렀다. 그는 차츰 노래의 뒤부분으로 가면서 열정에 넘친 웅글고 담찬 음조로 걱정을 터뜨리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여태 분망히 날오던 수리개가 억센 날개를 퍼덕이며 목표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려는 자신만만함과 열기로 번뜩이였다.

마지막순간에 뒤돌아볼 때

웃으며 추억할 지난날이라고...

젊은이는 1절 마지막음절에 가서는 그 힘찬 퍼덕임을 잦아드는듯 한 쉬고 부드러운 소리로 감싸서는 여운을 길게 남기며 다음절로 넘어갔다. 그 여운은 나의 뇌리에 새삼스러운 파문을 던지며 내가 만약 생의 마지막고비에서 지나온 날을 돌이켜본다면 과연 웃으며 회억할만 한것들이 있을는지 의문스러웠다. 또한 이미 빛나는 생을 걸어온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편할가 하는 동경도 갈마들었다. 나의 분대장의 삶을 보더라도 그의 생은 고요한 겨울저녁 빨강게 타오르던 딸기빛노을처럼 사라졌어도 긴긴 세월 아름다운 추억으로 살아있다. 수류탄을 입에 물고 땅크를 맞받아 단신으로 달려가던 그가 마지막시각에 뒤를 돌아보았더라면 생명을 구원했는지도 모른다. 그의 뒤에는 분대가 엄호하고있었다. 그리고 그와 이어진 하많은 생활들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있었다. 뒤에는 사랑하는 처녀와의 행

북한 상봉이 기다리고있었고 구만리하늘에 비낀 창창한 미래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앞만 보고 달리였다. 최후의 시각에 앞으로만 내짚은 그 몇걸음은 우리가 한생을 걸어도 닿지 못할 값높은 거리였으며 죽어서도 산 사람들과 이어놓은 발자국이었다. 그가 앞으로 달린 거리만큼 중대는 전진하였다. 그만큼 조국도 진군하였다.

노래의 여운에 휘말려 끝없는 사색을 이어가던 나는 때없이 짓누르는 부원의 목소리로 하여 깨치고말았다.

《참, 오늘같은 무더위는 레년에 드문 일인데요. 이런 날은 오히려 곡식들의 생육에 해를 줄거란 말입니다. 여러 나라들의 무질서한 공해산업이 미치는 후파로 대기온도가 높아질 예견이라더니 그 온난화의 징후가 아닐까요?》

(온난화라니?... 이전 또 무슨 동판지같은 소리가?!)

젊은이의 노래가 흐르는 지금 그가 무엇때문에 이런 동이 닿지 않는 말을 던지는지 알수 없어 나는 제 귀를 의심하며 굳어지였다.

(무료한 심리에서 오는 번덕일가 아니면 이 숭엄한 분위기에 휩쓸릴수 없는 고립무원한 고독이 주는 몸부림인가. 도대체 지금 그 말이 누구에게 필요하단 말인가!)

부원은 나의 랭담한 무언의 표정을 감촉하고는 창탁우의 록음기에 손을 가져갔다. 별안간 록음기에서는 썩스폰독주곡이 뿜어나왔다. 그것은 인생의 참된 진리를 불러 심원한 정적에로 이끌어가는 젊은이의 노래를 여지없이 눌러버렸다. 나는 아연하여 눈시울만 습벽이었다. 부원은 그 노래를 감상하려는듯 눈을 지그시 감고 두손을 가슴에 엮어붙이였다. 나는 머리속에 서서히 울리는 둔한 타격과 함께 치밀어오르는 의분을 견잡지 못하여 록음기조절기를 돌려놓았다.

《왜 그러십니까?》

《저 참신한 노래를 마저 들어보지요. 방해하지 말잔 말이요.》

《누가 방해한단 말입니까.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우리라니?!》

나는 마른침을 넘기며 부원을 험오스레 바라보았다. 내가 언제 이 사람과 짝패로 되었던가. 몸이 동행하니 감정과 뉘까지 함께 가는줄로 믿고있는가. 나는 이때 비로소 이 사람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것을 느꼈다.

그러나 우리의 말없는 싱갱이질은 더 지속되지 않았다. 급행렬차가 화학공장지구의 도중역에 머무르자 흥겨운 놀음판을 벌렸던 처녀들이 줄레줄레 일어났었다. 그들은 생기에 넘치여 아직 더 가야하는 젊은이를 둘러싸고 시까슬렀다. 애인한테 저들의 인사를 전해달라는가 하면 아예 잔치날을 약속하라는등 별의별 룡말과 웃음을 다 뿌리였다. 젊은이는 입이 벌쪽해서 맛장구를 쳤다.

《그래그래, 다 전해줄게.》

《호호, 그 말만 하자고 해도 한시간이 모자라겠네.》

《애두, 질풍사랑인데 넉넉하지 뭘.》

처녀들은 또다시 하늘을 나는듯 한 자지러진 웃음을 남기며 바깥승강대로 나갔다. 그들은 상쾌하면서도 소란스러운 선풍을 몰아가듯 사라지였다.

부원은 나의 편잔에 무참해선지 록음기를 꺼버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치심의 혼적같은 지지벌개진 얼굴을 감추며 그는 젊은이들과 반대방향인 승강대를 거쳐 밖에 나가 소풍하려는것 같았다. 그는 어째서 명쾌한 젊은이의 솔직한 감정과 소박한 기쁨을 알려고 하지 않는지? 나는 갑자기 답답하고 숨막히는 더위와 함께 탁한 공기가 폐부로 흘러드는 압박감을 느꼈다. 푸르고 싱싱한 빛이라고는 한점 찾아볼수 없는 부원과 마주앉아있는것이 마치 비좁은 한증탕속에 갇힌것처럼 여겨져 이제 두 구간이면 끝나게 될 려행이 한정없이 지루할것만 같다. 나는 이제야 답답한 속박감과 탁한 공기, 지루한 려행을 견어안고있는 이 더위가 왜 이다지도 지긋은지 알것 같았다. 잠시나마 이 더위를 잊게 했던 젊은이의 청신하고 상쾌한 모습이 자꾸만 떠오르기도 한다.

렬차는 차체를 흔들며 무거운 발걸음을 떼자 이내 속력을 내였다. 어디선가 열에 뜬 들크무레한 풀냄새가 차창으로 쓸어들어 그나마 한결 숨이 나갔다. 차창 가까이로는 구름이 한가로이 떠있는 야산아래말기를 둘러싸고 해빛을 취하도록 마신 아름다운 못이 한적한 마을을 끼고 조울고있었다. 물덕에는 살진 누렁소가 주둥이를 틀어박고 걸탐스레 물을 빨아들이며 성가시게 달려드는 등에떼를 쫓는듯 연방 꼬리를 휘둘러댔다. 어딘가 목가적인 정취를 자아내는 풍경에 나는 더위를 잊고 얼마간 흘러보냈다. 그새도록 부원은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주위에 어두운 그늘이 비껴여 나

는 꿈속에서처럼 쫓고있던 풍경에서 눈을 떴고 돌아섰다. 내앞에는 뜻밖에도 젊은이가 서있었다.

《아바이, 한가지 미안한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뭔데?》

《려객전무를 만나시게 되면 저를 대신하여 이 차표값을 치러주십시오. 아까 가있으라고 하여 그냥 돌아섰는데 여태 나타나지 않는구만요.》

젊은이는 자못 미안해하였다. 그는 나의 의아한 시선을 붙잡더니 손을 오무려 내 귀전에 대고는 재빨리 입속말로 속삭이였다.

《난 이제 통과하게 되는 백학역에 내려야 합니다. 이 급행열차 거긴 서지 않습니다.》

《?!》

나는 흠칫 놀랐다. 젊은이는 시무룩이 웃으며 자기의 결심을 비쳤으나 그 어조에는 결연한것이 있었다. 나는 아까 처녀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며 그가 만나려는 처녀는 열차가 이번에 서게 되는 선봉읍소재지답사숙영소에 머무르고있는줄로 믿고있었다. 이제 알고보니 읍에서 멀리 떨어진 백학답사숙영소였다. 그가 려객전무한테 차표값을 전하지 못하는 까닭도 그래서인것 같다. 나는 젊은이의 분별없는 흥분을 너그럽게 타일려주고싶었다.

《그러니 처녀 읍소재지가 아니라 백학리답사소에 와있단 말이요?》

《예, 아바이도 들으셨습니까?》

《안됐지만 들었네. ... 그 처녀를 꼭 만나야겠나? 후날 편지로라도 나누면 안되겠나?》

《그뎐 벌써... 일이 틀어집니다. 늦어진단 말입니다.》

《처녀의 마음을 믿지 못하는게군.》

《아니,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넨 또 려행규정을 어기지 않나. 공민이면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말일세.》

젊은이는 할말이 없는듯 고개를 숙이였다.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시속이 얼마인지 알기나 하나? 자네가 정 고집하면 나도 가만있지 않을테네. 이왕 알게 되었으니 공모자로 될수 없단 말일세.》

《참, 아바이두...》

젊은이는 나를 민망스레 쳐다보았다. 도움을 청하러 왔다가 오히려 탓에 걸린듯 한 랑패스러워하는 표정이였다. 그러면서도 손목시계와 창밖을 번갈아 살피였다. 멀리 구배진 아스라한 언덕우에 백

학역사건물이 성냥갑처럼 아물아물 눈에 띄웠다. 젊은이는 서둘러졌다. 그는 나의 창탁우에 차표값을 올려놓고는 제창 승강대쪽으로 향했다. 나는 손님들앞에서 소동을 피우기봐 그를 따라나섰다. 열차편결칸에는 마침 젊은이만 있어 마음놓고 말할수 있었다.

《자네 부질없는짓은 싹 거두게. 젊은 혈기를 믿고 그렇게 우둘거리단 일을 친단 말일세. 젊음을 쓸데 가 써야지.》

《야참, 아바이!》

《안되네!》

나는 젊은이앞에 떡 버티여섰다. 설사 그가 완력으로 나와도 조금도 드리지 않을 강심을 먹었었다. 일순간 젊은이의 시꺼먼 눈썹이 부르르 떨더니 얼굴은 안타깝고 간절한 빛으로 이지러지였다. 그는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속주머니에서 편지를 한장 꺼내여 나한테 내밀었다.

《좋습니다. 보여드리지요.》

나는 무심결에 그가 내민 편지를 받아쥐었다. 결봉에는 아까 처녀들이 외우던 처녀이름이 적혀있었다. 나는 젊은이들의 내막이 적힌 글을 읽는다는것이 점잖지 못한 일이라는것을 알고있지만 그가 무엇때문에 이런 용단으로 꿋고있는지 호기심도 없지 않아 속지를 뿔아 펼치였다.

처녀의 올곧은 성미를 말해주듯 정바른 글씨가 눈에 안겨왔다. 처음에는 레의 인사말부터 시작했는데 차츰 읽어갈수록 석연해지는것이 있었다. 처녀의 편지는 이렇게 씩여있었다.

《홍덕동무, 전 그사이 동무네가 한 열교환랭각 방법을 깊이 생각해보았어요. 탑에서 나오는 열을 다시 잡아 쓸수 있게 서로 찬것과 교환하도록 한것은 우리의것에 비할바없이 훌륭한거예요. 우리는 공기로 랭각만 하였지 그 열을 리용하려 못했으니까요. 처음엔 믿기 어렵더군요. 또 부정도 해보았어요. 그러나 새겨볼수록 동무의 성공은 의심할바없는거예요. 전 괴로웠어요. 동무와 헤어져 두달남짓한 기간은 나자신에 대한 쓰디쓴 혐오와 수치심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저한테는 무엇이 부족했을가요? 발전된 원유공업을 가진 나라들에서도 아직 실현하지 못했다는 리유가 유일한 위안이였지만 그 보다는 누구도 해보지 못한 첨단기술앞에 주저했고 생명을 담보할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시험앞에 질겁했던거예요. 첨단기술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의 사명감을 안고 동무가 것처럼 고심참담한

길에서 몸부림쳤을 때 난 유치한 성공의 희열에 달콤한 꿈을 꾸기도 했어요. 그래요. 난 붉은별을 받고 선생님의 칭찬을 기다리는 철부지 소녀처럼 바치는 것보다도 받아안는 것을 더 즐기는 인간이었어요. 뒤늦게나마 동무가 걸은 그 길에 나의 몸도 세웠군요. 우리는 지금 시험준비를 완결하였어요. 고마와요. 흥덕동무, 평양에서 그날 밤 동문 저한테 옮겨 깨우쳐주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퍼그나 흐른 지금까지도 그 밤이 왜 이다지도 괴롭히는지? 동무한테 너무 모진 말을 했기 때문인가봐요. 전 동무의 진정을 받아들일 한 조각의 따뜻한 마음의 공간마저 없는 비좁은 너자였어요. 이제 북부지방에 갈 기회가 생겼군요. 우리 기술혁신조에 북부혁명사적지답사의 영예가 차례졌어요. 우리는 답사행로를 마치고 돌아와 제창 시험을 할 작정이예요. 이번 기회에 동무를 만날 수 있다면 처녀의 자존심과 긍지를 다 잊고 용서를 빌고 싶군요. 부디 용서하세요. ...》

《보셨지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 위태로운 시험에 착수할 잡도리란 말입니다.》

《자넌 성공하지 않았나?》

《모험이었지요. 거의 절대진공과 고압에 견딜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야 하므로 시험과정은 폭발을 전제로 해야 했으니까요. 얼마나 아슬아슬한 시험이었으면 내가 우리 로동안전기술과장과 대판 다투었겠습니까. 그는 날 앞뒤를 살피지 않는다고 노상 불만이었지요. 그래 결정적인 시각에 앞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설이고 말지요. 우리의 영웅들이 최후의 순간에 앞뒤를 살핀 적이 있었습니까? 고약한 일이지만 내가 그를 뭐라고 야유했는지 아십니까. 쥐가 고양이 목에 어찌서 방울을 달지 못하는 줄 아는가, 피가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그저 영악없이 잡히운다는 본능적인 공포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그는 자길 쥐에 비긴다고 노발대발했지만 참 고마운 분이지요. 그런 이들이 나의 생명을 걱정해주고 살피주기에 난 신심과 용기가 더 생기더라 말입니다. 어쨌든 우린 성공했지요. 그러나 그건 낡은 방법이란 말입니다! 우린 얼마전에 열교환기를 아주 안전하고 쉽게 해결할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공장대학학술토론회의 일정에 올라 우리 학급동무들이 매일같이 모색하던 끝에 마침내 찾아냈단 말입니다!》

젊은이는 환희에 들떠 목청을 돋구었다. 나는 그의 타오르는 눈빛과 희열에 넘친 모습을 보며 그들 먹이 피어오르는 따뜻한 것을 삼키었다.

《그걸 알려주자고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뜻밖에도 그들이 답사일정을 앞당겨 오늘 떠난다는 전보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돌아가면 그 위험천만한 시험을 제창 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처녀를 위험한 시험에서 구원하겠단 말이지. ...》

《그 혼자만이 아니지요.》

젊은이는 약간 더듬거렸으나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나는 신성한 것을 고스란히 받아안으며 빼근한 감동에 젖어버렸다. 불현듯 피부에 닿은 더운 바람이 그지없이 싱그러웠고 질풍처럼 달리는 열차며 마주 달려오는 강철레무며 뒤로 흘러가는 갈색의 땅과 살림집들, 그우에 한가로이 떠있는 솜털구름모두가 젊음으로 약동하며 뒤쫓아버리는 듯싶었다. 나는 시대의 첨단을 안고 줄기차게 달리는 젊은이의 더운 숨결에 가슴이 뿌듯해지며 그 기꺼움에 목이 메었다. 이처럼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갈색의 땅과 질푸른 하늘에 가득차서 어제와 오늘도 영원히 타끓는 푸르른 청춘의 열기를 나는 이제 학생들에게 무엇이라 표현해야 하는가.

《아바이, 용서하시겠지요?》

《그러니 새로운 착안도 알려주고 싶고... 처녀도 만나보고 싶고... 처녀 사랑하랴구... 사랑해. ...》

나는 젊은이를 한껏 돕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모대기며 공연한 말을 곱씹었다. 젊은이는 반짝이는 이발을 드러내며 벌썬 웃었다. 그 깨끗한 웃음은 나를 아득히 흘러간 청춘시절의 기쁨과 그 끝모를 신비스러운 행복에 젖어들게 하였다. 가슴은 느닷없이 되찾은 젊음으로 들레이었다.

《고맙습니다, 아바이!》

젊은이는 승강대문을 벌컥 열어제끼었다. 차바람이 확 쓸어들었다. 승강대아래턱에 내려선 그는 옷자락을 잡아뜯는 바람에 맞받아 다급히 웅치었다.

《총국부원한테 인사를 못했군요. ... 그가 전망도 없이 일판을 벌리겠다고 하는건 좀 심사숙고...》

그의 뒤말은 뼈를 깎는 차륜소리가 삼켜버렸다. 돌연 나의 뇌리에는 젊은이를 무작정 제지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격이 마쳐왔다. 나는 황급히 승강대쪽으로 한발 내짚으며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차바람이 얼굴을 덮치며 눈앞이 캄캄해졌다. 때를 같이 하여 푸른 옷자락이 펄럭하며 사라진다. 뒤미처 땅을 구르는 육중한 차량이 소리지르며 지나간다. 그 무시무시한 굉음과 소름끼치는 전륜, 사라진 옷자락에서 나는 언뜻 수류탄을 입에 문 나의 분대장을

보았다. 비장한 격동이 삼시에 온몸을 휘감았다.

《아바이, 왜 이러십니까?》

별안간 젊은이의 몸부림치는 울부짖음이 귀청을 때렸다. 나는 눈을 떴다. 환각이었다. 실은 나의 바른손이 승강대를 잡고있는 그의 팔을 으스러지게 틀어쥐고있었다. 내 입에서는 안도의 숨결이 흘러나왔다. 등골로는 서늘한 식은땀이 척척히 내뿜었다.

렬차는 어느새 백학역구내를 멀리 벗어나 굴간 초입에 들어서고있었다. 차굴에 들어서자 승강대에서 올라선 젊은이는 컴컴한 눈확에 불씨가 튀기는 날카로운 눈길로 나를 일瞥 스쳐보고는 꺼지는 한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그를 마주볼수 없어 머리를 떨구었다.

《용서하게... 난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네... 그렇게밖에...》

나는 무슨 힘으로 그를 억제했던지 알지 못하며 중얼거렸다. 그저 그 순간 이 홀룡한 젊은이를 지켜야겠다는 반사적인 충동에서였던지 아니면 어제 날 최후의 걸음을 내짚던 나의 분대장을 구원하지 못한 전우의 빛을 갇고싶어서였던지... 그러면서도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있을 처녀에게 달지 못한 젊은이의 심정이 헤아려져 가슴이 타들었다.

(참 이를 어쩌면 종단 말인가!)

나는 안절부절 못하며 속만 바재이었다.

그무렵에 렬차는 읍소재지역에 서서히 들어섰다. 한동안 아무말없이 차창밖을 내다보던 젊은이가 나한테로 돌아섰다.

《아바이, 잘 가십시오. 아바인 꼭 우리 로동안 전기술과장같군요... 잊지 않겠습니다.》

젊은이는 눈을 습벅이며 싱긋 웃었다. 나는 눈시울이 젖어들어 미처 다정한 말을 하지 못했다. 젊은이는 구울듯이 흠에 내려서자바람으로 역사나들문을 향해 줄달음쳤다. 보매 백학리답사숙영소까지 뛰어갈 잡도리였다.

《저 사람이... 되게나 급한 사정이 있는가보지

요?...》

어느결에 내결에 다가온 부원이 침울한 낮빛으로 나의 눈치를 조심스레 살피며 뇌이었다. 나는 불쑥 생활의 외피만을 보고 사는 그한테 공민이 지켜야 할 의무를 인간에 대한 그지없는 사랑과 위훈으로 지켜가고있는 젊은이에 대해 그리고 진실로 전체를 위해 평범한 날을 바쳐가고있는 그 모든 아름다움을 죄다 말해주고싶었다. 또한 젊은이가 그에게 남긴 말도 하고싶었으나 지금은 말할게가 못되었다.

《부원동무, 자리에 가있어주요. 내 좀 할말이 있소.》

나는 초조감을 안고 손목시계에 눈을 주었다. 이제 한시간... 에서 백학리까지는 시오리길이다. 과연 처녀를 만날수 있을까?...

역사앞으로 시원하게 뻗은 길을 따라 재게 놀리는 젊은이의 발밑에서는 먼지가 일고 와이샤쓰뒤통등이 바람에 부풀어올랐다. 처녀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를 품고 내쳐 앞으로만 달리는 젊은이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내 눈앞에는 부지중 빨간 땀방울을 품고 안은 나의 분대장의 모습으로 엇바뀌어돌아갔다. 나는 전우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울컥 젖어들었다.

(분대장동무, 우리의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당신처럼 빨간 땀방울을 품고... 앞으로만...)

나는 목이 메고 눈물이 핑 돌았다. 창문에 몰려선 차손님들이 눈을 떼지 못하고 정겨운 미소로써 젊은이의 걸음을 바래주고있었다.

땅은 하루의 더위에 지쳐있어도 푸른 계절, 푸른 빛을 품고 반짝인다. 그 푸르른 땅을 뒤흔들며 환희의 격정과도 같은 기적소리가 길게 울리었다. 생활을 열렬히 사랑할줄 아는 인간들만이 갈수 있는 그 길로 질푸른 하늘과 반짝이는 땅이 부지런히 따라가고있었다.

주체81(1992).



미래사랑 꽃피는 기대

리 명 호

이 세상 사람들
다는 모를것입니다
철따라 자식들에게 새 교복을 입히는 부모들
또한 철따라 새 교복을 입고 기뻐하는
이 나라의 학생들도

나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배움의 꽃대문에 들어서기 전에
교복이 나를 위해 지어지고
철따라 새 교복을 받아안으며 산
세상에 부럼없던 그 나날에도

보람찬 학생시절을 마치고
어머니가 섰던 기대에 섰던 날
눈물이 글썽하여 바라보던 기대
그 기대에 새겨진 글발
《학생복기대》!

가렬치절한 전화의 나날에
군복천을 짜던 그 기대
모든것이 불타버린 전후복구건설의 나날
인민들의 웃감을 짜던 기대와 나란히
미래사랑을 꽃피우는 학생복기대

고난의 행군 그 나날
최전선을 찾으시던 장군님
학생복천생산정형을 알아보시고

학생복기대는 순간도 멈춰서는 안된다고
최고사령관명령으로 돌게 해주신 기대

기대소리에 울려옵니다
어느해 뜻깊은 태양절 그 봄날
새 교복을 차려입은 아이들을 보시며
오늘은 나의 일생에서 제일 기쁜 날이라고
환히 웃으시며 하시던 수령님의 말씀

새로 일떠선
데트론인견천직장을 찾으신 장군님
천의 질이 대단히 좋다고
이 천으로 학생들의 학생복부터 해입히자고
미래사랑을 활짝 꽃피우신 그 말씀

아, 자라나는 우리의 소년단원들은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끝없는 사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학생복기대

나는 소리쳐 자랑합니다
이 세상에 천짜는 공장 기대 방직공들 많아도
학생복만을 짜는 그런 기대는 없습니다
아, 나의 학생복기대는
나라의 왕들을 위한 전용기대입니다

행복에 대한 생각 외 1편

리 미 옥

이른아침 출근길 걸을 때도
저물녘 퇴근길 걸을 때도
나는 자주 생각해봅니다
방직공 나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러면 떠오릅니다
핵전쟁의 검은구름으로
세계의 긴장한 눈길이
이 땅에만 쏠리던 바로 그 시각에

전국경공업대회를 마련해주시고
우리들을 대회장에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안겼던
잊지 못할 그 나날이

그렇듯 연약하기만 하던
우리 녀인들의 심장에
세계제패를 꿈꾸던 원썩들도
눈아래로 굽어보는

담력과 배짱을 안겨주시고
적들의 간담이 서늘하도록
핵시험성공의 동음과 함께
방직기의 동음도
세계의 하늘높이 울리도록 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사회주의부귀영화를 가꾸는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
우리들을 세워주신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할
불타는 마음

침략자들이야 어이 알랴
서로 돕고 이끌며
하루일 또 넘쳐하고
온 작업반이 어깨나란히
공장대학으로 가는 이 기쁨을

혁신자축하무대를 내려
뿌려준 꽃보라 그대로 점점이 반짝이는
달아오른 이 가슴에
탁아소에 맡겼던 아기를 찾아안은
녀인의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아, 진정 나의 이 기쁨 이 행복
인민의 살기 좋은 락원을
이 손으로 애써 가꾸며
달마다 계획을 넘쳐하고 받은
꽃다발속에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고난도 시련도 헤치며
궁지높은 삶을 누려가는
이 모든 날과 날들에 새겨집니다

내 사랑 천필아

천필아 내 사랑 천필아
너와의 인연을
달리는 표현할 길이 없구나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는

어찌 그렇지 않으랴
이 땅에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포성을
크게 울려주시고
더 많은 경공업제품을 만들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자고

경공업대회의 높은 연단우에서
절절하게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음성
너의 갈피마다에
뜨겁게 스며여있어

그날부터
네우엔 진하게 물들었지
원수님의 높은 뜻 어서빨리 실현하자고
달리고 또 달리며
내 홀리고홀린 땀방울들이

꿈속에서도 너의 부드러움에

얼굴을 묻고 쓸어보고 또 쓸어보았지
상점마다에 넘쳐나는 천필을 받아안고
기쁨에 넘쳐 웃고웃을
인민의 모습도 그려보았지

티없이 정결하고 부드러운
방직공 내 마음
너의 필마다에 수놓으며
자나깨나 진정을 다해
인민의 기쁨 가꿔갈 때면

경애하는 원수님 구상하시는
강성할 래일이
더 빨리 더 황홀히
이 땅에 현실로 펼쳐지려니

아, 천필아 너는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 안겨주신
방직공의 값높은 보람
내 아낌없이 바치는 땀과 열정
창조의 노래되어
행복의 노을빛되어
끝없이 흐르고흐르리라
내 사랑 천필아

별

리 명 호

...중학교(당시)졸업을 앞둔 소년은 책상을 마주한채 그린듯이 앉아있었다.

하얀 종이장우에 원주필은 점도록 멈추어있다.

희망, 희망... 무엇을 써야 하나. 나이 열일곱이 되도록 꿈속에서 가보았던 희망의 갈래길들을 하나하나 다시 밟아보았으나 도중에서 돌아서버리고 말았다. 어린시절의 추억이 지긋게 발목을 붙잡은 것이다.

삼복철의 찌는듯 한 무더위...

열풍을 피해 버드나무그늘을 찾은 애들을 비웃듯 코드기듯 해별을 물면에서 부스르뜨리며 흐르는 내가...

하지만 애들은 까맣게 탄 등어리들을 연신 일구어 물가를 결눈질할뿐 감히 물에 들어설념을 못했다. 한것은 물녘을 따라 그냥 비껴도는 금빛견장의 사회안전원(당시)때문이었다. 줄 하나에 은빛별이 네알...

팅, 텅, 텅...

안전원아저씨는 물녘에 《위험!》이라고 쓴 폐말을 한참 박고있었다.

그 폐말은 우리 장난꾸러기들을 내가에서 쫓아내는 보초병인셈이었다.

그러나 웬걸, 아저씨가 마을로 사라지기 바쁘게 우리는 개구리처럼 침병침병 내가에 뛰어들었다. 종내 일이 터졌다. 물녘을 벗어나 뿔내듯 내가 한가운데로 용용 헤엄쳐가던 한 애가 갑자기 손을 허우적이며 짧은 비명을 지르더니 물속으로 사라졌던것이다.

《사람 살려요. 우리 동무가 물에 빠졌어요!》

겁에 질려 왁작 고아대는데 고맙게도 금빛견장이 다시 나타났다. 그대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마을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는 그 사회안전원이 물에서 구원해낸 애의 입에서 물을 토해내고있었다. 애를 부둥켜안은 부모들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전원에게서도 물방울이 떨어졌다. 머리카락에서, 옷자락에서, 바지가랭이에서...

그러나 금빛견장에 박힌 별들은 웃고있었다. 고마움과 감사의 정어린 시선속에 물기를 함뱍 머금은 네알의 별들은 오색령롱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아, 별! 나는 그 별이 되고싶었다.

마침내 소년은 지팡란에 다섯자의 글을 큼직하게 써넣었다.

《사회안전원》

...

취재길에 인민보안원들을 만나거나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지난 시절이다.

오늘도 역시 그랬다. 현실체험차로 온천군에 갔던 나는 읍에서 10리가량 떨어져있는 농장마을을 찾게 되었다. 그곳에 문학통신원시절부터 무척 친숙했던 동무가 살고있었던것이다.

친구의 집에 도착해보니 대문에는 자물쇠가 걸려있지 않았다. 높지 않게 두른 꽃울타리너머로 보니 부엌문에도 역시 자물쇠가 없었다. 이 집 식구들이란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돌이고 부모들은 모두 농장원들이다. 그리고 오늘은 휴식일도 아니다. 혹 누가 앓기라도? 대문을 두드렸다. 인기척은 없고 대신 반기는것은 얼룩강아지뿐이다. 의아했으나 나는 곧 생각을 달리했다. 어데 잠깐 나간 모양이지... 그런데 그 잠간이 점심시간까지 이어질줄이야.

들의 정취가 한껏 실린 어깨에 물기가 번득이는 삼을 멘 친구가 나를 반겨찾을 때에야 나는 쪼그라뜨렸던 두다리를 펴고 일어섰다.

《아니, 이거 작가선생이 어떻게 된건가. 기별도 없이.》

《말 말게. 누가 집을 비우고 여태 안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난 실컷 집의 자물쇠가 돼보았네.》

그제서야 그는 깨도가 되었던지 폭소를 터뜨렸다.

《괜한 원심이였구만. 친구, 여기서 어느 집이라 할것없이 다 자물쇠를 채우지 않고 다닌다네. 인민보안원들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나.》

그는 혼연스레 웃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누구나 자기 소유권에 속한 모든것을 지켜내고 잃지 않기 위해 가능한 보호수단들을 리용하는것은 어쩔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다. 이 본성적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이한 형태의 자물쇠가 생겨났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것이 필요없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후터워온다.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켜내는 든든한 자물쇠가 되고저 눈보라 몰아치는 추운 겨울밤에도, 땀방울이 쏟아지는 삼복의 여름날에도 헌신의 땀을 바쳐왔을 우리의 인민보안원들.

이들에게도 기다려주는 처자들이 있고 따뜻한 온기와 화애한 분위기로 피곤몰린 몸을 풀어주는 집이 있다. 허나 인민의 얼굴에 비껴있는 밝은 웃음에서 생의 기쁨을 찾는 그들이기에 일신의 락은 뒤전에 미루고 밤낮을 모르는 헌신의 자욱자욱을 새겨가는것 아니라.

이들의 모습과 더불어 우렁이 안겨오는 모습들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참 훌륭한 동무라고 높이 평가하시고 수령결사옹위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신 평양시인민보안국 교통지휘대 지구대 대원 리경심 영웅.

《로동신문》에 소개된 평안남도인민보안국 산하단위 인민보안원들인 김명국, 김승수동무들의 아름다운 소행은 또 우리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하여주는것인가.

초를 다루며 생명을 위협하던 위험한 그 순간 그들이 생각한것은 무엇이었던가.

수령이었고 사회주의제도였으며 인민들의 생명재산이었다. 이를 위해 바쳐진 생은 죽어도 살아도 영광임을 안 그들이였기에 죽음앞에 서슴없이 한몸을 내댄것이다.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순결한 혁명적정신과 도덕의리를 지니고 당의 정치보위대, 사회주의제도의 수호자,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켜선 믿음직

한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다해가는 이런 인민보안원들이 있기에 내 조국은 백두산대국의 위용을 펼쳐가고있는것이다.

영광의 나날에도 시련의 나날에도 당과 제도, 인민을 보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인민성을 높이 발휘한 이런 인민보안원들의 위훈을 높이 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보안기관과 인민내무군은 인민군대와 함께 우리 혁명의 쌍기둥을 이루는 2대무장집단이라고 그 지위를 확고히 높여주시었다.

우리 인민보안원들은 바로 수령의 크나큰 믿음과 인민들의 선망, 존경속에 오늘도 남모르는 위훈의 길을 걷고있다.

따르릉, 자전거종소리가 생각을 깨웠다.

마을을 순회하는 모양 낮모를 인민보안원이 사방을 주의깊게 살피며 우리에게로 마주오고있었다.

반짝! 그의 어깨우 견장에서 별들이 빛을 뿌렸다.

그것은 나에게 추억의 실을 다시 이어주었다.

...또각또각 점점 가까와지던 선생님의 발자국소리가 내곁에서 멀어진다. 동무들이 호기심속에 어깨성을 쌓는다. 신기한듯, 놀라운듯 책상우의 종이장에 씌여진 글자를 놓을념 않는 눈길들...

그날에 하시던 선생님의 말씀이, 결코 바란다고 성취되는것이 소원이 아님을 깨우치던 인생의 조건이 귀가에 쟁쟁히 마쳐온다.

《동무들, 별은 별찌가 될지언정 온몸을 태워 내는 빛으로 하늘의 어둠을 밝힙니다. 바로 그 하늘의 별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전초선에 서있는 우리 초병들의 어깨우에 올라있는 것입니다.》

상 식

건 늑길 표식

오늘 그 어느 나라에 가든지 도시에 있는 거리들에는 건늑길표식이 있다. 그 건늑길표식에도 인간의 지혜와 창조의 력사가 깃들어있다.

고대로마시기 이팔리아의 큰 도시들에서는 상업이 발전하면서 거리에 사람과 말, 마차들이 많이 다녀 교통이 항상 복잡하였고 혼잡을 이루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사람만이 다니는 도로를 다른 도로와 구별시켜놓았다. 그리고 십자길에는 도로바닥보다 약간 높게 돌을 깔아 건늑길표식을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돌을 밟으며 길을 건너다녔다. 돌은 마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깔았다.

19세기에 와서 자동차가 출현하였다. 멀리에서 눈에 잘 띄이지 않는 돌표식은 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질서를 바로잡는데 필요없게 되었다. 여러번의 시험과정을 거쳐 19세기 50년대초에 영국 런던거리에는 처음으로 오늘과 같은 장방형표식으로 된 건늑길표식이 나왔다.

그 표식은 흰색으로서 얼룩말의 점갈이 눈에 잘 띄운다고 하여 얼룩말선이라고 하였다. 이선은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건너다닐수 있는 통로를 제시해줄뿐아니라 운전자들에게는 《속도를 낮추라》, 《행인들을 조심하라》는 신호로 되었다.

별은 가깝다!

리 경 명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서였다.

연분홍색, 진곤청색, 노란색... 끝없이 번쩍이는
각양각색의 불장식들을 헤가르며 《야—》하는 탄
성과 함께 급강하탑이 열른 사람들을 그러안고 하
늘로 오른다.

《저것, 저것부터 탑시다.》

탄광에서 전국군중문학작품현상응모에 입선하여
시상식차로 평양에 올라온 한 군중문학통신원이 급
강하탑쪽으로 줄달음을 놓으며 웨친다.

《음, 그래... 그것부터 타자구!》

급히 청년을 따라나서며 나도 맞받아웨쳤다.

내달던 청년이 무춤 멈춰선다. 고개를 돌리고 놀
라운듯 나를 바라본다.

《헛참, 선생님두...》

어이가 없다는듯 피씩 웃는다.

그러고보니 어느덧 내 나이 70대 중반기다.

흘러가버린 시절들이 아깝게도, 한없이 소중한가
도 되새겨졌다.

내 대학시절 갓 세운 옥류교기등에 《별을 따
다 강안에 걸자!》라는 벽시를 써붙이고 물이 똑
똑 듣는 감탕목도를 어깨가 휘친하도록 메고 강안
유보도공사에 지칠줄 모르고 땀을 바치던 그때가
보여왔고 젊은 작가시절 눈발날리는 만수대언덕에
서 수만군중의 한사람으로 가슴들먹이며 기공식의
첫삽을 박던 그날이 못 견딜 그리움속에 울컥 되
살아났다.

송엄하고 장중한 그 언덕에서 오늘은 우리의
위대한 대원수님을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손들어
가리키고계신다.

그 대동강반이 그림같이 우아한 절경으로 변하였다.

주체사상탑이 치솟아 붉은 해불로 온 누리를 밝
히고 의의있는 명절때마다 희한한 축포가 터져올라
별천지를 펼쳐 우리의 밝은 앞날을 심장마다에 확
인시키고있다.

평양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정도로 달라졌는가!

《야!—》

어느새 급강하탑은 탄부청년까지 품어안고 또다
시 하늘높이 치솟아오른다.

이 세상 깊은 막장 한끝에서 탄을 캐는 탄부가 이
세상 제일 높은 하늘끝으로 치달아오르는것이다.

아마도 이 순간 청년은 저 높은 곳에서 별의 세
계를 눈아래로 굽어보며 생각할것이다. 내가 캐내
는 탄이 이렇게도 눈부신 별천지를 펼친 그렇게도
소중한것이었던가 하고 말이다.

어찌 탄부청년뿐이라. 저저마끔 오늘을 이렇게도
눈부시게, 이렇게도 높이 끌어올린 자기들의 창조
물들을 두고 긍지로 터질듯 한 가슴들을 부둥켜안
고있을것이다.

눈부신 하늘의 은하세계가 땅위에 그대로 펼쳐
진것 같은 황홀한 심정은 그들이나 나나 다를바
없다.

가슴이 찡— 울렸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 말을 바꾸어 한세기
전에 태어나 기지있고 신랄한 사실주의묘사로 당대
사회를 예리하게 비판폭로한 한 영화인이 남기고
간 말이 되살아났다.

《뜻은 높아 하늘에 닿았건만 별은 멀고 인생은
짧도다.》

그러나 지금의 저 우리 동시대인들은 그 별을 눈
아래로 굽어보며 하늘높이 정충 치솟아오른것이다.
그리고 다시한번 자기들이 해낸 일의 금새를 가슴
뿌듯이 안아보고있을것이다.

짧은 인생의 삶으로는 전혀 팔수 없는것으로 머
리를 젖히고 쳐다보던 그 별을 창조의 대가로 은
하계채로 끌어내려 공원에다 척 걸어놓고 그 하늘
에 올라선것이다.

아마도 흥분에 열려 짧은 인생을 춘몽과 같이 태
우고 간 그 영화인이 오늘에 살아있어 이 현실을 보
았더라면 서둘러 자기의 말을 정정했을것이다.

《대를 이어 받아안은 수령복속에 인생의 참맛을
누리며 사는 축복받은 삶들이 하늘의 별을 끌어내
려 자기의것으로 만들었다. 별은 가깝고 인생은 보

람차다.》라고…

생각이 깊어진다.

이 땅의 해방전 력사는 기다란 시계추를 느릿느릿 흔들며 얼마나 지루하게 눈물겹게 흘러왔던가!

우리는 조상대대로 터전을 잡아 삶을 깃들여온 평양성의 옛 모습을 돌이켜본다.

들쭉날쭉 처마를 맞대고 웅기종기 늘어앉았던 그 볼품없던 가게방들, 살림집들… 보통강변에 짓눌려 붙어앉았던 판자집들, 초막들… 이끼오른 옛성터, 대동문, 보통문, 칠성문, 모란봉의 올밀대…

그 몇몇 창조물건설을 위해 백년세월이 걸렸던가, 천년세월이 걸렸던가…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주체조선의 100년사는 문자그대로 금속성의 초침소리를 드림없이, 씩씩이 뿜기며 가속도로 오늘에 와닿은 것이다.

항일혁명투쟁사, 해방,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 천리마대고조시기… 숨들릴새없이 달리고달려온 거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초강도강행군으로 속도에 속도를 더해 달려온 선군의 시대…

저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의 옛 도시들처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몇몇 건물의 밀천이라도 있었다면 오늘의 평양의 모습이 이렇듯 궁지롭진 못할 것이다.

이 터전에 무엇이 있었던가, 무엇이 남았던가!

일제놈들에게 뜯기우고 미제놈들의 폭격에 재더미밖에 남은것 없던 그 자리, 그 터전에 우리 오늘과 같은 현대적인 평양을 일떠세우지 않았던가!

정녕 식민지민족의 설움, 치욕의 멍에를 걸머지고 한숨소리 높던 뺨대거리는 그 어디쯤이며 일본놈 술주정뱅이의 계다짜소리, 유행가소리 어지럽던 가루개는 그 어디쯤이나…

정녕 미제호전광들이 평방당 줄폭탄을 던져놓고 100년이 걸려도 일떠 못선다던 그 평양이 얼마나 지경임들을 짓눌러버리며 오늘의 저 급강하탑 오르듯 하늘높이 치솟아오른것이 아닌가.

재가루만 날리는 폐허우에 종합청사, 보위성청사(당시), 광장을 건설해놓고 그 맞은편에 기다란 500세대 로동자아파트 한채와 대동문영화관을 지어놓고 그리도 궁지롭게 가슴들먹이던 그 평양이…

평양문학대학(당시 련광정뒤에 자리잡고있던) 창

가로 휴식시간에 장대채언덕에 일떠서는 건축물을 바라보며 저것이 정녕 우리 아이들의 집, 평양학생소년궁전이나 하고 생각하던 그때가 엇그제 같은데 오늘의 평양은!…

정말 감회롭다.

평양, 아아 오늘의 우리 평양…

다시 한번 두팔벌려 안아보자! 다시 한번 정을 부어 쓸어보자!

대동강반에 일떠세운 건축물들만 꼽아보자.

내놓고 자랑하고만싶은 국립연극극장, 인민야의빙상장, 류경원, 룡라인민유원지, 해당화관, 하늘에 닿아 불야경을 이루고있는 창전거리, 만수대거리… 탁 트인 도로들, 새소리 유정한 공원들… 푸른 물 출렁이는 대동강… 별무리가 그대로 내려앉은 저 강안…

가슴은 마냥 빠근하기만 하다.

아, 이 좋은 세월에 이 좋은 날을 마련해주시려 우리 장군님 잊지 못할 그날 통성도로확장공사장에서 목도채도 메시지 않았던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평양을 아니, 온 나라를 오늘처럼 일떠세우시고 가꿔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고마움에 목이 메이고 보답의 한마음으로 가슴벅차오르는 순간이다.

진정 내 이렇게도 벅차고 이렇게도 소중하고 이렇게도 궁지로운 시대에 삶을 누리고있었던 말인가!

《야!—》

《호—아!》

배그네쪽에서, 급강하탑에서 연해연방 탄성이 뿜겨오른다. 가슴벅차도록 안겨드는 고마움에 눈굽이 저려온다.

그렇다! 대를 이어 수령복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저 하늘의 별을 따온것이다.

아, 고마움에 눈물젖고 궁지로 가슴벅차오르는 시대여!

우리 승리의 기치이시고 뜨거운 인민사랑의 화신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높이 모시고 이 세상 전부를 받아안은 복받은 세대여!

솟구쳐오르는 저 급강하탑과 함께 더 높이, 더 높이 뛰어오르라!

21세기 사회주의문명국가의 자랑찬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이 땅에 일떠세우라. 무변광대한 저 우주의 끝까지!

시 초

승리, 우리는 너와 함께 산다

정 예 향

별

한송이 ...
또 한송이 ...
타는듯 불타는듯 ...

오, 조국위해 바친 영웅들의 삶인가
전승기념탑 푸른 잔디위에
꽃으로 피어난 붉은 별!

한껏 취할듯 진한 그 향기속에
뜨겁게 안아보는것
이 한송이 한송이 꽃은
내 나라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마지막탄환으로 원수를 찾으며
증오로 불붙던 그 심장들은 아닌지

이 꽃이었으리
전선으로 떠나며 용사들 안고갔던
고향의 동구길 그 들국화
떠나는 군용렬차를 바래우며
처녀가 안겨주던 그 해당화
군용물통의 마지막 한방울까지 기울여
전호가에 피우던 그 백일홍이 ...

그 꽃을 안은 심장들에
고향과 사랑 미래가 깊이도 간직되었기에

구레나룻 수복한 아바이병사도
교복을 군복으로 바꿔입은 애송이병사도
그 심장의 피로 복수기록장에 아로새겼더라
《조국을 위하여!》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오, 사랑과 증오로 불타던 50년대에
가장 아름답고 용감하게 싸운 아들딸들이
청춘을 바쳐 목숨을 바쳐 안아온
전승의 그 자욱 영원히 잊지 말자고
그들의 생을 지지 않는 저 별에 담아
조국은 이 땅위에 소중히 떠올려주었거니

이 별속에
못다 누린 그들의 청춘이 향기풍기고
못다 산 그들의 삶이 꽃으로 활짝 폈으니
묻지 마시라 값높은 인생이 어떤것인지
참다운 영생이 그 무엇인지

꽃으로 피어나며 향기풍기는 별 ...
별이 되어 빛나면서 피고피는 꽃 ...
아, 여기서
울렁이는 이 가슴에 빗발치는 생각이어
이렇게 빛나야 진정한 별이다!
이렇게 향기풍겨야 진정한 삶이다!

백악관에 보내는 편지

—야외무기전시장에 전시된 미군로획무기들로부터—

안녕하시오?
거룩하신 백악관의 주인나리
아시기나 하겠는지?
하지만 경건히 우리의 안부를 전하는바요

찌그러지고 조각나고 너덜거리지만
그래도 형체나마 아직 전사하고있소
최송함은

60년이 지난 오늘에야
불행중다행으로 밖으로 끌려나와
편지를 쓰게 된것이요

얼굴을 찡그리지 마오
우리도 당신의 얼굴을 보고싶어서 아니요
다만 이렇게 최후의 목소리를 짜내는것은
당신께 드릴 충고가 있어서일뿐

—제발 더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우리도 알고있소

지금도 당신은 화려한 원탁에

보좌관나리들을 거느리고 앉아서

새로운 조선전쟁의 작전방안을 연구하는줄

그리고 옆방 작전실에서

손끝 뽀족한 컴퓨터능수들이

전쟁모의프로그램작성에 여념없는줄

—아, 그러나 제발 부탁이오니

어리석은것은 그만두시오

그리고 전해주시오

군수기업체들의 육중한 철문사이로 보이는

현대기술을 뿜내며 정렬한 나의 형제들에게도

한자도 빠지 말고 한자도 틀림없이

우리의 절절한 당부를 전해주시오

—애들아 조선엔 오지 말아

우리는 이렇게 형제라도 남았지만

너희들은 재가루도 찾지 못할것이다

또한 여러분께

죽은자들의 엄숙한 모습으로

승패의 진리를 가르쳐드리겠소

—싸움은 무기로만 하는것이 아니요

그것은 사상과 신념의 대결

우리 미국엔 그것이 없소

무조건 달아빠고 무조건 항복하시오

잠간, 화가 나서 숨이 막히더라도

이 편지를 조금히 구겨박지는 마오

지금 우리 죽은자들의 현명한 눈에

뚜렷이 보이는것을 대드릴테니

당신들의 이마에 무엇이 찍혀있는지 아시오?

놀라진 마시오 그것은 다름아닌

《영원한 패배》라는 락인입니다

이 순간도 저앞에서

금별빛나는 조선의 공훈무기들이 지켜보고있어

와들와들 떨리는 펜을 이제는 멈춰야겠소

아, 그러나 최후의 용기를 짜내어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부디 이 편지를 소중히 건사하시어

자자손손 전해주시오

물위에 뜬 미국

1

동해에서 대동강으로

대동강에서 보통강으로

《푸에블로》호

물위에 뜬 미국이 끌려다니네

패자의 숙명은 언제나

고분고분함에 있다네

2

소년단벡타이 날리며

《푸에블로》호에 오른 아이들

미국을 딛고서 웃고 떠드네

3

지난날의 위풍은 그림자뿐

불행한 포로는 수치에 몸을 떠네

—나의 마지막소원은

산산조각이 나 바다속에 수장되는것

이처럼 산채로 구경거리가 되기보다는...

승리의 집

우리엔겐 있어라

보기만 해도

궁지로 이 가슴 한껏 부푸는

아, 그 모습 웅장한 전승기념관

새로 일떠선 승리의 집이

저 처마아래 들어서면

들려오는구나

하늘을 까맣게 덮으며 날아들던 적기들이

우수수 락엽처럼 떨어지는 소리...

그날에 쳐들었던 멸적의 포신

아직도 내리워지지 않고

그날에 퍼놓았던 섬멸의 작전도

아직도 펼쳐져있는 집

이 시각도 여기에서
 최후의 결전장을 향해
 비행기와 땅크들이 폭풍쳐가고
 수령님 우러러 터치던 전승의 만세소리
 오늘도 이 가슴에 우뚝치거니

무심히 볼수 없어라
 수령님의 전승업적 길이 빛내일
 선군조선의 그 신념 그 의지를
 기초로 묻고 벽체로 쌓아
 세상이 보란듯이 하늘높이 일떠세운
김정은시대 영광의 집이어

이제 이 처마와 잇달아
 행복의 거리들이 더 많이 일떠서고
 이 복도와 이어져
 기쁨의 유보도가 끝없이 펼쳐지리니

60년세월의 년륜에
 영원한 승리의 세월을 더해주며
 우리의 태양이 안아올린 영웅의 집
 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존엄이 지켜지고있었구나
 우리의 래일이 펼쳐지고있었구나

승리, 우리는 너와 함께 산다!

펄펄 휘날리는 《승리》상의 공화국기발
 노을타는 하늘가에 새겨진 불멸의 글발인듯
 한껏 뜨겁게 달아오른 가슴으로
 내 그 글발을 읽는다
 《승리》!

오, 장쾌하도다 승리!
 너는 미제를 쳐부신 영웅조선이
 저 우주에 새긴 진리!
 싸우면 언제나 이긴다는
 조선의 자랑스러운 선언!

다만 철과 철의 부딪침이었던가 전쟁은
 사상과 사상이 맞대인 불의 격전장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해
 삶보다 소중한 정의를 지켜
 이 나라의 영웅들이 피로써 부어낸 승리!

바로 그 승리였다
 너는 내 어릴적
 어머니의 잔등에 업혀 바라보던
 티 한점 없이 푸른 하늘이였고
 서투른 솜씨로 내 처음 그리던
 105땅크의 람홍색 공화국기였다

승리 너는
 초소로 떠나던 날 내 어깨에 배낭을 메워주며
 —통일영웅을 기다리겠어요
 확신에 넘쳐 조용히 울리던
 선생님의 그 목소리였다
 너는 목표판에 단발명중으로
 들어박히던 총알이었다

승리 너는
 고난의 그 나날

허리띠를 조이고 기대를 돌리면서도
 부르튼 입술에 어리던 미소였고
 밤새워 그려낸 설계도면을 앞에 놓고
 환희로 서로 부둥켜잡던 뜨거운 손들이었다

오, 승리!
 너는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의지!
 내앞에
 일제의 백만관동군이 무릎을 꿇었고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가
 세월을 이어 세대를 이어
 꺾이우고 잘리우고 부서져나갔다
 원썬들의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내 조국은 비약의 폭풍일으켜
 세기의 하늘높이 나래쳐올랐다

승리는 승리를 낳고
 승리에서 승리로 거침없이
 우리는 곧바로만 달려왔거니
 보라!
 승리의 발사대에서 솟구치는 승리의 별인양
 저 푸른 하늘가에 또다시 날아오른
 우리의 자랑스런 인공지구위성을!
 핵시험의 장쾌한 퇴성을!

오, 승리 너는
 태양의 축복받은 이 땅 이 민족의
 위대한 전통이며 유산!

휘날리라 승리의 기발이여!
 세월의 끝까지 펄펄 휘날리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따라 나가는 길에
 통일도 강성국가도 바로 눈앞에 있거니
 승리 우리는 언제나 너와 함께 산다!



고향의 백양나무

리 순 호

그림 김 광 석

좌아— 바람을 안은 아름드리 백양나무가 하늘을 메우듯 무성한 아지들과 잎새들을 흐느적이며 유정하게 설레인다. 방금 솟아오른 아침해빛에 파란 물이 오르기 시작한 가지들이 칠색무늬로 수놓아지고 그사이로 부채살같은 빛발이 눈부시게 쏟아져내린다. 백양나무가까이로 다가선 광진은 터슬터슬한 나무줄기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정겹게 쓰다듬었다.

그러자 별안간 가슴이 뭉클 젖어들며 눈곱이 찌릿해진다.

수천수백의 나래의 퍼덕임과도 같은 웅장한 설레임소리로 사회주의선경으로 꽃피는 내 고향의 힘찬 박동에 화음을 보태주며 삶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는 백양나무!

이 백양나무의 설레임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있는가.

1

중학교졸업이 가까와오자 그들의 열기는 절정에 달했다.

앞길은 창창했다. 초소로, 대학으로, 건설장이나 농장 그 어디나...

광진은 상급학교를 지망했고 그후 학교의 추천을 받아 농업대학입학시험을 쳤다. 그런데 시험에서 미끄러질줄이야...

졸업을 앞두고 마음이 들떠 돌아가다나니 시험공

부를 설쳤던것이다.

창피, 부끄러움...

광진은 농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뜻 일어나게 되지 않았다.

낮이 뜨거워서였다. 학창동무들은 모두 군대로, 대학으로 나래를 펴고 날아올랐는데 자기만이 죽지 부러진 외기러기모양으로 돼버렸으니...

농업대학을 졸업하고 어깨를 으쓱이며 고향에 들어서려던 희망과 포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아, 내가 이렇게 되다니. 막 울고싶은 심정이였다.

마을뒤산인 동점산에 올라 잔디밭에 누워 멀거니 흰구름 떠가는 하늘만 올려다보느라니 광진은 별생각이 다 들었다.

차라리 고향을 뜨고 말까? 아니면 들끓는 건설장 같은 곳에 찾아가 위훈을 세우는것도 청춘이 할 일이 아니겠는가. 옳다, 떠나가자. 여기서 창피스러워 못 견디겠다. 산에 올라 이 생각, 저 생각 굴리는것이 이제는 고정된 일과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던 어느날 신정남분조장이 광진을 찾아 동점산에까지 올라왔다. 50을 넘긴 나이임에도 아직 30대 젊은 시절처럼 팔팔 나는 그였다. 그의 걸음걸이가 어찌나 빠른지 황천왕동이 왔다가 울고갈 지경이었다. 반고수머리에 두눈이 치찌지고 얼굴이 갱핏한 그는 첫인상이 몹시 사나와보이는 사람이었다.

《광진이, 여기서 뭘해?》

광진은 자기가 그의 분조에서 일하게 됐음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체 하고 한숨만 내뿜었다.

《새파란게 웬 한숨이나 말야? 일어나라구.》

광진은 한옆으로 돌아누웠다.

《못 일어나겠나?》

그는 말에 날을 세웠다.

《일어섯!》

별안간 산판이 쟁! 울리도록 호령질하는 신정남이었다.

광진은 흠칫하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일어섯!》 하고 그는 다시 소리질렀다. 신정남의 눈에서는 불췌같은것이 탁 튀어나오는듯싶었다. 광진은 반발심을 느꼈다.

동무들은 그를 차돌맹이에 비유하곤 하였다. 성미가 부딪치기만 하면 광갓광갓 불꽃을 일으키는 차돌맹이와 비슷하다는 것이었다. 그런 광진이었으니 고분고분할리가 만무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느냐구? 너 지금 어느때게 건달이야?》

《건달이라구요?》

광진은 용수철처럼 튕겨일어났다.

《흥! 그래도 자존심은 있다는거로군. 자존심 있다는 녀석이 락엽흥내야?》

광진은 그만 할말을 잃어버렸다.

《자, 내려가자. 분조원들이 기다린다.》

광진은 하는수없이 분조장의 뒤를 따랐다.

내려가면서 신정남분조장은 주근주근 이야기자락을 떠나갔다.

《광진이, 대학에 못 갔다구 너무 락심할건 없어. 농사일을 하면서도 분발하여 배우면 되는거야. 거목으로 자랄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

《체, 나야 부러진 막대기와 같은데 어떻게 거목이 될수 있어요?》

심사가 꼬여난 광진은 비뿔어진 소리만 했다. 신정남은 빙그레 웃었다.

《새로 뿌리를 내려야지, 토양에 말이야.》

《부러진 막대기인데두요?》

《그렇지 않구.》

광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광진을 돌아보는 신정남의 얼굴표정은 착잡했다. 그는 광진을 마을 한복판으로 이끌고갔다. 거기에는 아름답디 백양나무가 풍채있게 서있었다. 몸매 실한 아주머니인양 풍만한 가지들을 내뻗치고 바람에 잎새들을 와슬렁거리며 설레이는 백양나무는 자못 위신있었다. 백양나무를 올려다보는 신정남의 얼굴에는 다함없는 애정이 흐르고있었다.

광진은 이 백양나무가 신정남분조장이 어렸을적에 전쟁로병인 아버지와 함께 심은 나무라는것을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고있었다.

은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겪던 시기에는 도끼세

례에서 구원해내기도 한 신정남이었다. 그때 어려운 속에서도 10일타아소를 새로 번듯하게 건설하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한차분의 제재목이 모자라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생각던 끝에 로력사정, 연유사정을 고려하여 먼 립산사업소에 가지 말고 있는 나무를 먼저 찍어쓰고보자고 일부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소식을 들은 신정남은 벌에서 일하던 맨발바람으로 달려와 나무앞을 막아섰다.

《나라가 곤난을 겪고있는 이때 농장살림이 어렵다고 예씨 키워놓은 큰 나무들을 다 찍어쓰면 농장풀이 뭐가 되겠습니까. 군사복무시절 고향을 그릴 때면 맨 먼저 떠오르는것이 바로 이 백양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고향의 표상이었고 상징이었습니다. 후날 아이들이 고향의 자랑이었던 나무마저 마구 찍어 지은 집에서 자기들이 자랐다는것을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것 같습니까? 우리 농장원들의 휴식터이고 애들의 놀이터이기도 한 이 백양나무를 찍어서는 안됩니다. 더 많은 나무를 심어가꾸어야 합니다.》

신정남의 절절한 호소에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광진이또래 개구쟁이들은 자기들의 놀이터를 지켜준 신정남이 고마와 그를 만나면 인사까지 했었다....

그건 그거고, 분조장은 왜 나를 여기로 데려왔는가? 혹시 이곳을 나에게 향토애를 심어주기 위한 교양장소로 리용하자는건 아닐까? 그럴수도 있어. 이렇게 단정한 광진은 어이없는 웃음을 머금었다. 신정남은 불어오는 봄바람에 어리광치듯 하느적이는 애어린 아지를 하나 붙잡아 점도록 들여다보더니 우람한 백양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길에는 다 자란 자식을 대하는것과도 같은 그런 대견함과 긍지감이 어려있었다.

얼마후 그는 날랜 솜씨로 백양나무에 오르기 시작했다. 광진은 의아히 분조장을 지켜보았다.

허리춤에서 톱을 뽑아든 그가 나무에서 엄지손가락굵기만 한 가지를 자르기 시작했을 때 광진은 아연해짐을 금할수 없었다. 그토록 귀중히 여기는 나무에 톱날을 대다니.

《자, 가자!》

밑으로 내려온 신정남은 광진을 운양천으로 데리고갔다. 운양천기슭에는 방풍림으로 심어놓은 크고 작은 백양나무들이 파수병마냥 일정한 간격으로 서있었는데 가지들마다에 앙증스런 어린 파란 잎새들을 키워안은 자기 모습을 밝은 내물에 비쳐보며 조용히 설레고있었다.

광진을 기다렸던듯 모여앉았던 분조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신입생이 이제야 오누만.》

《자, 입소식을 해야지요.》

오구작작 떠드는 분조원들이었다.

신정남은 빙그레 웃으며 들고온 백양나무가지를 광진에게 내밀었다.

《자, 봐라. 이 나무가지에도 역시 뿌리가 없다. 그러나 곧 뿌리를 내릴게다. 여기에 심어라.》

광진은 기가 막혔다. 백양나무란 가지심기로도 번식시킬 수 있음을 이미 알고있었기때문이었다. 그러니 나에게 직관교육을?... 체!...

나무가지를 받아든 그는 결집에 힘을 주어 아무렇게나 대충 심어놓았다.

그리고는 거칠게 숨을 다물어쉬었다.

《나무가지와 나를 대비하지 마시라요. 난... 감정과 리상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광진은 아연해서 바라보는 분조원들의 눈길을 외면한채 껌 하고 돌아섰다.

그렇다. 사람이란 리상이 있어 훌륭한 존재로 되는것이다. 아름다운 리상으로 자기의 앞날을 설계하고 그 리상을 꽃피우기 위해 줄기차게 생을 가꾸어야 할 인간을 축축한 땅이면 아무 곳에나 막 심어놓아도 뿌리를 내리는 이런 나무가지와 대비하니, 이것은 나에게 대한 모욕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여 신정남에 대해 전에 품었던 존경심마저 싹 잃을 지경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광진은 6분조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백양나무를 심는것으로 입소식을 해야 한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이 관례는 큰 백양나무가 찍히올번 했던 그날부터 생겨난것이라고 한다. 그날 신정남은 분조원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나와 백양나무가지를 심었던 것이다. 운양천기슭의 백양나무들속에는 분조의 좌상적인 김상규아바이며 박순옥아주머니며 광진이와 한포레인 김복실이가 심은 나무도 있었다.

농장관리위원회나 다른 농장으로 조동되어간 사람들이 심은 나무도 있었다. 광진이가 이것을 알고있더라면...

그날부터 그는 6분조에서 일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때문에 원심을 쓰는듯싶은 신정남분조장을 못마땅하게 여기었다. 대학공부를 못했으니 배움의 열망이라는데 대해 모를거야 하는 생각과 함께 20여년째나 분조장밖에 못하고있으니 시야가 넓을 수 없지 하는 측은한 감정까지 마음 한구석에 송라처럼 매달려있었기때문이었다. 한마디로 큰사람의 손에서 씻기우고싶은것이 광진의 심정이었다.

어느날, 그날은 비바람이 모질게 불었다. 그속에서도 분조원들은 운양천에 새로 양수기를 놓으려고 보둑을 쌓고있었다. 사나운 비바람때문에 일은 몹시도 힘들었다. 속옷까지 말끔히 적신 광진은 따뜻한 아래목이 못 견디게 그리워났다.

《광진인 인상이 왜 그 모양이야? 락태한 고양이처럼 잔뜩 찌프리고있으니.》

김상규아바이가 걸어오는 말이였다. 박순옥이도 한마디 한다.

《봄비는 맛을수록 좋은거란다.》

광진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인정사정 모르는 분조장에 대한 고까운 생각뿐이었다. 부디 골라골라 이런 날에... 참!

그날 광진은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아래목에 누워 창유리를 후려갈기는 비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니 문득 운양천기슭에 심은 백양나무가지가 생각났다. 그 백양나무가지가 무사치 못하겠구나. 영낙없이 태질을 당할거야. 뿌리가 없으니 별수 없는 일이지.

광진은 그 가지가 몹시 가없었다. 분조장이 잘라내지만 앓았더라면 아름다리 백양나무의 품에서 끄떡도 없었을것을...

다음날은 바람도 멎고 비도 멎었다. 광진은 분조포전으로 나가던 길에 우정 운양천에 들리었다. 헌데 이게 웬일인가. 분명 자기가 심은 아니, 대충 막아놓았던 그 나무가, 파아란 이파리들이 귀인성스럽게 돌아난 어린 백양나무가 싱싱한 모습으로 맞아주는것이 아닌가.

나무에 버팀목도 든든히 해주고 흙도 덧씩워주었다.

분조장의 소행이 틀림없었다. 비바람속에서 살아난 나무를 보자 광진은 야릇해지는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해 가을 분조는 농장적으로 제일 높은 수확고를 냈다. 농장결산모임때 분조전원이 주석단에 올라앉게 되었다.

그때 광진은 슬그머니 뺑소니를 쳤다. 분조원들덕으로 주석단에 올라앉게 되는것 같아서였다. 터벌터벌 운양천으로 나갔다. 털썩 주저앉고보니 공교롭게도 그가 심어놓은 백양나무가 앞에 있었다. 어느덧 일이 지고 앙상해진 어린 나무가 마가울의 찬바람에 오돌오돌 떨며 구원을 청하듯 자기를 쳐다보고있었다.

아직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을 잔약한 이 나무가 겨울을 꽤 이겨낼수 있을까? 힘들거야. 그러면 나는... 분조장은 날더러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잔소리지만...

광진은 눈을 꼭 감았다.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이때 등뒤에서 인기척소리가 났다. 이어 반기는 소리.

《네가 여기 있었구나.》

신정남분조장이였다. 그는 광진의 앞에 장승처럼 버티고섰다. 그 바람에 애달픔을 안겨주던 어린 백양나무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여기서 뭘해? 심원한 명상에라도 잠겼나?》

느물거리는 분조장을 대하자 까닭모를 분노가 치솟았다.

때없이 나타나서는 자존심만 굽어놓는 분조장이였다.

《몰라서 물어요?》

광진은 불이 부어 툇 내쏘았다. 신정남은 꺾꺾 소리내어 웃었다.

《허허, 이제 보니 차돌멩이라는게 영 쓸모가 없구나. 불길은 일으키지 못하고 고작해서 불꽃정도 나.》

《뭘라고요?》

벌떡 일어난 광진은 이를 옥물고 분조장을 쏘아 보았다. 신정남분조장은 광진의 그런 기분파위에는 개의치도 않았다.

《그렇게 골낼 일이 있나. 뭇뭇하게 살면 되는거지. 안 그래?》

신정남은 한걸음 옆으로 비켜서더니 광진이가 심은 어린 백양나무를 가리키는것이였다.

《봐라, 내 생각엔 이 나무도 사나운 겨울과 맞서기 위해 필요없는 잎은 모두 떨궈버리고 땅속깊이 뿌리를 내리고있는것 같다. 게가 허울을 벗는것은 크기 위해서이고 마가울철에 나무가 잎을 지우는것은 엄혹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싶다. 안 그래?》

《...》

광진은 누구나 쓸쓸한 심정으로만 대하게 되는 나무의 지는 잎에도 뜻깊은 의미를 담아 말하는 분조장을 새삼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러니 우리 분조장한테도 사물현상을 깊이 들여다볼줄 아는 안목이 배겨있단 소리데...

광진의 속마음을 꿰뚫어본듯 신정남은 빙그레 웃음지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무가 절로 거목으로 자랄수는 없는거야. 가꾸어주는 손길이 있어야 하거던. 나무줄기는 버짚으로 싸매주고 뿌리가 얼지 않도록 잔디도 입혀주고...》

분조장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양수장쪽에서 까르르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매장을 떠난 분조처녀들이 깔깔거리며 이쪽으로 오고있었다. 분조장앞에 다달으자 복실이가 처녀들한테 소리쳤다.

《순희동지, 인옥동지, 내 구령을 들어요. 나란히. 차렷!》

복실은 엄숙한 표정을 짓고 오른손을 들어 귀 가까이 가져다댔다.

《분조장동지, 명령대로 잔디를 많이 떠왔습니다.》

《쉬엿하시오!》

신정남이 짐짓 정색해서 보고를 받자 처녀들은 그만에야 배를 그러안고 대굴대굴 굴었다.

《애 복실아, 제발 웃기지 말아. 허리 끊어지겠다. 아이고, 호호...》

석양빛을 함뱍 담은 운양천내물도 하하 소리내어 웃기라도 하듯 일정일정 춤을 추며 흘러내린다. 하지만 광진은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광진은 그 웃

음에 끼이지 못한채 외토리마냥 우두커니 서있었다. 다만 입술을 꼭 깨물었다.

좋다, 이제부터 나도 본때를 보일테다. 사람들에게 뭇뭇해질테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눈물겨운 결심이 생겨나고있었다.

2

분조장은 새해에 들어서면서부터 짝만 있으면 동점산의 여기저기를 두들겨내어 자그맣게 만든 자루들에 흙을 담곤 했다. 말이 산이지 등글등글한게 모양없는 바위돌만 있는 언덕비슷한 야산이였다. 진귀한 보물이라도 찾듯 하는 분조장의 진지한 모습에 광진은 어리둥절해졌다가 이내 웃고말았다.

《분조장동진 꼭 보물을 찾는 소년같아요.》

《아닌게아니라 보물을 찾고있다.》

분조장의 말이 석연치 않았지만 광진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그런것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던것이다. 광진은 분조에서 자기의 몫을 찾고싶었다, 뚜렷한 몫을.

그는 논물관리공이 되고싶었다. 지난 한해 농사를 지어보면서 논물관리공의 역할이 자못 크다는것을 알게 된 그였다. 황차 논농사는 물농사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논물관리를 맡아본다면 사람들의 눈이 등그래질텐데. 농사에 도통한 사람들이나 하는걸로 알고있는 논물관리를 어린 나이에 벌써 맡아본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갓 공상에 불과했다. 분조에는 논물관리엔 귀신같은 김상규아바이가 있기때문이었다. 분조장이 분조한해농사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뜻내기인 자기에게 맡길리는 만무한것이였다. 허나 유혹이란 검질긴것이였다. 모판씨뿌리기가 끝난 어느날 점심때가 되어 집으로 돌아올 때 김상규의 가까이에 붙어선 광진은 슬며시 말을 붙여보았다.

《아바이, 한가지 도움받을 일이 있는데 들어주실래요?》

《뭘데?》

《꼭 들어주셔야 해요.》

광진은 먼저 다짐부터 두었다.

《이런 성화라구야. 뭘지 알아야 들어주구말구가 있지.》

《다른게 아니구 올해 논물관리를 내가 해보고싶어서 그래요.》

《뭘, 뭘? 허허허...》

김상규아바이는 소리내어 웃었다.

《요 차돌멩이녀석아, 사람웃기지 말구 농사일이나 착실히 배워라. 이도 안난게 콩밥먹을 궁냥이니 내참, 소가 웃다 꾸레미더질라.》

《아니, 아바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첨단시대인데 굶뽕이처럼 기여다니겠어요? 서너계단씩 단번에 뛰어올라야지. 안 그래요?》

광진은 자기의 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분조장처럼 《안 그래요.》를 마감말로 덧붙였다. 대답이 궁해진 김상규는 쫓쫓하고 혀를 내둘렀다.

《네가 차돌맹이가 옳긴 옳구나. 하지만, 허허허...》

《그냥 차돌맹이, 차돌맹이 하지 마시라요. 나라고 노상 불꽃박에 못 일굴줄 알아요?》

광진은 결이 나서 씨근거렸다. 이 순간에는 차돌맹이라는 소리가 정말로 듣기 싫었다. 마치 막내동이 웅석받아주듯 하는 김상규아바이였다. 하긴 그럴것이다. 철없는 아이의 어리광으로밖에 더 여겨지랴. 아바이가 이 정도니 분조장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어쩐지 서글퍼졌다.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면서 무슨 재미로 일하고 무슨 멋으로 산단 말인가.

못사람들의 물망에 오르고 떠받들리울 때 일하는 멋과 의욕이라는것도 생겨나는것이 아니겠는가. 또 궁지와 자부심도 생기고... 궁지와 자부심이란 그 자체에도 의의가 있지만 보다는 자기 운명을 남만 못지 않게 개척하며 자신의 존엄과 청춘의 영예를 펼칠수 있다는 신심과 의지를 가지게 된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는것이다. 마음이 울적해진 광진은 점심도 대충 때고 오후작업도 건성으로 했다.

하루휴식일을 보낸 다음날 저녁이었다. 분조장은 하루작업총화뒤끝에 자그마한 자루들의 아구리를 펼쳐보이는것이였다.

《이게 뭘지 압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던 사람들이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이거야 동점산에서 분조장이 파낸 산흙이 아니냐요.》

《산흙이지요. 하지만 그냥 산흙이 아니라 린회토란 말입니다. 한달전에 도농업과학원분원에 이결 보내놓구 분석자료가 나오길 애타게 기다렸는데 어제 휴식일을 리용해서 찾아가보니 글썽 이게 아주 질 좋은 린회토라 하는게 아닙니까. 한마디로 저 동점산전체가 하나의 천연광물질자원이라 그 말입니다. 허허허...》

신정남은 어깨를 들썩이며 호방지게 웃었다. 광진은 경이의 눈길로 분조장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정말 보물을 찾았구나, 또 하나의 고향의 자랑을...

나지막한 언덕에 불과한데다가 등글등글하게 모양없는 바위들만 솟아있어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던 곳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원소복합광물질비료나 유기질복합비료첨가제로서의 린회토의 역할은 농사에서 자못 큰몹을 차지한다. 말로만 들어오던 그 린회토를 바로 자기들이 사는 땅에서 찾아낸것이다.

《이제부터는 모판 덧비료로 섞어쓸 린회토채취

를 대대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신정남은 이렇게 강조하고나서 김상규아바이더러 본답논물잡이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만합시다.》 하고 분조장이 마감지으려는데 예상외의 일이 일어났다.

김상규가 논물관리를 못하겠노라고 제기하는것이였다.

아바이는 자기의 고질적인 관절염때문이라고 했다. 신정남은 더 말을 못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광진이도 아바이가 논고를 돌아보다가도 아무데고 주저앉아 한참씩이나 무르팍을 주무르는 것을 보곤 했었다.

《정 아프다면야 할수 없지요.》

신정남은 분조원들을 한사람한사람 뜯어보기 시작했다. 논물관리공을 새로 임명하려는것이였다. 광진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안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분조장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분조장의 눈길은 가운데 앉은 그를 건넜었다.

역시... 실망과 분기가 동시에 치밀었다. 서쪽하늘가에 피처럼 가로질린 저녁노을이 입술을 깨물고 분조장을 쏘아보는 광진의 파릿해진 얼굴에 불그스레한 빛을 던져주고있었다.

이때 김상규아바이가 다시 제기했다.

《난 저 차돌맹이녀석을 아니, 광진이를 시켰으면 하우다.》

《광진이를요?》

뜻밖인듯 반문하는 신정남이였다. 그는 마치 광진의 금새를 가늠하려는듯 두눈을 쏘프리고 바라보았다.

광진은 그런 눈길을 받는것이 싫었다. 그래서 맞갖게 툭 내쏘았다.

《난... 논물관리공을 안해요.》

저도 모르게 튀여나간 말이였다.

《이녀석, 사내라는게 왜 주매가 없어, 바람맞은 갈대처럼 흔들흔들하면서. 이제 보니 차돌맹이는커녕 썩돌도 못될 녀석이로군.》

버럭 언성을 높이는 김상규였다. 진정으로 화를 내는 그를 대하자 광진은 고마움으로 하여 목이 메었다. 자기를 위해주고싶어하는 진심을 읽었던것이다. 그러니 나한테 논물관리를 넘겨주려고...

《분조장동무, 광진이한테 맡겨보자구요. 어리다구 논고를 못 본다는 법이야 없잖수.》

옆에서 박순옥이 김상규아바이를 지지해 한마디 한다.

광진은 고개를 수그렸다. 눈앞이 뿌예졌다. 분조원들이 나를 믿고있구나. 그 믿음을 저버리고싶지 않았다.

그는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분조장동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잘해보겠습니다.》

분조장의 눈가에 따뜻한 빛이 어리였다. 마치 그

런 대답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라도 한듯.

《역시 광진인 시원시원해서 좋거던, 허허… 하긴 그래서 차돌맹이지.》

신정남의 말에 좌중에서는 웃음이 일고 처녀들은 찹찹박수까지 쳐주었다.

광진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분조원들을 둘러보았다. 농장원으로서 한눈이 우뚝 올라선것만 같은 이 일이 앞으로 자기의 생활에 의의있고 궁지로운 무엇인가를 안겨줄것 같은 예감으로 하여 마음이 붕— 떠올랐다.

그래, 한번 부딪쳐보자. 나를 못미더워하는 분조장이 깜짝 놀라게 논물관리를 본때있게 해볼테다 하는 승벽심이 속에서 꿈틀거렸다.

3

광진은 분조장의 지시에 따라 논씨레를 위한 초물잡이를 시작했다.

인수로독우로 넘쳐나도록 흘러내리는 물을 사방으로 갈라 여러 논들에 잡아넣었다. 그런데 아무리 눈에 물을 잡아넣어도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기였다.

말라터진 갈이흙들의 먹성이 어찌나 좋은지 논고로 졸졸 흘러드는 물따위로는 어렵도 없었다. 광진은 속이 까맣게 타서 허둥지둥 뛰어다녔다. 글썄 다른 분조에서는 영양모내기를 위한 물씨레까지 쳐놓았는데 자기는 아직 한논배미의 물조차 대지 못하고있으니…

광진은 상규아바이를 찾아갔다. 아바이는 린회토를 파내고있었다.

《아바이, 논물대기가 험치 않구만요.》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우는 소리냐? 물이 바른것두 아니구 독우로 넘쳐나도록 내려오는데.》

못마땅한듯 한쪽눈썹을 찡긋하며 시까스르는 아바이였다. 그러거나말거나 광진은 지긋게 달라붙었다. 언제 자존심을 돌볼 처지가 못되었다.

《물대는 방법을 좀 대달라요.》

김상규아바이는 삽질을 멈추었다.

《넌 지금 쉽게 일해먹으려 하고있어. 이쪽논, 저쪽논 사방 널어놓지 말구 한논에 집중해서 통물을 먹여야 해.》

《예? 아니, 그럼… 지금도 인수로독우로 넘어나는 판인데…》

《그래두 해야지. 논고를 넓히구 인수로독도 높이구…》

듣고보니 아득한 일이었다. 수로치기를 했지만 통물을 먹이려면 폭이 낮은 곳이 서너군데 되었던 것이다. 로력이 필요했다.

광진은 분조장을 찾아갔다.

신정남은 흙구이로에서 린회토를 구워내고있었다. 유기물질과 질소성분이 거의 포함되어있지 않

고 린함량이 어느 흙의 5배나 되는데다가 여러가지 미량원소들이 포함되어있는 많은 량의 린회토를 리용하면 오히려 지력을 떨어줄수 있다면서 린회토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연구하고있는 것이었다. 생각외로 아는것이 많고 다방면적인 분조장이었다.

《로력이 필요해서 왔어요.》

광진의 설명을 듣고난 신정남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거참, 야단인데. 당장 떼낼 로력은 없구.》

광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씨레선행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지. 하지만 다른 공정들도 같애. 어떻게겠나, 물관리공이 맡는 수밖에.》

신정남은 할말을 다했다는듯 더 돌아보지 않고 연구사업에 몰두했다.

광진은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말았다. 신정남은 사나와보이는 첫인상과는 달리 좀해서는 성을 낼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듣기 좋은 말로 지시를 주고는 《안 그래?》 하고 돌아서면 그만이었다. 그다음에는 용수가 없었다. 그것이 《집행하시오!》, 《알았습니다!》에 습관된 인민군대식인지. 하지만 광진은 어쩐지 자기한테는 더한듯이 여겨졌다.

광진은 이내 어이가 없어 피씩 웃어버렸다. 지내 놓고보니 신정남은 담배씨로 뒤옹박을 팔 그런 좀스러운 위인은 아니었다. 어딘가 모르게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물론 이 평가는 이성적인 사고의 산물이지만 지금의 감정으로써는 분조장의 처사가 마음에 들리 만 못했다. 리성이 있어 인간이 아름다운 존재로 된다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고와 행동을 논리적인 판단과 결과속에서만 할수는 없는것이다. 수양이 낮은 사람일수록 감성의 지배에서 벗어나기가 힘든것이다. 광진은 속으로 이렇게 자승자박하며 인수로독을 높이느라 하루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삽질을 했다. 성나면 보리방아를 더 잘 찧는다고 씩씩거리며 인수로독을 멋있게 보강해놓았다.

통물을 밀어넣어주자 논판에 물이 차오르는것이 눈에 띄이게 알리었다.

그러자 어떤 궁지감 비슷한것이 생겨났다. 힘들게 일한 보람이란 바로 이런것이구나. 문득 자기를 힐난하던 김상규아바이의 말이 떠오른다.

《물이 바른것두 아니구 독우로 넘쳐나도록 내려오는데… 넌 지금 쉽게 일해먹으려 하고있어.》

광진은 얼굴이 화끈해졌다. 하마트면 김상규아바이며 분조원들의 믿음을 저버릴번 했던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광진은 저녁상을 마주했다. 그런데 이몸이 아파서 밥을 씹을수가 없었다. 하루종일 삽질을 하느라 저도 모르게 이를 악물고있어서인지 이몸이 부어올랐던것이다. 찬물에 말아 훌렁훌렁

몇순가락 넘기고 물러났는데 복실이 찾아왔다.

《분조장동지가 빨리 나오래요. 트랙포르가 썰레 치러 온다구요.》

후유— 절로 긴숨이 나간다. 하는수없이 일어서야 했다. 썰레를 다 칠 때까지 물높이를 조절해주어야 했다. 금시 땅속으로 잣아들듯싶은 몸을 끌고 집을 나서려니 분조장에 대한 원망이 짙어졌다. 오늘같은 날은 좀...

내가 괜히 눈물관리공이 된게 아닐까 하는 후회까지 들 지경이었다.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모판포전을 지나치는데 그쪽에서 인기척소리가 났다.

모판관리공인 박순옥아주머니가 박막우에 나뉘를 덧쳐워주고있었다. 오늘 밤 기온이 내려가겠다는 일기예보를 듣고나온 모양이었다. 그도 온 하루 모판관리하느라 지쳤을터인데 자기 임무를 자각하고 다시 나온것이였다.

그런데 나는 방금전까지만 해도 허튼생각을 하고있었으니 참.

광진이, 넌 아직 멀었어.

물을 댄 포전쪽에서 트랙포르의 동음소리가 들려왔다. 썰레를 치는 모양이었다.

광진은 조금해지는 심정으로 걸음발을 재우쳤다. 포전에 다달으니 신정남이 논두렁에 서서 트랙포르의 작업모습을 지켜보고있었다. 그의 손에는 삽이 들려있었다. 광진이가 미처 막지 못한 논고를 막고 보를 더쳐 다른 논에 대고있었던것이다.

썰레치는 포전의 물도 낮추고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자기의 작업모습을 지켜보고있으면 분명했다. 그리고는 농친 일거리들을 뒤에서 바로잡아주는 것이였다.

잘하느라 했는데도... 추궁하겠지?

광진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분조장한테로 갔다.

《들어가시라요.》

뜻밖에도 분조장은 빙그레 웃었다.

《두바닥씩이나 물을 대놓았구만. 수고했소.》

마음이 별나졌다. 자기 마음을 분조장이 알아주는 것이였다. 분조장이 썰레물을 잘 봐주라고 강조하고나서 어둡속으로 사라져버리자 광진은 숨을 한껏 들이그었다. 맑고 시원한 밤공기가 폐장깊이 흘러들며 심신을 거뜬하게 해주었다. 그러자 금시 땅속으로 잣아들듯싶던 온몸에 활력이 부어지고 혈관으로는 뜨거운 피가 급류처럼 흐르는듯싶었다. 방금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쓰러뜨릴듯싶던 피로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왕성한 청춘의 혈기가 웅솟음치는것 같았다.

문득 광진에게는 데설긋고 인정사정없어보이는 신정남분조장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고상한 세계가 자리잡고있는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다면 오랜 농사군인 김상규아바이나 박순옥아주머니나 나와 동갑

이인 복실이까지도 것처럼 분조장을 신뢰하며 따르겠는가. 감정과 의사가 통해야 서로 친숙해지는 법이다. 분조원들이 신정남분조장을 존경하는것은 농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높은 사업수완만이 아닌 그 어떤 웅심깊은 세계에 공감해서일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한해전 대학에 가지 못한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여 고향을 뜨려고까지 했던 자기를 붙잡아준 분조장이였다. 자신을 부러진 나무막대기로 비유하면서 수치와 모멸속에서 헤매고있을 때 자기를 알고 분발할수 있도록 원심을 써준 신정남분조장이였다. 그는 처음 광진이가 생각했던것처럼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었다. 대할수록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였다. 그렇다면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모르고있는가?

광진은 이때처럼 분조장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기는 처음이였다.

4

논벌은 모내기로 뚫고있었다. 통통거리며 돌아가는 모내는기계, 걸싸게 논두렁을 오가는 모집군들과 썰레를 치느라 통따따따 용을 쓰는 트랙포르의 발동소리... 트랙포르의 앞시창에서는 태양의 빛이 번쩍이고 포전머리에서 펄럭이는 붉은기들과 포전 구호판들에서 타오르는듯 한 글발들이 모내기전투의 의미를 더욱 강조해준다.

광진은 논고를 돌아보느라 다람쥐 채바퀴돌듯 하고있었다. 광진은 자기 몸이 열개였으면 하는 체험을 이날 처음으로 했다.

트랙포르가 썰레를 잘 칠수 있도록 논물을 조절하고 모내는기계가 벼모를 정확히 콧을수 있도록 물높이를 알맞춤하게 낮추었다가 다른 포전으로 넘어가기 바쁘게 모살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깊은 물대기를 한다. 그리고는 다른 배미로 넘어가며 논두렁에 낸 트랙포르의 바퀴자리를 메우고 논물을 고정시킨다.

모내는기계가 쉽게 넘을수 있도록 낮추어놓은 논두렁을 보수해야 갓 콧은 벼의 입귀까지 물을 채울수 있다. 어디서나 논물관리공을 찾는다.

《물이 작아요.-》

《물이 많아요.-》

분조장은 분조장대로 광진을 붙들고 이것저것 시킨다.

《저쪽 논가녁이 좀 높은듯 한데 떠던져야겠소. 모를 콧으면 말라죽을수 있거던.》

《모판포전물이 밭은듯 한데 한번 가보라구.》

다리가 뻥뻥해지고 쥐가 일것 같았다. 아이구, 험치 않구나. 내 몸이 열개였으면...

엎친데 덮친 격으로 방금 트랙포르에서 부러운 모춤의 일부가 물길을 따라 등등 떠내려오다가 인수로에 걸려 물목을 막아치운다. 인수로에서 모춤

을 건져내어 모내는 포전으로 날라가는데 한식경이나 걸렸다. 그러는 사이 트랙포르가 다른 논으로 건너가고 모내는기계가 새 포전을 넘어선다. 한숨 돌릴새없이 또 뛰어가야 한다...

...모내기로 들끓던 벌에 고요가 찾아들었다. 하루일이 끝난것이였다. 서해제방쪽너머로 자취를 감춘 태양의 잔광으로 불타오르던 저녁노을이 사라져 버리자 들판에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광진은 삼으로 논고를 막고있었다. 분조포전을 한바퀴 돌아본 분조장이 그에게로 다가왔다.

《오늘 보니 광진인 마치 무엇에 놀라 쫓기는 사람같더구만.》

광진은 분조장의 말뜻을 몰라 멀뚱해서 바라보았다. 오금을 꺾고앉은 신경남은 광진이가 방금 막아놓은 논고를 이윽히 내려다보았다. 뭔가 못마땅해하는 기색이였다.

《말이 반찬으로 되어서는 안될텐데.》

분조장의 말에 광진은 되물었다.

《그건 어떻게 하는 말씀이예요?》

고개를 들어 광진을 바라보는 신경남의 눈에서는 따뜻한 빛이 흐르고있었다.

《광진인 상규아바이더러 지금은 한걸음, 두걸음이 아니라 서너계단씩 뛰어다녀야 한다고 했다면 서? 현대 하는 일을 보면 그렇지 못하거던. 남들은 자동물고를 만들어쓰면서 앞으로는 필지별 토양조건과 벼의 생물학적특성, 벼의 생육상태와 성장조건에 맞게 물높이와 물온도, 수질을 자동적으로 조절할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농사에서도 현대화를 실현하겠노라고 큰소리치는데 광진인 이게 뭐야? 그 식이 장식으로 옛날처럼 삼으로 논고를 막고 보를 더치니... 도무지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같질 않아 그러는거야.》

그의 말은 광진의 심리를 심하게 자극했다.

《나도 시간만 있으면 공부도 하고 자동물고도 만들수 있어요.》

신경남은 눈살을 찌프렸다.

《전달군이나 게으름뱅이들도 시간타발은 할줄 알지. 어떤 책을 보니 뜻있는자는 시간을 쟁취한다고 썼더구만.》

분조장이 가버리자 광진은 물가에 삼을 콕 박으며 혼자 두덜거렸다.

《체, 난 뭐 책을 못 보았나? 교육자는 시간이 곧 지식이라고 말하구 문학가는 시간은 곧 금싸래기라고 하구 군사가가는 시간은 곧 승리라고 말하구의 학자는...》

《호호호...》

별안간 터지는 웃음소리에 광진은 시뻘조리듯 하던 말을 툭 끊고 뒤를 돌아보았다. 복실이와 다른 처녀가 입을 싸쥐고 웃고있었다. 모공급수들이였다.

모내는기계를 청소하면서 분조장과 자기가 나눈

말을 다 들은 모양이였다.

광진은 눈살을 찌푸려 세웠다.

《웃긴, 허파에 바람들었나?》

《아이참, 웃기지 말아요. 허리 끊어지겠어요, 호호호...》

광진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복실이였다. 하긴 학교때 초급단체위원장사업을 했었으니까. 광진이 역시 복실이 싫지 않았다. 키가 크고 몸매가 꼭 빠진 그는 체육에 취미가 있었는데 특히 룡구를 즐겨했다. 그의 관뿔대내기와 먼거리던져넣기슁슁치는 보는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낼 지경이였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농장선수로 뽑혀 군적인 룡구경기에도 참가했었다. 광진은 처녀들의 웃음에 휘말리어 저도 모르게 험스하게 웃고말았다.

얼마후 그들은 퇴근길에 올랐다.

《광진동무, 우리 집에 수지로 만든 자동물고가 있어요.》

아까 웃을 때와는 달리 차분한 어조로 말하는 복실이였다.

《뭐, 자동물고?! 그건 어디서 났어? 복실동무가 만들었어? 당장 가서 보자구.》

《아이참, 급하기란 콩밭에 서술치겠네.》

딛지 않게 눈을 할기는 복실이였다.

《글쎄 어디서 난거냐 말야?》

《분조장동지가 만든거지요 뭐. 며칠전에 자동물고도면을 들고 우리 집에 오셨됐어요. 우리 아버지 그 도면을 보고 기발하다고 무릎을 치더군요. 밤새 함께 공장에 나가 만든거예요.》

아참, 복실이네 아버지가 농기구공장에서 일하지. 분조장동진 그래서...

분조장의 모습이 삼삼히 밝혀온다. 피발이 선 눈, 부르튼 입술, 꺼칠해진 볼.

모내기전투를 지휘하는 그 여가시간에 자동물고를 만들고 린회토효과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방도를 찾기 위해 여러모로 논들에 시험해보며 고심하는 분조장이였다. 그런데 난... 결국 몰인정한 인간은 나였구나. 무슨 일에서나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고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우려들고...

김상규아바이 말마따나 차돌맹이는커녕 썩돌도 못될 위인이였어.

자책으로 하여 가슴이 쓰러났다. 복실을 대하기가 열적어졌다.

그날부터 광진은 복실이 아버지와 함께 자동물고를 만들며 농업과학기술지식을 섭취하기 위해 애썼다.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같지 않다고 하던, 뜻있는 사람은 시간을 쟁취한다고 하던 분조장의 말이 그를 자각케 만든것이였다.

모내기가 끝난 날 저녁 광진은 자동물고들을 손수레에 싣고 논에 나가 설치하기 시작했다. 개구리울음소리만이 소연한 포전에서 한개 또 한개 자동물고를 설치하느라니 남들은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의 수준을 높여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겠노라 큰소리치는데 그 식이 장식으로 살겠느냐고 깨우쳐주던 신정남분조장의 말이 다시금 뇌리를 쳤다. 그러자 진정으로 부끄러워났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 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온 나라가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이때 나는 정말 안온하게 살아왔구나. 그러면서도 마치 내가 큰사람을 못 만나 빛을 못 본 존재처럼 여겼었지. 나야말로 지붕우의 호박을 따려던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은 인차 성공할수는 있겠지만 별을 따려는 사람을 따라잡을수는 없는것이다. 그래서 안된다. 하늘의 별을 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선군시대 전형들의 녀과 뜻을 본받아야 한다. 한생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따라배워야 해...

광진은 밤새도록 자신을 납득시키고 새로운 결심으로 마음을 굳히며 일을 했다. 그리고는 동녘하늘이 푸릿해짐을 느끼며 발을 딛고선 곳이 어딘지 인식 못한채 어푸러져 세상 모르게 잤다. 눈을 떠보니 거대한 기폭같은 붉은 노을이 동녘하늘가를 황홀하게 물들이며 넓게 퍼져가고있었다. 오색령룡한 이슬이며 창끝처럼 일어난 푸른 벼포기들이며 조잘대며 흐르는 보도랑의 물이며 끝간데없이 펼쳐진 대지의 모든것이 노을빛을 둘러감은채 저마끔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고있었다. 그속에서 대형구호판에 씌여진 글발들이 광진의 가슴을 쿵 울려주며 눈앞에 확 안겨들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잠시 구호의 의미를 음미하던 광진은 세면을 하려고 보도랑의 물을 떠들었다.

문득 느껴지는바가 있었다. 어제와 그리고 밤에도 새벽에도 변함없이 흐르는 물, 이 물이 없었더라면 어찌 이 넓은 논밭을 적실수 있으랴. 양수기를 손색없이 정비해놓고 밤낮없이 물을 퍼올리고있는 양수공아바이였다. 그러면 분조장은...

느닷없이 떠오르는 분조장 생각이였다. 그는 또 무슨 일거리를 안고 간밤을 보냈을가. 그새 내가 너무도 분조장의 속을 태워주었지. 철없이 말아야.

회오를 안고 마을로 향하느라니 마을 한복판에 하늘을 떠이듯이 서있는 백양나무가 어서 오라 광진을 부르는듯싶었다. 오늘은 휴식일이니 작업반원들은 저 나무밑에 모여들어 오락으로 즐거운 휴식의 하루를 보낼것이다.

광진은 운양천기슭에 심은 백양나무가 생각이 났다. 언제가야 저런 거목으로 자랄는지. 불현듯 그 애어린 나무가 보고싶어졌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 사이 운양천으로 향해졌다.

그곳에서는 모진 비바람과 사나운 겨울을 이겨낸 백양나무가 마치 그를 기다리고나있은듯 몸을

곧추 세우고 푸른 잎새를 살랑거리고있었다. 한해 사이에 제법 키도 자라고 가지도 많아지고 매출한 줄기도 싹해져서 소리높이 자랄수 있는 앞날이 확고해보이는 나무였다. 벼립목이 없었더라면 뿌리가 없던 나무가지에서 어찌 오늘과 같은 날을 기대할수 있었으랴.

문득 이렇게 자라도록 너무도 관심이 적었다는 자책이 들었다.

나무아래편에 있는 양수장에는 자주 와보면서도 말이다. 그만큼 자기한테는 설된 구석이 많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간 광진은 손수레에 거름을 한가득 싣고 다시 나와 나무밑에 물어주었다. 거름주기를 끝낸 그가 발로 푹푹 다지고있을 때 복실이가 나타났다. 무등 반가와난 광진은 무뎠없이 물었다.

《복실이, 어디 가니?》

《분조장동지한테요.》

《분조장동지한테? 아니, 어디?...》

《양수장에 계세요.》

《양수장?!...》

《아이참, 아직 몰라요? 논물관리공이라는 사람이...》

곰게 눈을 할기는 복실이였다. 그 눈빛이 별스레 광진의 가슴 한끝을 쿵 찔렀다.

은연중 눈매가 꽤 굵다는 새삼스러운 생각에 속이 울렁거려남을 어쩔수 없었다. 제김에 낫이 확달아올랐다. 복실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듯 혼연한 어조로 설명했다.

《엣저녁 급성충수염으로 군인민병원에 입원한 양수공아바이를 대신하고있거던요.》

광진은 손으로 이마를 탁 쳤다.

난 그런것도 모르고...

가지많은 나무 바람 잘새가 없다고 20여명이나 되는 분조원들의 온갖 가정사말사까지도 안고 모지름쓰는 분조장이다. 진심을 따르고 사랑을 베탈하는것은 인간의 성정이다. 분조원들이 신정남분조장을 존경하며 따르는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 그런데 나는... 광진은 다시한번 자신을 타매하며 복실이와 함께 양수장으로 갔다. 안은 비어있었다.

《어디 가셨을가?》

복실이가 밖으로 나가자 양수장안을 둘러보던 광진은 무심결에 탁자우에 있는 수첩을 집어들었다. 첫장에 《분조토양과 린회토의 리용》라고 씌여져있고 매 포전별, 필지별로 린회토를 낸 정형과 벼생육상태에 대한 관찰결과가 적혀있었다. 유기질비료와 흙보산비료에 의한 혼합리용방법이 가장 효과성이 높다는것이 첫눈에도 알렸다. 신정남분조장은 고심어린 노력끝에 린회토의 다량도입을 위한 전망을 열어놓은것이였다. 고향의 쓸모없던 동점산의 흙 한줌조차도 훌륭한 보물로 만든 신정남이였다. 고향을 위해 한몸 내대는 고향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어찌 이런 좋은 일을 할수 있으랴.

광진은 속이 췌해남을 어쩔수 없었다. 다음장을 번지니 갈게늘개간전망도가 나졌다. 갈게늘이란 분조의 유축인 서해제방쪽가까이에 있는 비경지를 말한다. 여러정보나 되는 그곳은 지대가 낮아 늘 물이 고여있는 침수지인데다가 갈숲이 우거지고 개간하기가 힘든 땅이어서 쥐 소금독이듯 야금야금 황폐화되어가고있었다.

신정남분조장은 이것이 마음에 걸린 모양 대담하게 한해 겨울사이에 갈게늘전부를 개간하고 부침땅으로 만들 방안을 세워놓은것이였다.

광진은 솟구치는 희열로 가슴을 풀떡이며 밤을 물길과 인수로, 보도랑과 퇴수로까지 표시되어있는 도면을 점도록 들여다보았다.

이윽하여 분조장이 안에 들어섰다. 의외에도 그의 손에는 낚시대가 들려있었다. 뒤따라 들어오는 복실의 손에 쥐어진 그물망태속에는 팔뚝같은 메기며 가물치따위들이 아가미를 넘적거리며 기분 좋게 푸들쩍거리고있었다. 분조장이 낚시대를 들고다니는것도 놀라웠지만 큰 물고기만 해도 여러마리씩이나 낚아낸 그 낚시솜씨가 더욱 놀라왔다. 분조장이 양수장 한켠에 낚시도구들을 내려놓는데 박순옥이 문가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목직해보이는 보자기가 들려있었다. 그를 보자 신정남이 반색을 했다.

《순옥아주머니가, 마침이군요. 수술이 괜찮게 되었대지요?》

그러며 정남은 그물망태를 가리켜보였다.

《철미 아버지한테 좋을까 해서 낚시대를 들어보았는데 영 소득이 없진 않군요, 허허.》

《분조장동무!...》

별안간 격하여 부르짖는 박순옥이였다.

《분조장동문 너무해요. 딸 은숙이가 취장염으로 입원해있는데도 영 내색을 앓고있으니... 우리 분조원들은 뭐가 되라는거예요. 우린 뭐 분조장을 위해 주면 안된답니까?》

광진은 깜짝 놀랐다. 딸 은숙이가 입원해있다니?... 그러면서도 아무 내색없이 분조장은 분조원들을 위해 더 속을 써왔더라란 말인가. 부지불식간에 욱하고 치미는 울기를 참을수 없었다.

《분조장동진 정말 너무합니다.》

그것은 광진이 자기자신에 대한 환멸이였다. 자아반성이기도 하였다.

《헛참, 광진인 왜 결파라 끊는거야. 우리 은숙인 이젠 다 나왔다. 가만, 거 보자기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

분조장이 말꼬리를 슬쩍 돌리자 분위기가 순간에 달라졌다.

눈곱을 훔치고난 박순옥은 보자기를 풀며 호기있게 말했다.

《분조장이 아침식사를 못했을것 같아서 없는 솜씨를 보였수다.》

보자기를 풀어헤치자 맛갈스러운 음식들이 나졌다. 돼지고기편육도 있고 낙지자반이며 미나리무침에 오이랭채도 있었다.

《이크, 이 음식들이 길을 잘못 든건 아니요? 병원으로 가야 할텐데.》

《바루 찾아왔수다.》

《그렇소? 허허허...》

분조장은 이러면서도 선뜻 수저를 들지 못했다. 박순옥이 혀를 찼다.

《또또, 분조원들 생각... 내 다 생각이 있다니까요.》

신정남은 광진을 곁으로 불렀다.

《광진이도 식전일텐데 같이하자구.》

그는 광진이가 밤을 때며 자동물고를 설치한것도 알고있는것이였다. 보지 않는것 같으면서도 모른것을 다 보고있고 모든 사실을 다 알고있는 신정남이였다.

《참 광진이, 나한테 참고로 보던 농업대학교재랑 현대농업과학기술서적이 몇권 있는데 가져다보라구.》

복실이가 수저를 쥐여주며 곡진한 어조로 말했다.

《분조장동지, 어서— 그리구 하루 폭 쉬면서 은숙이한테두 다녀오시구요. 은숙이가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겠나요.》

복실의 말에 신정남의 울대뼈가 꼰떡 오르내렸다.

《고맙다!》

신정남은 미나리무침에 저가락을 가져갔다.

《허, 이거 고급료리사가 왔다가 울고가겠수다.》

《그렇지요?》

《그렇잖구요, 허허...》

《호호호...》

좌석은 화락해졌다.

《실은 우리 철미 솜씨인데 그만하면 괜찮지요?》

《철미를 요리전문가로 키워야 되겠수다.》

분조장이 주어주자 박순옥의 입이 함박만 해졌다.

《이거 내가 정식으로 한상 차려야겠군요.》

《허허...》

겉겉 웃던 신정남은 혈조가 핀 얼굴을 광진이한테로 돌렸다.

《광진이, 아까 보니 백양나무밑에 거름을 묻어 주더구만. 좋은 일이야. 참, 내 어릴 때 있던 일을 하나 이야기할가?》

신정남의 눈에는 따뜻한 추억의 물결이 이랑지고있었다. 활짝 열려진 문밖에서는 하늘높이에

서 울어대는 종다리의 지저귐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내가 여덟살쯤 됐을가. 휴식일에 작업반이 저 운양천기슭에 야유회를 나갔던적이 있었네. 봄 떠서 돌아가는 날 보고 아버지가 불을 땔 나무를 주어오라고 해서 두루 다니는데 어디 삭정이쪼박도 얻을수 있더라구.

그래 죽어가는 버드나무가 눈에 띄길래 무작정 가지를 잡아쥔었지.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노할 줄이야. <다 죽은 나문데요 뭐.> 중얼중얼 말대꾸질을 하는 나에게 <이녀석아, 이 밀둥아리에 새움이 트는게 안 보이느냐? 응?> 하시면서 회초리로 야들야들한 내 종아리를 사정없이 후려치는데 참... 난 그렇게 성을 내는 아버지를 그때 처음 보았소.》

...《이녀석아, 이 땅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위해 아버지랑 아버지전우들이 어떻게 피흘리며 미국놈들과 싸웠는지 아냐? 나무가 아파하는것도 모르구 나무 한그루두 아낄줄 모르는 녀석이 이담에 커선 무엇 하나 귀해할것 같으냐?》

키가 자그마한 아버지 신일형은 본시 무뎌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번만은 쉬이 노여움을 풀지 못했다. 신일형은 꺾어온 버드나무가지를 대문밖에 정히 심도록 했다. 그리고는 나무둘레에 두두룩하게 흙도 올려주고 버팀목도 해주었다. 그날 밤 신일형은 명어진 아들의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고나서 꼭 껴안은 채 지난 조국해방전쟁때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원쑤들의 포격과 폭격으로 별거숭이가 돼버리는 산과 들을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던 일이며 나무 한그루를 지켜내기 위해 생명까지도 바쳐야 했던 전우의 이야기며...

신정남에게 있어서 그날의 그 이야기는 오늘까지도 강한 인상으로 그의 뇌리속에 남아있었다. 그후 어린 나무의 성장과 함께 신정남이도 성장했고 아버지한테서 들은 이야기들도 점점 더 큰 의미로 가슴속에 새겨진것이다....

《광진이, 우린 아직 한 일이 너무나도 적다. 강성국가건설을 우리는 쌀로써 받침해야 할게 아니냐. 그러자면 선진농업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늘 듣는 소리라고 심상히 여기지 말아.》

《알겠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광진은 분조장의 속마음을 다는 깨닫지 못하고있었다.

5

새벽일찍 집을 나섰다. 김상규아바이가 마주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도 삼이 들려있었다.

《어딜 가세요?》

광진의 물음이었다.

《논물을 잡아야지. 나야 원체 6분조 물관리공이 아닌가.》

《예예?!... 아니, 그럼...》

광진은 눈이 때꾼해서 아바이를 쳐다보았다.

《놀라긴, 분조장의 지시가 있었어.》

《분조장지시라구요?》

광진은 앵무새처럼 따라외었다. 믿어지지 않았다.

《믿어지질 않는가? 흠, 그럼 오늘은 사실대로 말해줘야 할가보군.》

김상규는 군기침을 짓고나서 입을 열었다.

《사실 지난해 광진이를 물관리공으로 하자고 한 건 내가 아니라 분조장이었어.》

《분조장이라구요?》

광진은 오리무중에 빠져버렸다. 아바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수 없었다.

《광진이가 날더러 논물관리를 해보겠다고 때를 쓸 때 난 손자녀석 응석만콤으로만 여기구 분조장한테도 그렇게 말해줬어. 헌데 분조장은 내 말을 심중히 받아들이더군. 그때 분조장이 뭐랬는지 아냐? <광진이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최첨단 시대에 맞게 과학농사를 짓자면 광진의 말처럼 단번에 서너계단씩 뛰어올라야 합니다. 아바이, 광진이한테 논물관리를 맡겨봅시다.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광진이가 자기를 부러진 나무막대기로 생각하면서 양기를 잃고있는데 이 땅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거목으로 자랄수 있도록 우리가 복이 되고 버팀목이 되여줍시다.> 분조장의 말을 박순옥이랑 분조원들이 지지해나섰지. 그래서 분조장이 나를 똑 때버리고 광진일 임명하면 별나게 생각할것 같아서 내가 제기하는 식으로 하기로 했네. 헌데 도리어 그때 광진이 네가 엇드레질을 할 줄은, 헛참...》

김상규는 그때의 노기가 되살아나는듯 얼굴이 벌개서 코를 킁킁거렸다.

광진은 갈피를 잡을수 없는 모순속에 서있었다. 그러니 그때 내가 논물관리공으로 될수 있는것은 분조장의 덕이었던 말인가? 헌데 지금은 왜?...

광진은 분조장을 만나 사연을 알기 전에는 마음을 가라앉힐수가 없었다.

작업반실로 달려갔다. 작업반실에는 관리위원장의 참가밑에 농장분조장이상 초급일군들의 협의회가 한창 진행되고있었다.

갈게높이 개간되었지만 논구실을 해서 옹근소출을 기대하자면 많은 품을 들여야 했던것이다. 그 실무적토의를 한다고 했다.

창유리로 모여앉은 초급일군들의 모습이 보였다. 신정남분조장이 일어서서 열변을 토하고있었다. 그

의 목소리가 광진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개간한 논을 매 분조들에 찢어주면 웅근소출을 기대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손떨 여지가 많은 그 논을 분조들에서 다루어내기 힘들기때문입니다. 저의 의견은 새 개간지를 청년들에게 맡기자는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농사를 지을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관리위원장은 매우 신중한 기색이었다. 오랜 일군인 그의 귀밑에는 흰서리가 희끗희끗했다.

《그럼 청년분조를 조직해야 한다는 소린데 일리는 있소. 현대 분조장후보가 문제거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신정남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제 생각엔 우리 분조의 김광진동무가 적합할것 같습니다.》

순간 광진은 깜짝 놀랐다. 자기를 분조장으로 추천하다니. 잘못 들은것 같았다.

놀란 사람은 광진이뿐이 아닌것 같았다. 술렁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밖에까지 흘러나왔다.

《김광진이라면 나이도 어리고 농사경험도 없는 동무가 아니요?》

우려하는 관리위원장이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능히 해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논물관리를 시켜보았는데 책임성뿐 아니라 창발성도 있고 배우려는 열망도 높고 자질이 엿보입니다. 결에서 잘 도와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청년분조장의 임무를 수행하리라 믿습니다.》

관리위원장은 좌중을 둘러보았다.

《다른 동무들의 의견은 어땠소?》

머리를 기웃거리던 초급일군들은 수긍하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6분조장이 사람을 잘못 불리야 없지요.》

《좋소. 그럼 리당위원회와 토론해보겠습니다.》

아!...

광진은 걱정으로 하여 목이 메었다. 돌아서 대충없이 막 달려갔다. 멈춰서고보니 아름답리백양나무앞이었다.

좌아아 아름답리백양나무가 우듬지까지 꼭 메운 무성한 아지들을 바람결에 폭 내맡기고 웅건하게 설레고있었다. 방금 솟아오른 아침해가 맑은 내물에 씻기운듯 한 물기 함초롬한 파란 잎새들에 붉은 광선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아름답리백양나무의 웅건한 자태가 가슴벅차게 안겨든다. 지심깊이 뿌리를 내리고 역세게 자라 오는 바람, 가는 바람 다 막아주며 고향의 상징으로 변함없이 서있는 나무였다. 새 거목을 키워낼수만 있다면 자기 몸의 한부분도 서슴없이 바쳐 토양에 뿌리내릴수 있게 하는 거목이었다. 운양천기슭의 백양나무들도 모두 이 품에서 떠나간 나무가지들이 아니었던가.

아, 백양나무, 고향의 백양나무여!

광진은 청년분조장으로 임명되었다. 광진은 마을에서 5리나마 떨어진 새 개간지에서 살면서 한해 농사를 지을것을 결심했다. 그래서 청년분조가 달라붙어 새집을 짓고 오늘은 그곳으로 떠나는 날이다. 작업반마당에는 적재함에 텔레비존수상기며 각종 악기들과 농업과학기술서적을 비롯하여 생활필수품들과 부엌세간들, 작업공구들을 실은 트럭포크가 어서 떠나자고 재촉하듯 통창거리며 서있었다. 신정남이 광진이한테로 다가왔다.

《청년분조장동무, 우리가 생산한 린회토를 몽땅 실어가라구. 그게 새 개간지에는 보통 보약이 아닐게야. 그래서 많이 생산해놓았거던.》

광진은 속이 후터워났다. 웅심깊은 나의 분조장.

《저 분조장동지, 한가지 청이 있습니다.》

《뭔데?》

《전 우리 청년분조 매 분조원들이 백양나무가지 한대씩 가지고나가 새 개간지에 심었으면 합니다. 허락해주십시오.》

그윽한 눈길로 광진을 지켜보던 신정남은 아귀센 손으로 그의 어깨를 짊 쥐었다.

《광진이, 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바라시는대로 분조를 팔을 끼고 어깨걸고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진정한 동지, 전우부대로 꾸려달라구.》

신정남은 청년분조 선동원 복실이가 내민 톱을 받아들고 나무우로 올라갔다.

맞춤한 나무가지들을 고르기 시작했다. 아름답리 백양나무는 미래의 거목들을 위하여 다시금 아낌없는 자기 가치를 내놓는것이였다.

그러나 결코 거목은 앙상해지지 않는다. 잘라낸 그 자리에서 더 생신한 가지가 생겨나고 더 많은 거목감들이 자랄것이다.

광진은 눈앞이 뿌예졌다.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고향의 백양나무여, 나도 너처럼 살련다. 거목으로 자랄수 있도록 깊이 뿌리내리게 해준 고마운 토양에 다함없는 인사를 드리며 충정과 보답으로 이 땅을 살찌우고 새 거목을 위해 자기를 바치며 어린 나무의 복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훌륭한 인간들처럼 나도 살련다. 이제 새 개간지에서 백양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방풍림으로 되어 설레일 때 그 숲은 풍요한 대지우에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고있는 후대들에게 이야기해줄것이다.

고향에, 대지우에 거목의 숲을 마련하기 위해 아낌없이 자기를 바치고 서슴없이 복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준 인간들의 사랑판에 대하여, 고향과 조국에 대한 참다운 사랑이란 현신이고 창조이라는것을 가슴뜨겁게 이야기해줄것이다.

광진의 마음속에서는 격량이 일고있었다.

조국과 강철과 나

리 명 학

나는 용해공
강철이 없는 우리 생활 생각할수 없기에
쇠물을 뽑으며 나는 생각한다
조국을 사랑한다면 쇠물을 꿰이자
원췌를 증오한다면 더 많은 쇠물을 뽑자

조국번영의 담보인 우리 당의 병진로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도
쇠물 쇠물로 시작된다
쇠물은 조국에 만년기둥 세워주고
쇠물은 원췌에게 죽음을 준다

강철은 강하고 굳세다
그래서이리
인민의 마음속에 억척뿌리 내린
강철 너는 우리의 힘
강철 너는 국력

언제나 쇠물빛에 젖어사는 이 마음
쇠물을 떠나선 못살아
쇠물은
내 심장의 끓는 피
내 심장의 피 끓으면 쇠물은 펄펄 끓는다

쇠물떠나 못사는 용해공
언제나 바치고싶은 열정은 불타올라라
쇠물은
조국에 바치는 용해공 나의 아낌없는 애국
쇠물은
어머니당에 드리는 용해공 나의 백옥같은 충정

때로는 자그마한 성과에 만족하다가도

자기를 깡그리 바쳐가는
네앞에서는 부끄러워
이 몸 강철이 되고싶은 간절한 이 심정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강철로 받들자
쇠물이어
너는 식어도 강철로 굳고
나는 죽어도 강철이 되고싶어라

핵무력은 나라의 자주적권리이며 존엄
진정한 평화도 핵무력강화에 있다
이 억척불변의 진리
장군님따라 선군의 길 걸으며 뼈에 새겨왔다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만대에 빛내여갈 철석의 신념이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우리 당의 병진로선으로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세계평화의 수호자
온 세계가 우러르는 강철의 령장
인민은 그 령장을 받들어 끓는 붉은 쇠물
나는 그 쇠물의 작은 한방울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드는
강철이 되고싶어
쇠물을 꿰이며 나는 맹세한다
강철이 되자
눈비에도 삭지 않고
불비에도 끄떡없는 강철이 되자
우리 당의 병진로선 받드는 불변의 강철이 되자

유 래

완 벽

완벽은 글자 그대로 《구슬을 온전히 간수하다.》라는 말인데 완전무결이란 뜻으로 널리 사용되고있다. 원래 《완벽귀조》(구슬을 온전하게 건사해가지고 조나라로 돌아오다.)의 준말로써 다음과 같은 고사에서 유래되었다.

조왕이 진귀한 구슬을 얻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웃나라 진왕이 15개 성을 줄테니 바꾸자고 했다. 린상여가 조왕의 특사로 진왕을 찾아가 구슬을 내놓으니 그는 구슬을 덥석 쥐고 놓을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린상여가 《언제 어느 성을 떼주시렵니까?》하고 물으니 진왕은 《음, 주고말고. 구슬을 내놓고

돌아가면 인차 성을 넘겨주도록 하지.》라고 말하였다. 가만 보니 구슬을 공짜로 떼어먹을 심산인지라 린상여는 《아참, 구슬이 바뀌었습니다. 진짜를 드릴테니 그 가짜구슬일랑 돌려주십시오.》하고 껍을 써서 구슬을 도로 받았다. 그리고는 그것을 부하의 품속에 깊이 감추어넣게 한 다음 진왕을 보고 《전하가 성을 가지고오면 구슬을 드리리요.》하고 궁문을 차고나와 조나라로 무사히 돌아왔다.

여기로부터 《완벽》(구슬을 온전하게 건사해가지고 돌아오다.)은 글이나 물건이 완전무결하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시인의 사색속에 비낀 세월과 인생

—서진명시집 《풍요한 가을》을 두고—

최 주 원

시집의 마감페지를 덮었지만 한편의 시가 조용히 가슴을 울린다.

세월이 빠르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도
그 목소리에 비낀 마음
서로 다르리라

한결같이 궁지에 넘치더라
한생의 목표를 향해
뜨겁게 바삐 산 사람
세월의 흐름에
산을 떠신고온 사람의 음성은...

허나 세월의 물결에
신고온것 적은 사람
값없이 흘러보낸 세월을 두고
한숨을 짓는 사람도
우리들속에 없지 않거니

물처럼 세월은 흘러가도
물처럼 흘러보낼수 없는 한생
그 한생의 목표를 향해
벗들이여
너나없이 심장에 불을 달자

가버린 세월을 두고
허구프게 웃는
생활의 락오자
헛살은 인생이
우리들속에 더는 한사람도 없게...

이 시는 시인의 얼굴을 련상시켜주는 시집의 제명도 아니고 시인의 대표작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 력작도 아니다.

하다면 한없이 소박한 시, 인생의 교훈을 조용히 타이르듯 생활적인 느낌으로 진실하게 노래한 시 《세월과 인생》을 서두에서 먼저 떠올리게 되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한편의 서정시는 작지만 시인이 창작하는 때편의 작품마다에는 사람들이 조국과 인민 그리고 자기 생에 대하여 사색할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세계가 비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작품이 사람들의 말없는 스승으로, 길동무로 될수 있습니다.》

시집이 시인으로 살아온 한생의 총화라면 매개시편들은 시인으로서의 성장과정을 그대로 새겨준 발자취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서진명시집 《풍요한 가을》은 로동당시대 빛나는 세월속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의 생에 대하여 꾸밈없이 솔직한 느낌을 토로하며 성장한 시인의 한생과 사색의 세계를 펼쳐보여준 인상깊은 시집들중의 하나라고 말하고싶다.

영광의 세월은 시인을 키운다

나는 이 시집의 필자를 잘 알지 못한다.

솔직히 고백컨대 이따금 《조선문학》잡지나 《문학신문》 그리고 종합시집들에서 본적이 있는 이름이라는 어렵פות한 표상을 가지고있었을뿐이다.

어느 한 기회에 필자의 시집을 구해들고보니 문득 떠오르는 시가 있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기억해두었던 서정시 《백두산의 눈》(1975년)이었다.

얼마전에 시집에 대한 평론을 써달라는 편집부의 청탁을 받고서야 시인과 의사소통 한번 해보지 못한채 며칠동안 눈을 밝히거며 시집을 다시 읽게 되었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시집에 들어있는 90여편의 많은 서정시들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은 례의 시 전문을 인용해본다.

계절과 우주공간의 조화도 줄수 없었던
화창한 봄날을 이 강산에 펼쳐주고도
백두산이여
그대 령봉엔 흰눈이 없혀져있구나

조국땅에 덧쌓인 장설을 떠이고
추위에 떨던 그날
불길처럼 타는 기폭으로 그대를 감싸며
자욱자욱 광복의 봄씨앗을 묻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발자취가 하도 소중해
그날의 눈은 녹을줄 모르는가

진정 모질던 세월의 눈바람을 그대만이
안았구나

이 강산에 꽃피난 사회주의봄
눈속에서 안아올린 봄빛의 따사로움을
뜨겁게 열렬하게 느끼게 하는
눈보라 날리는 혁명의 성산

아, 락원의 봄동산을 가꿔주시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대 품을 내리시지 않으
셨다고
환희에 넘치는 통일된 그날을 안겨주시려
어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진군길을 헤쳐
가신다고
거룩한 자욱을 새겨안은 백두산의 눈이여!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혁명의 성산 백두산, 우리 혁명의 역사적뿌리가 내린 백두산을 두고, 얼마나 많은 시인들이 그 장엄성과 숭엄함을 두고, 그 거룩함과 신비스러움을 두고 심장의 격정을 터뜨렸으랴.

허나 시인의 사색과 탐구의 시선은 그 아아한 메부리에 없힌 눈, 흰눈에 모아진다.

사시창절 흰눈을 떠이고선 백두산, 어이하여 그 령봉우에 흰눈은 녹을줄 모르는가? 백두에서 받아안은 충격이 컸던만큼 사색과 서정의 진수를 파고드는 잡도리도 진지하다.

계절과 우주공간의 조화도 줄수 없었던 화창한 봄날을 이 강산에 펼쳐주고도 흰눈을 없고있는 백두산, 조국해방의 봄씨앗을 묻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발자취가 하도 소중해 그날의 흰눈을 그대로 간직한 백두산, 이 강산에 꽃피난 사회주의봄빛의 따사로움을 뜨겁게 느끼게 하며 흰눈을 날리는 백두산, 어버이수령님 오늘도 여기 계시며 혁명의 진군길 헤쳐가신다고 그 자욱 새겨안은 백두산인것이다.

시인은 백두산의 전모와 그에 깃든 거창한 세계를 포괄적으로 보지 않았다.

《백두산의 눈》, 이것은 백두산이 간직한 그 모든 사상과 뜻을 한점으로 뚫어뻘힐수 있는 표상적인 세부이다. 바로 여기에 시인의 관찰과 사색이 집중되었기에 시의 서정세계는 그렇듯 기지에 넘치는것이 아닌가!

하나의 작은 세부이면서도 웅건한 폭과 무게를 느끼게 하는 시적발견의 세계, 그것은 심오한 사상정서적체험이 안받침된 사색의 깊이에서 태어난 것이다.

이 시의 창작년대를 보면 1975년이다.

시집에 수록된 작품들중 가장 오래된 작품들의 창작년대가 1970년이라는것을 상기해볼 때 서정시 《백두산의 눈》은 시인의 창작활동에서 첫 작품 계열에 속한다고 볼수 있다.

시인은 벌써 창작초기에 시문단에 깊은 인상을 남긴셈이다.

하다면 무엇이 시인에게 시를 주고 어떤 환경이 시인으로서의 성장에 튼튼한 자양분을 심어주었는가.

시대가 시인을 낳는다고 한다.

백두산을 심장에 품어안고 절세위인의 업적과 위대성을 절감하며 첫걸음을 댄 시인은 이 땅우에 사회주의봄동산이 꽃피나는 영광의 세월, 로동당시대에 살며 체험하면서 작가로서의 자기 인생행로를 걸어왔다.

시집의 《백두산의 눈》편에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나날과 성스러운 백두의 혁명전적지들, 오산덕의 고향집을 향시 마음에 안고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생애를 체험하면서 이 땅에 영광의 세월을 안아온 성스러운 위업을 가슴뜨겁게 노래하고있다.

《장군님을 우러러》(1970년), 《삼지연 맑은 물》(1978년), 《타막풀기슭에》(1978년), 장시 《백두밀림에 눈이 내린다》(1993년), 《눈비오는 어려운 때일수록》(1999년), 《백두산, 혁명의 성산아!》(2003년), 가사 《오산덕에 눈이 내리네》(2009년), 《소백수물소리》(2009년), 《떠나는

길 따라서며》(2009년) 등의 작품들이 바로 그러하다.

특히 백두에 내리는 흰눈을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혁명의 천만리길에 안고살 백두의 혁명정신을 버리고버리는 서정적주인공의 서정세계(장시《백두밀림에 눈이 내린다》), 혁명의 1세들의 고귀한 빛과 정신을 따라 언제나 혁명의 고향 백두산을 안고살자고 호소하는 뜨거운 체험세계(《눈비오는 어려운 때일수록》)는 시대앞에 지닌 시인의 사명과 임무를 자각한 시인의 진정의 토로가 깃들어 더욱 감명깊은것이다.

시집의 《장군님의 발걸음소리》편에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위업을 이어 이 땅우에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위업을 다양한 정황과 시적계기, 시적대상들을 통하여 노래함으로써 시인이 어떤 영광의 세월속에 살며 성장해왔는가를 뜨겁게 더듬어보게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시는 《어머니에 대한 시》(1993년)이다.

새들도 기쁨에 겨워 우짚었네
가슴에 금별을 번쩍이며
표창휴가 온 영웅을
전화의 날 1211고지 병사였던
아버지가 반기고
건국의 모범농민으로 소문났던
할아버지가 열싸안았네

푸른 잎새 흔들며 마당의 살구나무도 설레이는 기쁨의 날, 지난날 머슴군이었던 할아버지가 대의원이 되었던 그 여름날을 그려보며, 전선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협동화의 첫 주인이 되어 종소리 울리던 그 봄날을 그려보며 그 복된 세월이 감회깊이 돌이켜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뜨겁게 울린다.

—대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어머니는
우리 당이구나
그 품에서 우리 3대가 다 사람답게 사는구나!

아, 마디마디 생각깊은 그 말은
가슴마다 뜨겁게 울리고있었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어도
어머니는 그 한 어머니
그 품에 태어나 안겨살며

빛나고 순결하게 대를 이어가는 한피줄
할아버지와
아들과
그 손자...

여기서 생활속에서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포착하고 3대로 이어지는 당의 사랑과 믿음의 세계를 한쪽의 그림처럼 펼친 독특한 시형상창조의 수법에 대하여서는 구태여 논하지 말자.

이 한편의 시를 통해서도 시인이 한생 안고산 뜨거운 체험세계, 주도적인 감정세계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감득할수 있다.

영광의 세월속에서 당의 사랑과 은정을 노래하며 시인으로 사는 값높은 삶을 자각한 서정적주인공, 천리 먼곳에 있어도 언제나 가까이 불러주며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세계를 굽어보며 사는 존엄높은 긍지와 기상과 힘, 아름다운 미래를 주는 당의 목소리를 듣는 아들의 크나큰 행복을 노래한 서정시 《나는 듣습니다》(1990년)에 비친 시인의 심장의 체험이 그 밑바탕에 굽어치고있다.

또한 당이 맡겨준 초소에서 당의 위업 받들어가 는 나날에 못다 올린 감사의 노래, 충정의 노래를 하는 일 하나하나에 담아올리리라는 소박한 진정의 토로가 맥박치는 서정시 《내 하는 일 그 하나 하나가》(1994년)에 뜨거운 여운으로 울리고있는 것이다.

창작의 첫걸음부터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자욱을 따라 백두산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시대앞에 지닌 시인의 의무를 자각한 시인, 위대한 장군님따라, 우리 당을 따라 끝까지 가고갈 영광의 세월속에 자기 삶의 떳떳한 위치를 정한 시인의 인생행로는 걸음마다 칭송의 노래, 맹세의 노래를 새기며 이어져왔거니.

1970년대에 철도부문에서 일하면서 첫걸음을 댄 시인의 목소리가 생신하게 울리는 《기적소리》편, 세기를 이어오며 진정한 주인들을 만난 이 땅의 고백으로부터 풍요한 농촌의 가을을 안아보는 서정적주인공의 후더운 정이 흐르는 《가을》편, 오늘도 시인이 발붙이고 사는 함남땅의 눈부신 전변과 창조의 교향곡이 다양한 울림으로 메아리치는 《조국땅 그 어디나 노래넘치네》편, 전쟁참가자는 아니여도 어린 나이에 보고 듣고 체험한 사실들을 뜨거운 정서로 노래한 《내 노래의 총창앞에》편을 통하여 우리 사는 세월, 로동당이 펼친 창조의 세월, 번영의 세월, 행복의 세

월속에서 청춘의 열정으로 시상을 번뜩이며 시대와 인민과 자신을 노래하는 시인의 풍만한 세계를 느껴안는다.

아직 한번도 만나본적이 없는 시인의 얼굴이지만 환한편편의 소박하나 진정에 넘친 시편들에서 찾을줄 모르는 심장의 고동소리와 숨결을 듣고있다.

나는 이 과정에서 시인과 말없는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결국은 시인을 알게 된셈이다.

《세월과 인생》의 다감한 시세계

시는 사람들이 시의 세계에 끌려 들어가 사색할수 있도록 깊이가 있어야 하며 감동을 주어야 한다.

시의 세계는 곧 시인의 세계이며 사람들이 그 세계에 끌려 들어가게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시인의 높은 정치사상적준비정도와 예술적기량에 관계되는것이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모든 사색의 총체를 바치는 시인의 심장속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에는 사람들을 투쟁으로 부르는 진군의 나팔소리와의 같이 참된 삶을 가르치는 세계가 있기마련이다.

물론 그런 세계는 심장을 들쭉우는 요란한 웨침이나 호소가 아니라 누구나 스스로 끌려 들어가 자기의 생활과 감정을 느끼듯이 자연스럽게 받아안게 되는 사색의 세계라고 말할수 있다.

시집 《풍요한 가을》중에서 이런 인상을 강하게 안겨주는것이 바로 《세월과 인생》편이다.

이 편에 수록된 17편의 시들은 제목만 쏙아보아도 사색하는 시인, 세월과 인생에 대하여 자기의 소박한 철학세계를 파고드는 진지한 창작태도를 엿볼수 있다.

시 《박사부부의 행복한 삶은》(2002년)에서는 것처럼 뵈고싶던 어버이장군님을 만나뵈온 과학원 함흥분원의 박사부부의 행복을 실재한 사실자료에 대한 감동적인 시형상으로 노래하면서 《박사부부가 장군님을 만나뵈던/그 시간은 짧아도 긴 시간》이라고 《걸어온 인생길과 가닿을 한끝/오늘에 빛내주고 래일을 밝혀주며/그 시간은 가지 않으리라》는 행복한 인생과 시간의 철학을 정서적으로 밝히고있으며 시 《혁명선배들의 눈빛앞에서》(2000년)는 자기의 가정과 일터에서 언제나 지켜보는 눈빛, 자기의 말투와 걸음걸이, 하는 일 하나하나를 《때로는 걱정으로/때로는 대견함으로》 바라

보며 《흐려지기도 하고/빛나오르기도 하는 눈빛》이 있음을 늘 자각하며 《내 만약 앞서 걸은 그 길에서 탈선되고/선렬들이 추켜들고온 붉은기를 저버린다면/행복한 오늘과 희망찬 래일까지도/송두리채 없을수 있다는것을》준절히 깨우치며 《혁명선배들의 그 눈빛앞에서/강성대국건설의 앞장에 선》자기의 하루하루가 흐르고있다는 인생의 보람을 생각깊이 노래하고있다.

그런가하면 애국렬사릉에 안치된 강규찬, 고진히렬사부부앞에 경건한 마음을 안고서서 혁명과생이란 무엇인가를 절감하며 《백년도 못사는 생을 천년으로 이으며/조국이 잊지 않는 공화국영웅으로/그들은 우리앞에 있어라!》는 생의 철리를 깨우친 시 《하나의 비앞에》(1992년)도 있고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신념과 지조를 지켜산 비전향장기수들의 삶과 끝끝내 흰기를 들고야만 교형리들의 무력한 신세를 대조적으로 노래하면서 력사의 공정한 심판관인 세월의 엄숙한 선언을 시적으로 웨친 시 《교형리들과 수인과 세월》(2002년) 등 값높은 인생철학을 시대의 전형적인 주인공들의 투쟁을 통하여 뜻깊게 일반화한 서정시도 있다.

세월과 인생에 대한 시인의 사색과 탐구가 얼마나 다감한 시세계를 낳는가 하는것은 인간생활의 복잡다단한 흐름속에서 때없이 체휼하는 각이한 정황과 계기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여 사람들에게 사랑과 행복에 대하여, 시간과 삶에 대하여, 기쁨과 희망에 대하여 조용히 속삭이는 시편들을 통하여 감득하게 된다.

어느 하루 퇴근길에 서로 바래주며 마을길을 걸어가는 처녀총각의 애뜻한 모습이 심금을 울려 시인은 시 《그들은 아직 모르고있었네》(2006년)를 썼을것이고 내 나라의 아름다운 동해기슭에 큰 창문을 열어놓고 바다의 절경을 날마다 바라보며 끝없는 자량을 노래하고싶어 시 《내 집에 손님이 오면》(2006년)을 창작하였을것이며 평범한 이웃집의 귀염둥이 소녀애를 보면서도 사회주의꽃동산에 피어난 한송이 축복받은 꽃을 그려보며 로동당시대의 세월속에 받아안은 기쁨과 희망을 노래한 《나의 이웃집에는》(1994년)이라는 시를 남겼을것이다.

《세월과 인생》편에는 주로 생활의 순간순간들에 뇌리를 치는 문제점들을 놓치지 않고 짧은 형식에 담아 교훈적으로 노래한 시들이 대다수이다.

이것은 시인이 다양하고 풍만한 생활속에서 그

어떤 비상한 정황이나 경이적인 계기가 아니라 평범하게 흘러가는 일상사들에서 무시로 받아안게 되는 교훈적인 느낌을 시로 담아보는 습관이 남다른것을 보여준다.

자기가 관찰하고 절감한것을 즉시 시로 표현해 보는것, 그것은 기억에 흔적을 남기고 심장에 기록을 새기는 작업으로서 생활속에서 살며 생각하며 느끼는 시인의 가장 적극적인 창작숙련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시인은 이 창작숙련과정과 작품완성과정을 하나로 융합시켜 어찌보면 습작같기도 즉흥같기도 한 독특한 교훈시들을 수시로 써낸것이다.

세월이 빠르다고
말하는 사람 많아도
그 목소리에 비낀 마음
서로 다르리라

—시 《세월과 인생》(1989년)중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라
비울 때 우산 찾듯이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동무가 그대에겐 없는지

—시 《비울 때 우산 찾듯이》(1993년)중에서—

큰 나무그늘아래서
피약별도 피하고
비바람도 피한듯
줄기도 연약하고
임새조차 시들한
불쑥없는 나무 한대

—시 《큰 나무그늘아래서》(1993년)중에서—

자연의 봄은
해마다 찾아오지만
인생의 봄은
한번 가버리면 다시 올줄 모른다고
봄이 웃는 창밖을 내다보며
서글픈 속마음을 터놓는
동갑친구여

—시 《심장이 사랑에 불타면》(2009년)중에서—

강물의 흐름은
하나같이 않습니다
기슭에는 잔물결
가운데는 큰 물결

—시 《큰 물결 큰 파도》(1994년)중에서—

어릴적엔 물랐네 세월이 빠른줄
철이 들어 알았네 시간의 귀중함을
한생은 길지 않고 할일 많거니
분과 초를 아껴가며 바쁘게 살리

—가사 《시간과 내 한생》(2006년)중에서—

시의 첫 련들만 쏘아보아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동갑친구의 모습에서, 혹은 숲속에 덧쌓이는 락엽과 큰 나무그늘아래 불쑥없는 작은 나무를 보면서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늙지 않고 퇴색을 모르는 값높은 삶을 지향하는 시인의 사상정서세계가 의미깊게 암시되고있다.

한편의 보통시집을 놓고 시인을 다 알고 시세계를 다 론한다는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한편한편의 시들이 시인의 사상과 정신, 그의 호흡과 숨결, 그의 문학정신과 창작기량의 반영일진대 미흡한 소견으로나마 시인을 보고 시의 세계를 분석해보았다.

글을 마감하자니 아쉬움도 없지 않다.

시인의 얼굴이 좀더 둥구어졌으면, 좀더 시대와 생활을 안는 심장이 크고 열렬했으면, 좀더 남다른 이채롭고 시정에 끌려 외우고싶은 시들이 많았으면 하는것이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주관적욕심이 아니라 우리 독자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시인은 시대의 가수로서, 그 선도자적역할은 시적재능과 확고한 개성으로 담보할 때 참으로 진정한것으로 빛날수 있으며 또한 시집도 성공할수 있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주체적인 시문학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시인들과 그들의 시집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새로운 주체 100년대를 맞이한 오늘의 시대에 어버이장군님 지펴주신 함남의 불길이 타오른 력사의 고장에서 더 훌륭한 시들을 창작하여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손자사랑

최 은 철

앞집 할머니 신바람났소
손자사랑에 신바람났소
새벽부터
군복입은 손자손목 잡고
온 마을 돈다오

제 엄마 부드러운 등보다
이 할머니 거친 등 더 좋아한 녀석
수두룩한 손녀들중
하나밖에 없는 손자녀석이라
업고 품고 안고
애지중지 키웠더니만

바위같은 넓은 어깨
대대장인 제 아버지 닮았구려
딱 졸라맨 혁띠맵시
병사들 따르는 제 엄마 같구려

저 애는

포도넝쿨 서늘한 그늘아래
풋강냉이 쥐여주는
이 할머니무릎에 앉아
정찰병할아버지 간호장할머니 옛말 좋아했다고
아버지처럼 용감한 인민군대 되겠다고
키크기와 몸단련 했다오

자 이젠 그만 인사하구
어서 배낭메고 떠나거라
아버지 어머니 당부 잊지 말구
동네어른들 말씀 명심하구
꼭 영웅되어 돌아오너라

그날 이 할머니
너 어렸을 때처럼
굽은 등 곧게 펴고 등등 업어주려다
오늘처럼 온 마을 돌며
네 자랑을 하려다
김정은장군님 병사사랑을 하려다

상 식

원유보다 물이 귀한 나라

사람들은 자그마한 나라인 쿠웨이트를 《원유의 나라》라는 대명사로 부르고있다.

이러한 쿠웨이트에서 원유가 샘처럼 솟아오르는가 하면 반대로 한가지 우환거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먹을 물이 부족한것이다.

이 나라에는 고정적으로 흐르는 강은 없고 곳곳에 마른 골짜기들이 있다. 이처럼 쿠웨이트는 강과 호수가 없고 대부분 평토가 사막으로 되어있다.

쿠웨이트는 지하에도 먹을수 있는 물이 아주 적다.

땅속에서 솟아나오는 액체란 원유가 기본이고 우물을 파면 물이 조금씩 나온다 하여도 원유가 섞여나오기때문에 먹기 곤란하다. 그리하여 바다물을 정제하여 먹는 물로 리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 나라에서 사람들이 대대로 바라온것은 물 원천을 찾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쿠웨이트에서 담수를 찾기 위해 땅을 파다가 우연히 원유를 발견하였다. 이 원유층은 알고 땅속압력이 커서 일부러 뽑아올리지 않아도 원유가 호수를 따라 올라오기때문에 채취원가가 낮다. 쿠웨이트가 원유생산대국으로 될수 있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 쿠웨이트에서는 원유수출로 번 수입으로 청수공장을 크게 건설하여 생활용수뿐 아니라 공업용수도 해결하고있다. 쿠웨이트에서는 길을 가다가도 휘발유를 얻기는 매우 험하지만 먹는물을 한사발 얻자면 많은 돈을 내고도 얻기 힘들다.

그리하여 쿠웨이트는 세계에서 물값이 제일 비싼 나라로 되고있다.

내 고향의 사과맛

리 진 묵

가을...
오래간만에 고향에 왔다고
마음후한 북청사람들 첫인사는
예나지금이나 변함없구나
꿀같이 달고 시원한 사과대접 그 풍습

못 잊을 5월의 봄날
아버이장군님 찾아주신
북청땅 내 고향 파원의 사과
파원은 그대로 파일의 바다
파원은 그대로 기쁨의 바다

기쁨과 행복의 열매여서
그 기쁨 그 행복 어디에 비기련만
고향사람들 대접하는 한알 사과에
내 한생토록 그립던 고향의 향취
다 안아보게 하는 고향의 사과맛이여

내 어데 가나 자랑눌던 고향의 사과자랑
내 고향을 떠나 초소로 갈 때
어머니가 배낭 깊숙이 넣어주던 사과는

군사복무를 잘하라는 고향의 부탁이었나니

온 고향땅 후더운 인정인양
내 마음 적셔주는 사과맛 사과향기
오, 가슴 뭉클 적셔주는 장군님말씀이여
북청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펼쳐주신 파수의 고장
예로부터 북청사과는 맛으로 유명한 고장
면적이 아니라 사과맛으로 경쟁에서 이기라 하신
믿음

그래서인가
내 원흥땅 고산땅 과일고장 다 돌아보며
가슴뿌듯이 느껴지는 궁지
이 모든 파원 내 고향 북청에서 시작된듯
사과맛도 내 고향 사과맛이 제일이라는 자랑

어이 그렇지 않으랴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이 자양이 되고
어버이장군님의 뜨거운 정이 단즙이 된
내 고향 룡전사과 그 사과맛이
이 세상에서 으뜸이라고 자랑하고싶네

나는 그리리라

조 석 영

판가리결전이 다가오는 이 시각
나는 그려보노라
불벼락을 터칠 우리의 전략로케트들
미제의 아성 백악관을 재더미로 만드는
위력한 핵폭탄의 불기둥을

그러만 보아도 통쾌하구나
세기를 두고 참고참았던
원한을 재운 핵무기들이
일시에 적진을 향해 날아가는 그 광경

불마당속에 아우성치는 놈들아
이제는 항복서에 도장을 찍겠다고 해도
우리의 핵무기는 용서없다
네놈들의 본거지가 재더미가 되리라

우리에게 노예의 멍에를 들썩우려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놈들
해마다 전쟁연습으로
우리를 위협하던 놈들을
우리 어찌 용서할수 있단 말인가

원썬들은 이제 알게 되리
소형화 경량화된 핵무기의 타격을
놈들이 어디에 숨어있든 죽음만을 주는
다종화 정밀화된 핵무기의 위력을

미제전쟁광신자들아
숨통이 끊어지기 전에 이것만을 알아라
네놈들이 그렇게도 자랑하던 핵잠수함은
바다속에 파철로 잠기리
네놈들이 그리도 믿고 떠들던 전략핵폭격기들
태평양상에서 산산조각나리
네놈들 지구상에서 영영 쓸어버릴 때는 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천접만접 성새를 이룬 불패의 대오
천출명장의 슬하에서 다져지고다져진 우리의 군력
총폭발시킬 때는 왔다

오, 무적강군의 보복타격으로
최후승리를 안아온 그날
나는 세계지도를 다시 그리리라
미제가 없는 이 행성
평화로운 새 세계지도를!

조선문학 주체102(2013)년 제8호 (루계 제790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2(2013)년 8월 1일

발 행 주체102(2013)년 8월 5일

7-36461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3
D P R Korea
ISSN 1727—9437